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 혼인 · 출산 행태 및 인구 · 가구구성 변화 연구

2011년 12월

연구책임자: 이 철 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용역 개요 .....	1
1.2.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1.3. 국내외 연구동향 .....	3
1.4. 보고서의 구성 .....	4
2. 데이터의 구조 .....	5
2.1. 데이터의 분류 .....	5
2.1.1. 주제별 분류 .....	5
2.1.2. 행정단위별 분류 .....	5
2.1.3. 데이터의 원천에 따른 분류 .....	5
2.2 기본적인 시계열분석의 범위 .....	6
2.2.1. 혼인의 특이사항 .....	6
2.2.2. 이혼의 특이사항 .....	6
2.3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의 구분 .....	7
2.3.1. 성별 .....	7
2.3.2. 연령 .....	7
2.3.3. 학력 .....	7
2.3.4. 직업 .....	8
- 혼인, 출산의 경우 .....	8
- 이혼의 경우 .....	9
2.4. 광역시도 구분의 변화 .....	11
2.5. 시군구 분류 기준 .....	12
3. 데이터 구성 설명 .....	13
3.1. 인구동태자료 (V) .....	13
3.1.1. 혼인 (M) .....	13
(1) 전국자료 (MNV) .....	14
(2) 시도 자료 (MSV) .....	21

(3) 시군구 자료 (MGV) .....	28
3.1.2. 이혼 (D) .....	34
(1) 전국자료 (DNV) .....	35
(2) 시도 자료 (DSV) .....	41
(3) 시군구 자료 (DGV) .....	47
3.1.3. 출생 (B) .....	54
(1) 전국자료 (BNV) .....	54
(2) 시도 자료 (BSV) .....	58
(3) 시군구 자료 (BGV) .....	63
3.1.4. 기타(O) .....	67
(1) 전국자료 (ONV) .....	67
(2) 시도 자료 (OSV) .....	73
<b>3.2. 모수자료 (P) .....</b>	<b>76</b>
(1) 전국자료 .....	76
(2) 광역시도 자료 .....	79
(3) 시군구 자료 .....	82
<b>3.3. 인구비율자료 (R) .....</b>	<b>85</b>
3.3.1. 혼인 (M) .....	85
(1) 전국자료 (MNR) .....	85
(2) 시도 자료 (MSR) .....	90
(3) 시군구 자료 (MGR) .....	96
3.3.2. 이혼 (D) .....	101
(1) 전국자료 (DNR) .....	101
(2) 시도 자료 (DSR) .....	105
(3) 시군구 자료 (DGR) .....	109
3.3.2. 출생 (B) .....	113
(1) 전국자료 (BNR) .....	113
(2) 시도 자료 (BSR) .....	116
(3) 시군구 자료 (BGR) .....	120

#### 4. 출생, 혼인, 이혼 등

<b>인구변동 요인들의 변화요인 분석 .....</b>	<b>123</b>
--------------------------------	------------

4.1. 합계출산율 변화의 분해 방법 .....	123
4.2. 전체 여성 합계출산율 분해요인의 변화 .....	125
4.3. 전체 여성 합계출산율 분해 결과 .....	129

4.4.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 변화 분해 .....	131
4.5.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 요인 .....	140
4.6.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결정요인 .....	147
4.7.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인 함의 .....	151

## 5. 인구 및 가구구성의 변화와 정책대상의 파악:

데이터 활용 가능성 .....	156
------------------	-----

### 5.1. 인구 및 가구구성의 변화 .....

5.1.1.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가족규모, 가족구조, 가족형성시기 .....	157
5.1.2. 가임인구의 규모와 사회경제적 특성 .....	157
5.1.3. 베이비 붐 세대 및 후속 세대의 규모 및 구조적 특징 .....	157

### 5.2. 정책적인 수요대상의 파악 .....

5.3.1. 저출산 대책 수요대상의 파악 .....	158
5.3.2. 보건 및 사회정책 수요 대상의 파악 .....	158

참고문헌 .....	159
------------	-----

부표: 시군구 지역명과 지역코드 .....	161
-------------------------	-----

## 도 표 목 차

<도표 4-1>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	124
<도표 4-2> 15-49세 및 20-49세 여성 유배우 비율 지표 .....	126
<도표 4-3> 연령별 유배우 출생률 .....	126
<도표 4-4> 1991년 혼인패턴의 유지되는 경우의 유배우 합계출산율 .....	127
<도표 4-5>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	130
<도표 4-6>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	131
<도표 4-7> 대학 이상 학력 여성 유배우 비율 .....	132
<도표 4-8> 고졸 이하 학력 여성 유배우 비율 .....	132
<도표 4-9> 대학 이상 학력 여성 15-49세 및 20-49세 유배우 비율 지표 .....	133
<도표 4-10> 고졸 이하 학력 여성 15-49세 및 20-49세 유배우 비율 지표 .....	133
<도표 4-11> 대학 이상 학력 여성 연령별 유배우 출생률 .....	135
<도표 4-12> 고졸 이하 학력 여성 연령별 유배우 출생률 .....	135
<도표 4-13> 대학 이상 학력 여성 1991년 혼인패턴의 유지되는 경우의 유배우 합계출산율 .....	136
<도표 4-14> 고졸 이하 학력 여성 1991년 혼인패턴의 유지되는 경우의 유배우 합계출산율 .....	136
<도표 4-15> 대학 이상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	137
<도표 4-16> 고졸 이하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	138
<도표 4-17> 대학 이상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	139
<도표 4-18> 고졸 이하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	139
<도표 4-19> 연령별 미혼 독신 여성 비율 .....	140
<도표 4-20> 연령별 사별 독신 여성 비율 .....	141
<도표 4-21> 연령별 이혼 독신 여성 비율 .....	142
<도표 4-22> 실제 무배우 여성 비율과 1991년 미혼여성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무배우 여성 비율 .....	143
<도표 4-23> 실제 무배우 여성 비율과 1991년 사별 여성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무배우 여성 비율 .....	143
<도표 4-24> 실제 무배우 여성 비율과 1991년 이혼 여성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무배우 여성 비율 .....	144
<도표 4-25> 연령별 무배우 여성 혼인율 .....	144
<도표 4-26> 연령별 미혼여성 혼인율 .....	145
<도표 4-27> 연령별 고학력 무배우 여성 혼인율 .....	145

<도표 4-28> 연령별 저학력 무배우 여성 혼인율 .....	146
<도표 4-29> 1992년-2005년 시군구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지표와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	148
<도표 4-30> 1992년-2005년 시군구 20-2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	149
<도표 4-31> 1992년-2005년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	149
<도표 4-32> 1992년-2005년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	150
<도표 4-33> 1992년-2005년 시군구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지표와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고학력) .....	151
<도표 4-34> 1992년-2005년 시군구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지표와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저학력) .....	152
<도표 4-35> 1992년-2005년 시군구 20-2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고학력) .....	152
<도표 4-36> 1992년-2005년 시군구 20-2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저학력) .....	153
<도표 4-37> 1992년-2005년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고학력) .....	153
<도표 4-38> 1992년-2005년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저학력) .....	154
<도표 4-39> 1992년-2005년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고학력) .....	154
<도표 4-40> 1992년-2005년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저학력) .....	155

## 표 목 차

<표 4-1>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 분해 .....	128
<표 4-2> 1991-2005년 유배우 출생률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 분해 (학력별) .....	137
<표 4-3> 유배우 비율 지표와 유배우 출산율 지표의 관계: 상관계수 및 회귀분석 결과 .....	148

# 1. 서론

## 1.1. 연구용역 개요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장 주된 작업은 인구센서스 및 인구동태조사의 원시자료와 기타 통계자료를 가공하고 결합하여, 출생, 혼인, 이혼 등 인구변동의 요인들을 보다 상세하고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엑셀파일의 형태로 별도로 제공되었고, 주요 통계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만들어져서 함께 제출되었다. 보고서의 제2장과 제3장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매뉴얼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작업은 이 자료의 일부를 실제로 분석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의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각각 합계출산율 변화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배우 여성 비율의 시간적, 지역적 변이가 유배우 출산율의 시간적, 지역적 변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유배우 인구의 출산장려정책이 유배우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보고서의 제4장에 제시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변수들이 제공해주는 주된 정보와 이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 1.2. 연구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아래의 “국내외 연구동향”에 제시했듯이 저출산·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변화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변화의 속도가 특히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저출산의 요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기도 했다(보사연 2006; 관계부처합동 2010).

저출산·고령화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구현상이며, 그것이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변화의 원인과 이것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외의 연구들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

은 출산, 양육, 교육의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를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민희철 외 2007; 신윤정·이지혜 200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한 반면 아이를 가진 기혼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이 여전하여 출산의 기회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다(조윤영 2006; 최경수 2008). 최근 매스 미디어를 통해 소개된 금융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과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결혼시기를 늦추어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국제적인 비교와 시간사용에 관한 분석에 기초한 연구들은 남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지 못하는 행태가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Feyrer et al. 2008; 야마구치 2010).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가 보여주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들은 모두 타당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저출산의 여러 가지 잠재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둘째, 저출산의 여러 가지 요인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셋째, 기존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혼인 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었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요인들, 예컨대 혼인, 이혼, 재혼 등과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수요측면 요인들(근로조건, 근로관행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 넷째, 출산율의 저하가 가져오는 효과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부양비의 변화 등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뿐, 개인 혹은 가족 차원에서 기대되는 잠재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는 것이 많이 없다. 예컨대 출산율의 저하가 태아에 대한 부모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는지, 출생성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출산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의 주된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제도적인 여건이 상이한 여러 국가의 출산력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 내에서의 출산율의 시간적, 지역적 변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는 보건사회연구원의<출산력조사>와 같은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의 패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최경수 2008). 이러한 연구는 생애에 걸친 혼인 내 출산과 관련된 매우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주지만 전체적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요인들, 예컨대 혼인, 이혼, 재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는 출산의 잠재적인 기회비용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들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추계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규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연구는 출산의 비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의 증가가 얼마나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언론매체에서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시사해 주는 바가 크기는 하지만 한 개인 혹은 가족의 행위를 결정하는 진정한 동인이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통해 드러난 것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인식 혹은 말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의 하나는 출산의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요

인 가운데 하나 혹은 일부만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했듯이 출산의 여러 요인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혼인의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결혼 후에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찍이 Gary Becker와 같은 학자가 지적했듯이 이혼을 결정하는 요인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Becker 1993). 따라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출산의 요인을 하나의 분석의 틀 속에서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구변동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기존연구들의 미비점을 최대한 극복하고 출산을 변화요인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분석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구변동요인 변화의 패턴과 원인에 관한 분석 결과가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를 모색할 것이다.

데이터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출산, 혼인, 이혼 등 인구변동의 요인이 되는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개인 및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인구동태조사 자료와 전체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인구센서스를 두 자료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을 매개로 하여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 및 혼인상태에 있는 인구집단의 출산율, 혼인율, 이혼율 등을 1991년 이후의 각 연도에 대해 계산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구축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통계변수는 아래의 연구내용 및 방법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데이터는 마이크로 자료는 아니지만 마이크로 자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그룹 데이터는 동일한 정보를 지닌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이 동일한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aton and Pischke 2009).

### 1.3. 국내외 연구동향

근래의 해외 문헌들은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매우 크게 하락했으며 출산율의 저하의 추세가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인구의 44%가 대체수준(the replacement level)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저출산의 기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Frejka and Ross 2001; Kohler et al. 2002; Bonggaarts 2002). 많은 학자들의 왜 선진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그 정도와 패턴에 차이가 있는가(Feyrer et al. 2008; Takayama and Werding 2011), 출산율의 저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Morgan 2003), 출산율의 저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Mason et al. 2010)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왔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 독일 등과 함께 출산율 제고에 목표를 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보사연 2006; 관계부처합동 2010).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민희철 외 2007; 신윤정·이지혜 2009).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한 반면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에게 대

한 노동시장의 차별이 여전하여 출산의 기회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조운영 2006; 최경수 2008).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화제가 되었던 금융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결혼시기를 늦추어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국제적인 비교분석 및 시간사용에 관한 분석에 기초한 연구들은 남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지 못하는 행태가 저출산의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Feyrer et al. 2008; 야마구치 2010).

출산 이외에 이 연구에서 다룬 인구현상과 관련된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혼인율의 저하와 이혼율의 증가에 의해 요약되는 근래의 가족해체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Bumpass 1990; Edlund 2006). 출산율이 저하하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국가의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화된 문제와 추가적인 출산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출생성비가 감소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결과들도 제시된 바 있다(Park and Cho 1995; Tuljapurkar et al. 1995; Chung and Das Gupta 2007; Edlund and Lee 2010). 의학계 및 보건경제학계의 연구들은 저체중 출산에 의해 나타나는 태아기의 영양결핍 및 기타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노출이 이후의 인적자본축적과 일생을 통한 건강에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Barker 1994; Black et al. 2007; Almond and Currie 2010).

#### 1.4. 보고서의 구성

이 과제의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구주택센서스 원자료, 추계인구자료, 출생·혼인·이혼에 관한 인구동태조사 원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결혼행태의 변화, 출산행태의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 인구변동의 제반 요인에 관한 가공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커버하는 기간은 대부분의 세부적인 변수의 경우 인구동태조사 원시자료가 가용한 1991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의 20개 연도가 될 것이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통계자료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통계자료에 담긴 변수들의 내용, 정의 및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작업은 구축한 자료의 일부를 실제로 분석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의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각각 합계출산율 변화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배우 여성 비율의 시간적, 지역적 변이가 유배우 출산율의 시간적, 지역적 변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유배우 인구의 출산장려정책이 유배우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는 보고서의 제4장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혼인, 출산, 이혼, 가구구성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약 2만 개의 변수를 제공하는 방대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5장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가 제공해주는 주된 변수들과 이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 2. 데이터의 구조

### 2.1. 데이터의 분류

통계데이터는 주제별로 4가지, 행정단위별로 3가지, 데이터의 출처별로 3가지 등 모두 36개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 2.1.1. 주제별 분류

- (1) 혼인 (M)
- (2) 이혼 (D)
- (3) 출생 (B)
- (4) 기타 (O)

#### 2.1.2. 행정단위별 분류

- (1) 전국자료 (N)
- (2) 광역시도별 자료 (S)
- (3) 시군구별 자료 (G)

#### 2.1.3. 데이터의 출처에 따른 분류

- (1) 인구동태자료 (V)
  - 특정한 인구동태행위를 한 인구의 수 (분자)
  - 주된 데이터 원천은 인구동태조사 (원시자료 및 집계자료)  
예) 25-29세 서울거주 대졸 여성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수
- (2) 인구모수자료 (P)
  - 특정한 인구동태행위를 할 수 있는 인구의 수 (분모)
  - 주된 데이터 원천은 추계인구, 센서스, 주민등록 자료 (원시자료 및 집계자료)  
예) 25-29세 서울거주 대졸 여성 수  
예) 25-29세 서울거주 대졸 유배우 여성 수
- (3) 인구동태비율자료 (R)
  - 인구동태자료(1)와 인구모수자료(2) 혹은 상이한 인구모수자료를 이용하여 비율을 계산.  
예) 25-29세 서울거주 대졸 여성 출산율  
예) 25-29세 서울거주 대졸 여성 유배우 비율  
예) 25-29세 서울거주 대졸 여성 유배우 출산율

## 2.2 기본적인 시계열분석의 범위

1991~2010년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2010년도 인구동태 원시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변수의 경우 1991년~2009년을, 2010년 센서스 원시자료가 필요한 변수의 경우 1991년~2005년 기간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였다. 자료의 세목 분류가 연도별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최대한 1991~2010의 구간에서 연결하였으나, 세목 분류의 연도별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관된 세목분류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조사하였다. 기본 시계열 분석 범위에서 벗어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2.2.1. 혼인

#### (1) 사별 후 재혼건수, 이혼 후 재혼건수의 시도 및 시군구별 자료 (1993~)

1991년과 1992년 에는 초혼인지 재혼인지 여부만 분류되어 있다가, 1993년부터는 재혼이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으로 나뉘어져서 조사되었다. 1993년 이후 자료에서도 실제 혼인 연도를 1991년과 1992년이라고 보고한 응답자들이 있다. 전국자료의 경우 이들 가운데 사별 후 재혼자와 이혼 후 재혼자의 비율이 1991년과 1992년 재혼자 전체에 대한 비율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1991년과 1992년의 재혼건수를 1993년 이후 사별 후 재혼 건수와 이혼 후 재혼 건수의 비율로서 나누어주었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 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1년과 1992년 자료를 제외하고, 1993년 이후 인구동태 자료에서 실제 혼인연도 역시 1993년 이후인 경우만 분석하였다.

### 2.2.2. 이혼

#### (1)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건수 (2000~)

인구동태자료의 ‘이혼’ 편에서는 2000년 이후에 대해서만 남편과 아내 각각의 직업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 (2) 20세 미만 자녀수별 이혼건수 (1993~)

인구동태자료의 ‘이혼’ 편에서는 이혼한 부부의 당시 20세 미만 자녀수를 1993년 이후에서만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 (3) 이혼 사유별 이혼건수 (1991~, 2000~)

인구동태자료에서 제공하는 이혼 사유의 세목 분류가 1991~1999년간과 2000~2010년간에 차이가 있다. 2000년 이후의 세목분류가 더 자세하므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1991~1999년 분류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1991~2010의 시계열자료를 하나 만들고, 다음으로 2000년 이후의

세목분류 그대로 분석한 시계열자료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 2.3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의 구분

### 2.3.1. 성별

(1) 남성 (m)

(2) 여성 (f)

- 출생의 경우: 부(m), 모(f)
- 혼인과 이혼의 경우: 부(m), 처(f)

### 2.3.2. 연령

15세부터 전 연령을 5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하였으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명은 다음과 같다: 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 2.3.3. 학력

인구동태자료의 학력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학, 중퇴, 졸업의 구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구동태자료 조사개요에 따르면 출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 작성 시 “학력은 정규학교를 다녔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졸업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동태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을 보면 “신고인의 왜곡신고와 혼인, 이혼 당시 교육정도를 기재하여야 하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정확성 결여”되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분류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각급 학교 재학자와 중퇴자의 학력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이다. 인구동태자료의 기초가 되는 각 인구동태 신고서의 작성원칙에 따르면 예컨대 대학교 재학생이나 중퇴자는 고등학교 학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데이터를 보면 대학 재학생이나 중퇴자의 학력이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간접적인 증거의 하나는 19세 이하의 혼인 혹은 출산 여성의 상당수가 학력을 “대학”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입학이 막 시작되는 17세부터 대학학력 출산여성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8세와 19세에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은 신고자가 상당수 발견된다. 2년제 초급대학의 경우에도 19세 이전에 졸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대학 재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인구동태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학력분류의 원칙이 확실하게 공지되거나 강제되지 않

는 현실과 데이터를 통해 들어난 증거를 감안할 때 대학 재학생이나 중퇴자가 자신의 학력을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이라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력 구분에 있어서 재학, 중퇴, 졸업을 구분하지 않았다. 예컨대 대학학력은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을 모두 포함한다.

- 전국, 시도의 경우 교육수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1) 고등학교 교육 미만 (e1)
- (2) 고등학교 교육 (e2)
- (3) 대학교육 이상 (e3)

● 주의사항: 1991, 1992년의 경우 인구동태조사자료 자체에서 중·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 수준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1991년과 1992년의 경우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하에서 1991년, 1992년 자료와 1993년 이후 자료를 연결하기 위하여 1991, 1992년에 중·고등학교 교육수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e2)까지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e1	1	무학
e1	2	초등학교
e3	7	대학이상
e2	8	중·고등학교
	9	미상

<표 2-1> 1991~1992년

e1	1	무학
e1	2	초등학교
e1	3	중학교
e2	4	고등학교
e3	7	대학이상
	9	미상

<표 2-2> 1993~1997년

e1	1	무학
e1	2	초등학교
e1	3	중학교
e2	4	고등학교
e3	5	대학(교)
e3	6	대학원 이상
	0, 9	미상

<표 2-3>년 1998~2010

- 시군구의 경우:

- (1) 고등학교 이하 (e2) - 저학력
- (2) 대학교육 이상 (e3) - 고학력

● 주의사항: 시군구 자료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교육 이상으로만 나누었다. 앞서 전국, 시도 수준의 교육수준 분류에서 e1으로 나누던 것을 e2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1991, 1992년의 학력분류가 1993년 이후와 1대 1로 대응되지 않아 생겼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 2.3.4. 직업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그리고 학생, 가사, 무직 등 7개 직업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o1~o7) 한편 인구동태자료에서 연도에 따라 해당 직업 코드에 변화가 있다. 아래에는 이 보고서에서 이용한 직업분류에 속한 각각의 직업군이 포함하는 인구동태자료 및 인구센서스 자료의 직업코드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1991년과 1992년의 인구동태자료의 직업코드로 01, 02인 사람들은 전문직(o1)로 분류되었고, 1993년~2007년 사이에는 인구동태자료의 01, 02, 03인 사람들이 전문직(o1)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에는 다시 01, 02의 직업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전문직에 포함되었다. 포함되는 직업 코드에 변동이 있는 것은 1991년~2010년 사이 한국직업표준분류상 직업코드 분류가 변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며, 직업의 내용은 일관되게 분류하였다.

- 혼인, 출산 자료의 경우

#### (1) 전문직 (o1):

1991~1992 인구동태: 01, 02  
1993~2007 인구동태: 01, 02, 03  
2008 인구동태: 01, 02  
2005 센서스: 01, 02, 03

#### (2) 사무직 (o2):

1991~1992 인구동태: 03  
1993~2007 인구동태: 04  
2008 인구동태: 03  
2005 센서스: 04

#### (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o3)

1991~1992 인구동태: 04  
1993~2007 인구동태: 05  
2008 인구동태: 04, 05  
2005 센서스: 05, 06

#### (4) 농림어업 (o4)

1991~1992 인구동태: 05  
1993~2007 인구동태: 06  
2008 인구동태: 06  
2005 센서스: 07

#### (5) 기능원 및 장치조작 (o5)

1991~1992 인구동태: 06, 07  
1993~2007 인구동태: 07, 08

2008 인구동태: 07, 08

2005 센서스: 08, 09

- 주의사항: 1991~1992의 직업코드는 단순노무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기능원 및 장치조작 (o5)는 단순노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단순노무 (o6)

1991~1992 인구동태: 해당 없음 (o5에 대한 주의사항 참조)

1993~2007 인구동태: 09

2008 인구동태: 09

2005 센서스: 10

(7) 학생, 가사, 무직 (o7)

1991~1992 인구동태: 11, 14

1993~2007 인구동태: 10, 11, 13, 14

2008 인구동태: 13

2005 센서스: 경제활동상태 미취업

- 이혼 자료

2000년부터 직업분류조사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혼인, 출생>자료의 경우와 같다.

(1) 전문직 (o1):

2000~2007 인구동태: 01, 02, 03

2008 인구동태: 01, 02

2005 센서스: 01, 02, 03

(2) 사무직 (o2):

2000~2007 인구동태: 04

2008 인구동태: 03

2005 센서스: 04

(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o3)

2000~2007 인구동태: 05

2008 인구동태: 04, 05

2005 센서스: 05, 06

(4) 농림어업 (o4)

2000~2007 인구동태: 06

2008 인구동태: 06

2005 센서스: 07

(5) 기능원 및 장치조작 (o5)

2000~2007 인구동태: 07, 08

2008 인구동태: 07, 08

2005 센서스: 08, 09

(6) 단순노무 (o6)

2000~2007 인구동태: 09

2008 인구동태: 09

2005 센서스: 10

(7) 학생, 가사, 무직 (o7)

2000~2007 인구동태: 10, 11, 13, 14

2008 인구동태: 13

2005 센서스: 경제활동상태 미취업

## 2.4. 광역시도 구분의 변화

광역시도 자료를 다룰 때 특기할만한 점은 울산광역시의 등장이다. 1995년 1월 1일에 기존의 경상남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하여 통합 경상남도 울산시가 등장하였고, 경상남도 울산시는 1997년 7월 15일에 당시의 지리적 경계를 유지한 채 울산광역시로 승격하였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1997년부터 각종 통계자료에서 울산광역시를 지리적 범주로 한 통계가 등장하므로 해당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이 연단위로 발표되지 않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자료를 다루어야 한다. 5년 단위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초자료로 한 연단위 통계자료를 생성할 때 사용한 방법은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인데, 이러한 광역시도 구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형보간법을 적용할 경우 자료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료의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상남도 울산시와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울산광역시가 동일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즉

i. 1997~1999 울산광역시 인구는 경상남도 울산시<sub>1995</sub>와 울산광역시<sub>2000</sub>을

ii. 1996년 경상남도 인구는 경상남도 전체<sub>1995</sub>와 '경상남도<sub>2000</sub> + 울산광역시<sub>2000</sub>'을

iii. 1997~1999년 경상남도 인구는 '경상남도 전체<sub>1995</sub> - 경상남도 울산시<sub>1995</sub>'와 경상남도<sub>2000</sub>을 직선의 양 끝점으로 하여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인구동태자료를 기초로 한 연 단위 통계자료에서는 울산광역시에도 1991년 값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1997년 이후 울산광역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실제혼인연도는 1991년 등으로 보고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동태자료에는 1991년~1996년에도 울산광역

시 값이 소수 나타날 수 있지만 인구주택 총조사를 이용한 인구모수자료는 1997년부터 존재하므로, 인구비율자료는 1997년부터 계산된 값이 보고되었다.

## 2.5. 시군구 분류 기준

시군구별 자료에서 일관된 시군구 코드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은 1997년 이후에 통일된 시군구코드이다. 통일 시군구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3 1 0 1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  
a b c

a: 시/도 코드.

b: 시/군 코드. 01~29는 시, 30~59는 군을 의미함. 60~99는 임의로 부여한 코드. 60~79는 시, 80~99는 군을 의미.

c: 구 코드. 0은 해당 시 전체를 나타내고, 그 시에 속한 구들은 1, 2, ... 순으로 부여.

다만 이전에 사라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임의로 새로운 행정구역 코드를 부여하였다. 행정구역 코드를 부여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시군구에 통일된 시군구코드가 부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코드를 사용하였다. 행정구역의 통합·변경 등으로 지리적 경계가 변화하였어도 같은 행정구역명을 가졌다면 같은 시군구 코드를 부여하였다. 즉 시군구코드의 부여 기준은 행정구역명이다.

② 1997년 이전에 사라져 통일 시군구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시군구이지만, 해당 시군구가 동일한 지리적 경계를 유지한 채 행정구역명을 변화시켰을 경우 같은 시군구코드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경기도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공통적으로 23310을 부여받는다.

③ ①과 ②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 시군구코드를 임의로 부여하였다. 단 해당 행정구역이 '시'이거나 광역시의 '구'일 경우 시/군코드(b)를 60~79 사이로 부여하였고, 해당 행정구역이 '군'일 경우 80~99 사이의 코드를 부여하였다. 광역시도가 아닌 시의 '구'는 8~9 사이의 구 코드(c)를 부여하였다. 예컨대 경기도 송탄시는 31610, 경기도 남양주군은 31810, 경기도 부천시 중구는 31058을 부여받았다. 부표에 시군구 지역명과 그에 해당하는 지역코드를 수록하였다.

### 3. 데이터 구성 설명

#### 3.1. 인구동태자료 (V)

##### 3.1.1. 혼인 (M)

혼인자료에서 혼인연도는 혼인신고 시 결혼기념일로 보고한 연월일 중 연도를 기준 값으로 사용하였다. 전국 및 시도 자료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변수내용	기본 변수명	자료설명	해당번호
혼인건수:	mar	①, ②, ③	
초혼건수:	omar	④, ⑤	
사별 후 재혼건수:	wmar	⑥, ⑦	} 재혼건수: remar ⑩, ⑪
이혼 후 재혼건수:	dmar	⑧, ⑨	
1월 혼인건수~ 12월 혼인건수	m01mar ~ m12mar	⑫	
혼인연령:	oage, reage	⑬, ⑭, ⑮, ⑯	

시군구 자료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건수 없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시군구 자료는 교육수준의 분류도 전국 및 시도 자료와 달리, 고등학교 교육 이하와 대학 교육 이상으로 나누었다.

변수내용	변수명	자료설명	해당번호
혼인건수:	mar	①, ②	
초혼건수:	omar	③, ④	
사별 후 재혼건수:	wmar	⑤, ⑥	} 재혼건수: remar ⑨, ⑩
이혼 후 재혼건수:	dmar	⑦, ⑧	
1월 혼인건수~ 12월 혼인건수	m01mar ~ m12mar	⑫	
혼인연령:	oage, reage	⑬, ⑭, ⑮, ⑯	

(1) 전국자료 (MNV)

①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자료	MNV_mar_f.xls MNV_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1. 혼인건수\1. 성별, 연령별 혼인\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혼인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자료	MNV_mar_e1_f.xls MNV_mar_e2_f.xls MNV_mar_e3_f.xls MNV_mar_e1_m.xls MNV_mar_e2_m.xls MNV_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1. 혼인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③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건수

자료	MNV_mar_o1_f.xls MNV_mar_o2_f.xls MNV_mar_o3_f.xls MNV_mar_o4_f.xls MNV_mar_o5_f.xls
----	--------------------------------------------------------------------------------------------------

	MNV_mar_o6_f.xls MNV_mar_o7_f.xls MNV_mar_o1_m.xls MNV_mar_o2_m.xls MNV_mar_o3_m.xls MNV_mar_o4_m.xls MNV_mar_o5_m.xls MNV_mar_o6_m.xls MNV_mar_o7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1. 혼인건수\3.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와 아내의 해당 직업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를 추출하였다.

#### ④ 전국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

자료	MNV_omar_f.xls MNV_o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2. 초혼건수\1.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초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초혼건수를 추출하였다.

#### ⑤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

자료	MNV_omar_e1_f.xls MNV_omar_e2_f.xls MNV_omar_e3_f.xls MNV_omar_e1_m.xls
----	----------------------------------------------------------------------------------

	MNV_omar_e2_m.xls MNV_o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2. 초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초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초혼건수를 추출하였다.

⑥ 전국 성별 연령별 재혼건수

자료	MNV_remar_f.xls MNV_re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3. 재혼건수\1. 성별, 연령별 재혼건수\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재혼건수를 추출하였다. 1991, 1992년의 경우에는 그대로 '재혼'을 사용하였고, 1993년 이후부터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이 나뉘어 조사되는 바, 1993년부터는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 값을 합쳐서 사용하였다.

⑦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재혼건수

자료	MNV_remar_e1_f.xls MNV_remar_e2_f.xls MNV_remar_e3_f.xls MNV_remar_e1_m.xls MNV_remar_e2_m.xls MNV_re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3. 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재혼\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재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재혼건수를 추출하였다. 1991, 1992년의 경우에는 그대로 '재혼'을 사용하였고, 1993년 이후부터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이 나뉘어 조사되는 바, 1993년부터는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 값을 합쳐서 사용하였다.

⑧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 후 재혼건수

자료	MNV_wmar_f.xls MNV_w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4. 사별후재혼건수\1. 성별, 연령별 사별후재혼건수\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사별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사별 후 재혼건수를 추출하였다.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구분한 자료는 1993년부터 존재하고, 1991년과 1992년의 경우에는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재혼'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1993년 이후의 혼인신고에서, 실제 혼인을 1991년 또는 1992년으로 표시하면서 사별 후 재혼 또는 이혼 후 재혼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991년 또는 1992년의 사별 후 재혼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어떤 편향(bias) 없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 사례들의 총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1991년과 1992년에서 전체 재혼에 대한 사별 후 재혼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비율을 1991년 및 1992년에 종류 구분 없이 '재혼'으로만 보고된 경우들에 적용하여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 수를 구하였다. 참고로 전국자료는 이렇게 하여 1991년부터 값을 얻었으나, 시도 및 시군구 자료는 각 단위에서 '재혼'의 크기 자체가 충분히 크지 않고 편향이 없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1993년부터 자료를 생성하였다.

⑨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 후 재혼건수

자료	MNV_wmar_e1_f.xls MNV_wmar_e2_f.xls MNV_wmar_e3_f.xls MNV_wmar_e1_m.xls MNV_wmar_e2_m.xls MNV_wmar_e3_m.xls
----	----------------------------------------------------------------------------------------------------------------------------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4. 사별후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후 재혼\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사별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사별 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이 변수는 1991년과 1992년 인구동태자료는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재혼'으로 보고하고 있다. 앞의 '㉔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 후 재혼건수'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1991년과 1992년은 전체 재혼에 대한 사별 후 재혼의 비율을 계산한 후, 1991년 및 1992년에 종류 구분 없이 '재혼'으로만 보고된 경우들을 교육수준 별로 나누어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값을 구하였다. 참고로 전국자료는 이렇게 하여 1991년부터 값을 얻었으나, 시도 및 시군구 자료는 1993년부터 값을 구하였다.

#### ㉔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 후 재혼건수

자료	MNV_dmar_f.xls MNV_d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5. 이혼후재혼건수\1. 성별, 연령별 이혼후재혼건수\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 후 재혼건수를 추출하였다. 본 자료는 1993년부터 존재하고, 1991년과 1992년의 경우에는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이 구분되지 않고, 전체 '재혼'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국자료는 위의 '㉔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 후 재혼건수'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1991년부터 값을 얻었다. 참고로 시도 및 시군구 자료는 1993년부터 값을 구하였다.

#### ㉕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 후 재혼건수

자료	MNV_dmar_e1_f.xls MNV_dmar_e2_f.xls MNV_dmar_e3_f.xls MNV_dmar_e1_m.xls
----	----------------------------------------------------------------------------------

	MNV_dmar_e2_m.xls MNV_d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5. 이혼후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후 재혼\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이혼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이혼 후 재혼건수를 추출하였다. 본 자료는 1993년부터 존재하고, 1991년과 1992년의 경우에는 전체 '재혼'으로 보고되고 있다. 앞의 '㉔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 후 재혼건수'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1991년과 1992년은 전체 재혼에 대한 사별 후 재혼의 비율을 계산하고, 1991년 및 1992년에 종류 구분 없이 '재혼'으로만 보고된 경우들을 교육수준 별로 나누어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값을 구하였다. 참고로 전국자료는 이렇게 하여 1991년부터 값을 얻었으나, 시도 및 시군구 자료는 1993년부터 값을 구하였다.

㉔ 전국 성별 연령별 월별 혼인건수

자료	MNV_m01mar_f.xls	MNV_m01mar_m.xls
	MNV_m02mar_f.xls	MNV_m02mar_m.xls
	MNV_m03mar_f.xls	MNV_m03mar_m.xls
	MNV_m04mar_f.xls	MNV_m04mar_m.xls
	MNV_m05mar_f.xls	MNV_m05mar_m.xls
	MNV_m06mar_f.xls	MNV_m06mar_m.xls
	MNV_m07mar_f.xls	MNV_m07mar_m.xls
	MNV_m08mar_f.xls	MNV_m08mar_m.xls
	MNV_m09mar_f.xls	MNV_m09mar_m.xls
	MNV_m10mar_f.xls	MNV_m10mar_m.xls
	MNV_m11mar_f.xls	MNV_m11mar_m.xls
	MNV_m12mar_f.xls	MNV_m12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6. 월별 혼인건수\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월별(m01~m12)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결혼기념일로 보고한 연월일에서 월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남편의 해

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와 아내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⑬ 전국 성별 초혼연령

자료	MNV_oage_f.xls MNV_oage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1. 성별, 혼인유형별 혼인연령\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초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초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초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혼인 시 연령을 평균하여 초혼연령을 구하였다.

⑭ 전국 성별 교육수준별 초혼연령

자료	MNV_oage_e1f.xls MNV_oage_e2f.xls MNV_oage_e3f.xls MNV_oage_e1m.xls MNV_oage_e2m.xls MNV_oage_e3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2. 성별 혼인유형별,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초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초혼연령을 계산하였다. 각 교육수준에서 초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혼인 시 연령을 평균하여 초혼연령을 구하였다.

⑮ 전국 성별 재혼연령

자료	MNV_reage_f.xls MNV_reage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1. 성별, 혼인유형별 혼인연령\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재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재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이때 1993년 이후의 재혼은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재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연령을 평균하여 재혼연령을 구하였다.

⑩ 전국 성별 교육수준별 재혼연령

자료	MNV_reage_e1f.xls MNV_reage_e2f.xls MNV_reage_e3f.xls MNV_reage_e1m.xls MNV_reage_e2m.xls MNV_reage_e3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2. 성별 혼인유형별,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재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재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이때 1993년 이후의 재혼은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각 교육수준에서 재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연령을 평균하여 재혼연령을 구하였다.

(2) 시도 자료 (MSV)

① 시도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자료	MSV_mar_f.xls MSV_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1. 혼인건수\1. 성별, 연령별 혼인\2. 시도별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혼인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②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자료	MSV_mar_e1_f.xls MSV_mar_e2_f.xls MSV_mar_e3_f.xls MSV_mar_e1_m.xls MSV_mar_e2_m.xls MSV_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1. 혼인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2. 시도별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③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건수

자료	MSV_mar_o1_f.xls MSV_mar_o2_f.xls MSV_mar_o3_f.xls MSV_mar_o4_f.xls MSV_mar_o5_f.xls MSV_mar_o6_f.xls MSV_mar_o7_f.xls MSV_mar_o1_m.xls MSV_mar_o2_m.xls MSV_mar_o3_m.xls MSV_mar_o4_m.xls MSV_mar_o5_m.xls MSV_mar_o6_m.xls MSV_mar_o7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1. 혼인건수\3.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 2. 시도별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와 아내의 해당 직업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④ 시도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

자료	MSV_omar_f.xls MSV_o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2. 초혼건수\1.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

	2. 시도별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초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초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⑤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

자료	MSV_omar_e1_f.xls MSV_omar_e2_f.xls MSV_omar_e3_f.xls MSV_omar_e1_m.xls MSV_omar_e2_m.xls MSV_o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2. 초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 2. 시도별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  
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초혼건  
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초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⑥ 시도 성별 연령별 재혼건수

자료	MSV_remar_f.xls MSV_re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3. 재혼건수\1. 성별, 연령별 재혼건수\ 2. 시도별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1991, 1992년의 경우에는 그대로 '재혼'을 사용하였  
고, 1993년 이후부터는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 값을 합쳐서 사용하였다.

⑦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재혼건수

자료	MSV_remar_e1_f.xls MSV_remar_e2_f.xls MSV_remar_e3_f.xls MSV_remar_e1_m.xls MSV_remar_e2_m.xls MSV_re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3. 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재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 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재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1991, 1992년의 경우에는 그대로 '재혼'을 사용하였고, 1993년부터는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 값을 합쳐서 사용하였다.

⑧ 시도 성별 연령별 사별 후 재혼건수

자료	MSV_wmar_f.xls MSV_w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4. 사별후재혼건수\1. 성별, 연령별 사별후재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 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사별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사별 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구분을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본 자료의 기간도 1993~2010이 되었다.

⑨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 후 재혼건수

자료	MSV_wmar_e1_f.xls MSV_wmar_e2_f.xls MSV_wmar_e3_f.xls
----	-------------------------------------------------------------

	MSV_wmar_e1_m.xls MSV_wmar_e2_m.xls MSV_w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4. 사별후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후 재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사별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사별 후 재혼 건수를 계산하였다.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구분을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변수도 1993~2010년에 대해 계산되었다.

㉔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 후 재혼건수

자료	MSV_dmar_f.xls MSV_d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5. 이혼후재혼건수\1. 성별, 연령별 이혼후재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 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구분을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변수도 1993~2010년에 대해 계산되었다.

㉕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 후 재혼건수

자료	MSV_dmar_e1_f.xls MSV_dmar_e2_f.xls MSV_dmar_e3_f.xls MSV_dmar_e1_m.xls MSV_dmar_e2_m.xls MSV_d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5. 이혼후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후 재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이혼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이혼 후 재혼 건수를 계산하였다.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구분을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변수도 1993~2010년에 대해 계산되었다.

⑫ 시도 성별 연령별 월별 혼인건수

자료	MSV_m01mar_f.xls	MSV_m01mar_m.xls
	MSV_m02mar_f.xls	MSV_m02mar_m.xls
	MSV_m03mar_f.xls	MSV_m03mar_m.xls
	MSV_m04mar_f.xls	MSV_m04mar_m.xls
	MSV_m05mar_f.xls	MSV_m05mar_m.xls
	MSV_m06mar_f.xls	MSV_m06mar_m.xls
	MSV_m07mar_f.xls	MSV_m07mar_m.xls
	MSV_m08mar_f.xls	MSV_m08mar_m.xls
	MSV_m09mar_f.xls	MSV_m09mar_m.xls
	MSV_m10mar_f.xls	MSV_m10mar_m.xls
	MSV_m11mar_f.xls	MSV_m11mar_m.xls
	MSV_m12mar_f.xls	MSV_m12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6. 월별 혼인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월별(m01~m12)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결혼기념일로 보고한 연월일에서 월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남편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와 아내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⑬ 시도 성별 초혼연령

자료	MSV_oage_f.xls MSV_oage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1. 성별, 혼인유형별 혼인연령
분류	성별(m, f)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초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초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초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혼인 시 연령을 평균하여 초혼연령을 구하였다.

⑭ 시도 성별 교육수준별 초혼연령

자료	MSV_oage_e1f.xls MSV_oage_e2f.xls MSV_oage_e3f.xls MSV_oage_e1m.xls MSV_oage_e2m.xls MSV_oage_e3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2. 성별 혼인유형별,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분류	성별(m, f),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초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초혼연령을 계산하였다. 각 교육수준에서 초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혼인 시 연령을 평균하여 초혼연령을 구하였다.

⑮ 시도 성별 재혼연령

자료	MSV_reage_f.xls MSV_reage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1. 성별, 혼인유형별 혼인연령
분류	성별(m, f)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재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재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이때 1993년 이후의 재혼은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재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연령을 평균하여 재혼연령을 구하였다.

⑯ 시도 성별 교육수준별 재혼연령

자료	MSV_reage_e1f.xls MSV_reage_e2f.xls MSV_reage_e3f.xls MSV_reage_e1m.xls MSV_reage_e2m.xls MSV_reage_e3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2. 성별 혼인유형별,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분류	성별(m, f),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도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재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재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이때 1993년 이후의 재혼은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각 교육수준에서 재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연령을 평균하여 재혼연령을 구하였다.

### (3) 시군구 자료 (MGV)

#### ① 시군구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자료	MGV_mar_f.xls MGV_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1. 혼인건수\1. 성별, 연령별 혼인\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혼인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 ②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자료	MGV_mar_e12_f.xls MGV_mar_e3_f.xls MGV_mar_e12_m.xls MGV_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1. 혼인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 ③ 시군구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

자료	MGV_omar_f.xls MGV_o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2. 초혼건수\1.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초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초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④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

자료	MGV_omar_e12_f.xls MGV_omar_e3_f.xls MGV_omar_e12_m.xls MGV_o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2. 초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초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초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⑤ 시군구 성별 연령별 재혼건수

자료	MGV_remar_f.xls MGV_re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3. 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재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1991, 1992년의 경우에는 그대로 '재혼'을 사용하였고, 1993년부터는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 값을 합쳐서 사용하였다.

⑥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재혼건수

자료	MGV_remar_e12_f.xls MGV_remar_e3_f.xls MGV_remar_e12_m.xls MGV_re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3. 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재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재혼건수와 아내

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1991, 1992년의 경우에는 그대로 '재혼'을 사용하였고, 1993년 이후부터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이 나뉘어 조사되기 때문에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 값을 합쳐서 사용하였다.

㉗ 시군구 성별 연령별 사별 후 재혼건수

자료	MGV_wmar_f.xls MGV_w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4. 사별후재혼건수\1. 성별, 연령별 사별후재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사별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사별 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구분을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변수도 1993~2010년에 대해 생성되었다.

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 후 재혼건수

자료	MGV_wmar_e12_f.xls MGV_wmar_e3_f.xls MGV_wmar_e12_m.xls MGV_w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4. 사별후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후 재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사별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사별 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구분을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변수도 1993~2010년에 대해 생성되었다.

㉙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 후 재혼건수

자료	MGV_dmar_f.xls MGV_d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5. 이혼후재혼건수\1. 성별, 연령별 이혼후재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

	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 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구분을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변수도 1993~2010년에 대해 생성되었다.

㉔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 후 재혼건수

자료	MGV_dmar_e12_f.xls MGV_dmar_e3_f.xls MGV_dmar_e12_m.xls MGV_dmar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5. 이혼후재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후 재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이혼 후 재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이혼 후 재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인구동태자료에서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구분을 1993년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변수도 1993~2010년에 대해 생성되었다.

㉕ 시군구 성별 연령별 월별 혼인건수

자료	MGV_m01mar_f.xls	MGV_m01mar_m.xls
	MGV_m02mar_f.xls	MGV_m02mar_m.xls
	MGV_m03mar_f.xls	MGV_m03mar_m.xls
	MGV_m04mar_f.xls	MGV_m04mar_m.xls
	MGV_m05mar_f.xls	MGV_m05mar_m.xls
	MGV_m06mar_f.xls	MGV_m06mar_m.xls
	MGV_m07mar_f.xls	MGV_m07mar_m.xls
	MGV_m08mar_f.xls	MGV_m08mar_m.xls
	MGV_m09mar_f.xls	MGV_m09mar_m.xls
	MGV_m10mar_f.xls	MGV_m10mar_m.xls
	MGV_m11mar_f.xls	MGV_m11mar_m.xls
	MGV_m12mar_f.xls	MGV_m12mar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6. 월별 혼인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월별(m01~m12)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결혼기념일로 보고한 연월일에서 월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남편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와 아내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혼인건수를 계산하였다.

⑫ 시군구 성별 초혼연령

자료	MGV_oage_f.xls MGV_oage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1. 성별, 혼인유형별 혼인연령
분류	성별(m, f)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초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초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초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혼인 시 연령을 평균하여 초혼연령을 구하였다. 또 시군구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국 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값도 포함하고 분석하였다.)

⑬ 시군구 성별 교육수준별 초혼연령

자료	MGV_oage_e2f.xls MGV_oage_e3f.xls MGV_oage_e2m.xls MGV_oage_e3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2. 성별 혼인유형별,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분류	성별(m, f),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초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초혼연령을 계산하였다. 각 교육수준에서 초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혼인 시 연령을 평균하여 초혼연령을 구하였다.

⑭ 시군구 성별 재혼연령

자료	MGV_reage_f.xls MGV_reage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1. 성별, 혼인유형별 혼인연령
분류	성별(m, f)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재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재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이때 1993년 이후의 재혼은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재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연령을 평균하여 재혼연령을 구하였다. 또 시군구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국 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값도 포함하고 분석하였다.)

㉔ 시군구 성별 교육수준별 재혼연령

자료	MGV_reage_e2f.xls MGV_reage_e3f.xls MGV_reage_e2m.xls MGV_reage_e3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1. 혼인\7. 혼인연령\2. 성별 혼인유형별, 교육정도별 혼인연령
분류	성별(m, f),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혼인)

인구동태자료(혼인)에서 시군구별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재혼연령과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재혼연령을 계산하였다. 이때 1993년 이후의 재혼은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각 교육수준에서 재혼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연령을 평균하여 재혼연령을 구하였다. 또 시군구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국 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값도 포함하고 분석하였다.)

### 3.1.2. 이혼 (D)

이혼 자료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자료의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으며, 다만 시군구 자료의 경우 이혼건수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류를 제외하였고, 교육수준도 고등학교 교육 이하와 대학교육 이상으로 나누었다. 이혼연도는 이혼을 신고한 해를 기준 값으로 사용하였다.

변수내용 기본변수명 자료설명 해당번호 -----	
이혼건수: div ①, ②, ③	
20세 미만 자녀수별 이혼건수: c0div~c3div ④	20세미만 자녀수 0명 이혼건수: c0div 20세미만 자녀수 1명 이혼건수: c1div 20세미만 자녀수 2명 이혼건수: c2div 20세미만 자녀수 3명이상 이혼건수: c3div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agdiv, ctdiv ⑤	협의이혼건수: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건수: ctdiv
이혼 사유별 이혼건수: k1div~k6div (2000~2010) ⑥, ⑦	배우자 부정 이혼건수: k1div 정신 육체적 학대 이혼건수: k2div 가족 간 불화 이혼건수: k3div 경제문제 이혼건수: k4div 성격차이 이혼건수: k5div 건강문제 이혼건수: k6div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h01div~h20div ⑧	동거기간 1년 미만 이혼건수: h01div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이혼건수 h05div 동거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이혼건수 h10div 동거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혼건수 h15div 동거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이혼건수 h20div 동거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이혼건수 h25div 동거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이혼건수 h30div 동거기간 30년 이상 이혼건수 h31div

결혼연령별 이혼건수: m20div~m41div ⑨  1월 이혼건수~12월 이혼건수: m01div ~ m12div ⑩	결혼연령 20세 미만 이혼건수: m20div 결혼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이혼건수: m25div 결혼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이혼건수: m30div 결혼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 이혼건수: m35div 결혼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이혼건수: m40div 결혼연령 40세 이상 이혼건수: m41div
------------------------------------------------------------------------------------	--------------------------------------------------------------------------------------------------------------------------------------------------------------------------------------------------

## (1) 전국자료 (DNV)

### ①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	DNV_div_f.xls DNV_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1. 이혼건수\1. 성별, 연령별 이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자료	DNV_div_e1_f.xls DNV_div_e2_f.xls DNV_div_e3_f.xls DNV_div_e1_m.xls DNV_div_e2_m.xls DNV_div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1. 이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

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③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건수

자료	DNV_div_o1_f.xls DNV_div_o2_f.xls DNV_div_o3_f.xls DNV_div_o4_f.xls DNV_div_o5_f.xls DNV_div_o6_f.xls DNV_div_o7_f.xls DNV_div_o1_m.xls DNV_div_o2_m.xls DNV_div_o3_m.xls DNV_div_o4_m.xls DNV_div_o5_m.xls DNV_div_o6_m.xls DNV_div_o7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1. 이혼건수\3.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2000~2010)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2000년부터 이혼당시 부부의 직업을 보고하고 있다. 각각 남편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직업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④ 20세 미만 자녀수별 성별 연령별 이혼 건수

자료	DNV_c0div_f.xls DNV_c1div_f.xls DNV_c2div_f.xls DNV_c3div_f.xls DNV_c0div_m.xls DNV_c1div_m.xls DNV_c2div_m.xls DNV_c3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2. 20세미만 자녀수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자녀수별(c0div~c3div)	
	세분류	20세미만 자녀수 0명 이혼건수: c0div 20세미만 자녀수 1명 이혼건수: c1div 20세미만 자녀수 2명 이혼건수: c2div 20세미만 자녀수 3명이상 이혼건수: c3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20세미만 자녀수는 0명인 경우부터 7명인 경우에 한해 각각 고려하고 8명 이상에 대해서는 한 개의 코드만 주고 있다. 20세 미만 자녀수가 식별되는 경우에 한해 0명, 1명, 2명, 3명 이상으로 재분류하고, 각각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남편의 연령 5세 단위 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⑤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자료	DNV_agdiv_f.xls DNV_agdiv_m.xls DNV_ctdiv_f.xls DNV_ct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3.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종류별(협의 이혼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 ctdiv)	
	세분류	협의이혼건수: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건수: ct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종류가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미상으로 나뉘어 있다. 각 이혼종류가 식별된 경우에 한해, (i) 협의 이혼의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 및 (ii) 재판에 의한 이혼의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⑥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자료	DNV_k1div2000_f.xls
	DNV_k2div2000_f.xls
	DNV_k3div2000_f.xls
	DNV_k4div2000_f.xls
	DNV_k5div2000_f.xls
	DNV_k6div2000_f.xls
	DNV_k1div2000_m.xls
	DNV_k2div2000_m.xls
	DNV_k3div2000_m.xls

	DNV_k4div2000_m.xls DNV_k5div2000_m.xls DNV_k6div2000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건수\1. 이혼사유 6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6div)	
	세분류	배우자 부정 이혼건수: k1div 정신 육체적 학대 이혼건수: k2div 가족 간 불화 이혼건수: k3div 경제문제 이혼건수: k4div 성격차이 이혼건수: k5div 건강문제 이혼건수: k6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2000~2010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사유가 1991년~1999년 사이와 2000년 이후에 그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참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 이혼사유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이혼사유를 6개로 나누고, 각 이혼신고 중 이혼사유가 식별된 경우에 한해,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1991년~1999년의 이혼사유 분류와 2000년 이후의 이혼사유 분류를 연결하여 이혼건수도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㉞에서 서술한다.

이혼사유의 4개 분류 (1991~1999)		이혼사유의 6개 분류 (2000~2010)	
1 부부불화	k1div	1 배우자부정	k1div
2 가족간불화	k2div	2 정신적·육체적학대	k2div
3 건강문제	k3div	3 가족간불화	k3div
4 경제문제	k4div	4 경제문제	k4div
5 기타	-	5 성격차이	k5div
0 미상	-	6 건강문제	k6div
		7 기타	-
		9 미상	-

㉞ (추가분석)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자료	DNV_k1div_f.xls
	DNV_k2div_f.xls
	DNV_k3div_f.xls
	DNV_k4div_f.xls
	DNV_k5div_f.xls

	DNV_k1div_m.xls DNV_k2div_m.xls DNV_k3div_m.xls DNV_k4div_m.xls DNV_k5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건수\2. 이혼사유 5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4div)	
	세분류	부부불화: k1div 가족간불화: k2div 건강문제: k3div 경제문제: k4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1991~2010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사유가 1991년~1999년 사이와 2000년 이후에 그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1991년~1999년의 이혼사유 분류와 2000년 이후의 이혼사유 분류를 연결하여 계산한 이혼건수에 대하여 서술한다. 1991~2010년 사이의 연결 자료를 만들 때는 2000년대의 자료를 1990년대의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즉 "3 가족간 불화", "6 건강문제", "4 경제문제"는 코드번호만 바뀌되 서로 합치거나 나누지 않았다. 반면 "1 배우자부정", "2 정신/육체적학대", "5 성격차이"는 1990년~1999년 사이의 "1 부부불화"로 간주하여 한 범주로 통합하였다(즉 2000년대의 1,2,5 는 모두 1990년대의 1로 재분류).

⑧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자료	DNV_h01div_f.xls	DNV_h01div_m.xls
	DNV_h05div_f.xls	DNV_h05div_m.xls
	DNV_h10div_f.xls	DNV_h10div_m.xls
	DNV_h15div_f.xls	DNV_h15div_m.xls
	DNV_h20div_f.xls	DNV_h20div_m.xls
	DNV_h25div_f.xls	DNV_h25div_m.xls
	DNV_h30div_f.xls	DNV_h30div_m.xls
	DNV_h31div_f.xls	DNV_h31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5.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동거기간별(h01div~h31div)	
	세분류	동거기간 1년 미만 이혼건수: h01div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이혼건수 h05div 동거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이혼건수 h10div 동거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혼건수 h15div

	동거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이혼건수 h20div 동거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이혼건수 h25div 동거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이혼건수 h30div 동거기간 30년 이상 이혼건수 h31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동거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각 동거기간을 위에 제시된 세분류와 같이 8가지 분류로 나누고, 식별된 경우에 한해 각 동거기간 분류에 해당하는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㉑ 결혼연령별 이혼건수

자료	DNV_m20div_f.xls DNV_m25div_f.xls DNV_m30div_f.xls DNV_m35div_f.xls DNV_m40div_f.xls DNV_m41div_f.xls	DNV_m20div_m.xls DNV_m25div_m.xls DNV_m30div_m.xls DNV_m35div_m.xls DNV_m40div_m.xls DNV_m41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6. 결혼연령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단 분석 시작 연령범주는 각 세분류에 따라 다름), 결혼연령별(m20div~m41div)	
	세분류	결혼연령 20세 미만 이혼건수: m20div 결혼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이혼건수: m25div 결혼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이혼건수: m30div 결혼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 이혼건수: m35div 결혼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이혼건수: m40div 결혼연령 40세 이상 이혼건수: m41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의 결혼 당시 연령을 제공하고 있다. 각 결혼연령 범주를 위에 제시된 세분류와 같이 6가지로 나누고, 식별된 경우에 한해 각 결혼연령 분류에 해당하는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단, 주의할 점은 이혼은 결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15세~20세인 경우 이혼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연령범위가 15세부터 74세까지 나타나지만, 결혼연령이 예컨대 30세~35세인 경우, 이혼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연령범위는 30세~35세 범주부터 시작하게 된다.

㉒ 전국 성별 연령별 월별 이혼건수

자료	DNV_m01div_f.xls	DNV_m01div_m.xls
	DNV_m02div_f.xls	DNV_m02div_m.xls
	DNV_m03div_f.xls	DNV_m03div_m.xls

	DNV_m04div_f.xls DNV_m05div_f.xls DNV_m06div_f.xls DNV_m07div_f.xls DNV_m08div_f.xls DNV_m09div_f.xls DNV_m10div_f.xls DNV_m11div_f.xls DNV_m12div_f.xls	DNV_m04div_m.xls DNV_m05div_m.xls DNV_m06div_m.xls DNV_m07div_m.xls DNV_m08div_m.xls DNV_m09div_m.xls DNV_m10div_m.xls DNV_m11div_m.xls DNV_m12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7. 월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월별(m01div~m12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이혼신고의 월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남편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 (2) 시도별 자료 (DSV)

### ① 시도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	DSV_div_f.xls DSV_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1. 이혼건수\1. 성별, 연령별 이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 ② 시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자료	DSV_div_e1_f.xls DSV_div_e2_f.xls DSV_div_e3_f.xls DSV_div_e1_m.xls DSV_div_e2_m.xls DSV_div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1. 이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

	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 ③ 시도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건수

자료	DSV_div_o1_f.xlsx DSV_div_o2_f.xlsx DSV_div_o3_f.xlsx DSV_div_o4_f.xlsx DSV_div_o5_f.xlsx DSV_div_o6_f.xlsx DSV_div_o7_f.xlsx DSV_div_o1_m.xlsx DSV_div_o2_m.xlsx DSV_div_o3_m.xlsx DSV_div_o4_m.xlsx DSV_div_o5_m.xlsx DSV_div_o6_m.xlsx DSV_div_o7_m.xlsx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1. 이혼건수\3.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업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직업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 ④ 시도별 20세 미만 자녀수별 성별 연령별 이혼 건수

자료	DSV_c0div_f.xls DSV_c1div_f.xls DSV_c2div_f.xls DSV_c3div_f.xls DSV_c0div_m.xls
----	---------------------------------------------------------------------------------------------

	DSV_c1div_m.xls DSV_c2div_m.xls DSV_c3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2. 20세미만 자녀수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자녀수별(c0div~c3div)	
	세분류	20세미만 자녀수 0명 이혼건수: c0div 20세미만 자녀수 1명 이혼건수: c1div 20세미만 자녀수 2명 이혼건수: c2div 20세미만 자녀수 3명이상 이혼건수: c3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20세미만 자녀수는 0명인 경우부터 7명인 경우에 한해 각각 고려하고 8명 이상에 대해서는 한 개의 코드만 주고 있다. 20세 미만 자녀수가 식별되는 경우에 한해 0명, 1명, 2명, 3명 이상으로 재분류하고, 각각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⑤ 시도별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자료	DSV_agdiv_f.xls DSV_agdiv_m.xls DSV_ctdiv_f.xls DSV_ct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3.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종류별(협의 이혼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 ctdiv)	
	세분류	협의이혼건수: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건수: ct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종류가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미상으로 나뉘어 있다. 각 이혼종류가 식별된 경우에 한해, (i) 협의 이혼의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 및 (ii) 재판에 의한 이혼의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⑥ 시도별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자료	DSV_k1div2000_f.xls DSV_k2div2000_f.xls DSV_k3div2000_f.xls DSV_k4div2000_f.xls
----	------------------------------------------------------------------------------------------

	DSV_k5div2000_f.xls DSV_k6div2000_f.xls DSV_k1div2000_m.xls DSV_k2div2000_m.xls DSV_k3div2000_m.xls DSV_k4div2000_m.xls DSV_k5div2000_m.xls DSV_k6div2000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건수\1. 이혼사유 6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6div)
	세분류 배우자 부정 이혼건수: k1div 정신 육체적 학대 이혼건수: k2div 가족 간 불화 이혼건수: k3div 경제문제 이혼건수: k4div 성격차이 이혼건수: k5div 건강문제 이혼건수: k6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2000~2010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사유가 1991년~1999년 사이와 2000년 이후에 그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 이혼사유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이혼사유를 6개로 나누고, 각 이혼신고 중 이혼사유가 식별된 경우에 한해,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1991년~1999년의 이혼사유 분류와 2000년 이후의 이혼사유 분류를 연결하여 이혼건수도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⑦에서 서술한다.

이혼사유의 4개 분류 (1991~1999)		이혼사유의 6개 분류 (2000~2010)	
1 부부불화	k1div	1 배우자부정	k1div
2 가족간불화	k2div	2 정신적·육체적학대	k2div
3 건강문제	k3div	3 가족간불화	k3div
4 경제문제	k4div	4 경제문제	k4div
5 기타	-	5 성격차이	k5div
0 미상	-	6 건강문제	k6div
		7 기타	-
		9 미상	-

이혼사유 분류의 비교

⑦ (추가분석) 시도별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자료	DSV_k1div_f.xls
----	-----------------

	DSV_k2div_f.xls DSV_k3div_f.xls DSV_k4div_f.xls DSV_k5div_f.xls DSV_k1div_m.xls DSV_k2div_m.xls DSV_k3div_m.xls DSV_k4div_m.xls DSV_k5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건수\2. 이혼사유 5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4div)
	세분류 부부불화: k1div 가족간불화: k2div 건강문제: k3div 경제문제: k4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1991~2010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사유가 1991년~1999년 사이와 2000년 이후에 그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1991년~1999년의 이혼사유 분류와 2000년 이후의 이혼사유 분류를 연결하여 계산한 이혼건수에 대하여 서술한다. 1991~2010년 사이의 연결 자료를 만들 때는 2000년대의 자료를 1990년대의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즉 "3 가족간 불화", "6 건강문제", "4 경제문제"는 코드번호만 바뀌되 서로 합치거나 나누지 않았다. 반면 "1 배우자부정", "2 정신/육체적 학대", "5 성격차이"는 1990년~1999년 사이의 "1 부부불화"로 간주하여 모두 통합하였다(즉 2000년대의 1,2,5 는 모두 1990년대의 1로 재분류).

㉔ 시도별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자료	DSV_h01div_f.xls	DSV_h01div_m.xls
	DSV_h05div_f.xls	DSV_h05div_m.xls
	DSV_h10div_f.xls	DSV_h10div_m.xls
	DSV_h15div_f.xls	DSV_h15div_m.xls
	DSV_h20div_f.xls	DSV_h20div_m.xls
	DSV_h25div_f.xls	DSV_h25div_m.xls
	DSV_h30div_f.xls	DSV_h30div_m.xls
	DSV_h31div_f.xls	DSV_h31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5.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동거기간별(h01div~h31div)	

	세분류	동거기간 1년 미만 이혼건수: h01div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이혼건수 h05div 동거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이혼건수 h10div 동거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혼건수 h15div 동거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이혼건수 h20div 동거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이혼건수 h25div 동거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이혼건수 h30div 동거기간 30년 이상 이혼건수 h31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동거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각 동거기간을 위에 제시된 세분류와 같이 8가지 분류로 나누고, 식별된 경우에 한해 각 동거기간 분류에 해당하는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⑨ 시도별 결혼연령별 이혼건수

자료	DSV_m20div_f.xls DSV_m25div_f.xls DSV_m30div_f.xls DSV_m35div_f.xls DSV_m40div_f.xls DSV_m41div_f.xls DSV_m20div_m.xls DSV_m25div_m.xls DSV_m30div_m.xls DSV_m35div_m.xls DSV_m40div_m.xls DSV_m41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6. 결혼연령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단 분석 시작 연령범주는 각 세분류에 따라 다름), 결혼연령별(m20div~m41div)	
	세분류	결혼연령 20세 미만 이혼건수: m20div 결혼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이혼건수: m25div 결혼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이혼건수: m30div 결혼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 이혼건수: m35div 결혼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이혼건수: m40div 결혼연령 40세 이상 이혼건수: m41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의 결혼 당시 연령을 제공하고 있다. 각 결혼연령 범주를 위에 제시된 세분류와 같이 6가지로 나누고, 식별된 경우에 한해 각 결혼연령 분류에 해

당하는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단, 주의할 점은 이혼은 결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15세~20세인 경우 이혼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연령범위가 15세부터 74세까지 나타나지만, 결혼연령이 예컨대 30세~35세인 경우, 이혼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연령범위는 30세~35세 범주부터 시작하게 된다.

⑩ 시도별 성별 연령별 월별 이혼건수

자료	DSV_m01div_f.xls	DSV_m01div_m.xls
	DSV_m02div_f.xls	DSV_m02div_m.xls
	DSV_m03div_f.xls	DSV_m03div_m.xls
	DSV_m04div_f.xls	DSV_m04div_m.xls
	DSV_m05div_f.xls	DSV_m05div_m.xls
	DSV_m06div_f.xls	DSV_m06div_m.xls
	DSV_m07div_f.xls	DSV_m07div_m.xls
	DSV_m08div_f.xls	DSV_m08div_m.xls
	DSV_m09div_f.xls	DSV_m09div_m.xls
	DSV_m10div_f.xls	DSV_m10div_m.xls
	DSV_m11div_f.xls	DSV_m11div_m.xls
	DSV_m12div_f.xls	DSV_m12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7. 월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월별(m01div~m12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이혼신고의 월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남편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3) 시군구 자료 (DGV)

①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	DGV_div_f.xls
	DGV_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1. 이혼건수\1. 성별, 연령별 이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각각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②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자료	DGV_div_e12_f.xls DGV_div_e3_f.xls DGV_div_e12_m.xls DGV_div_e3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1. 이혼건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각각 남편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교육수준별 (남편의 경우와 동일)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③ 시군구 20세 미만 자녀수별 성별 연령별 이혼 건수

자료	DGV_c0div_f.xls DGV_c1div_f.xls DGV_c2div_f.xls DGV_c3div_f.xls DGV_c0div_m.xls DGV_c1div_m.xls DGV_c2div_m.xls DGV_c3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2. 20세미만 자녀수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자녀수별(c0div~c3div)
	세분류 20세미만 자녀수 0명 이혼건수: c0div 20세미만 자녀수 1명 이혼건수: c1div 20세미만 자녀수 2명 이혼건수: c2div 20세미만 자녀수 3명이상 이혼건수: c3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20세미만 자녀수는 0명인 경우부터 7명인 경우에 한해 각각 고려하고 8명 이상에 대해서는 한 개의 코드만 주고 있다. 20세 미만 자녀수가 식별되는 경우에 한해 0명, 1명, 2명, 3명 이상으로 재분류하고, 각각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④ 시군구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자료	DGV_agdiv_f.xls DGV_agdiv_m.xls DGV_ctdiv_f.xls DGV_ct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3.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종류별(협의 이혼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 ctdiv)	
	세분류	협의이혼건수: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건수: ct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종류가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미상으로 나뉘어 있다. 각 이혼종류가 식별된 경우에 한해, (i) 협의 이혼의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 및 (ii) 재판에 의한 이혼의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⑤ 시군구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자료	DGV_k1div2000_f.xls DGV_k2div2000_f.xls DGV_k3div2000_f.xls DGV_k4div2000_f.xls DGV_k5div2000_f.xls DGV_k6div2000_f.xls DGV_k1div2000_m.xls DGV_k2div2000_m.xls DGV_k3div2000_m.xls DGV_k4div2000_m.xls DGV_k5div2000_m.xls DGV_k6div2000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건수\1. 이혼사유 6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6div)	
	세분류	배우자 부정 이혼건수: k1div 정신 육체적 학대 이혼건수: k2div 가족 간 불화 이혼건수: k3div 경제문제 이혼건수: k4div 성격차이 이혼건수: k5div 건강문제 이혼건수: k6div

출처 | 인구동태자료(이혼) 2000~2010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사유가 1991년~1999년 사이와 2000년 이후에 그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 이혼사유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이혼사유를 6개로 나누고, 각 이혼신고 중 이혼사유가 식별된 경우에 한해, 시군구별로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1991년~1999년의 이혼사유 분류와 2000년 이후의 이혼사유 분류를 연결하여 이혼건수도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㉗에서 서술한다.

이혼사유의 5개 분류 (1991~1999)		이혼사유의 6개 분류 (2000~2010)	
1 부부불화	k1div	1 배우자부정	k1div
2 가족간불화	k2div	2 정신적·육체적학대	k2div
3 건강문제	k3div	3 가족간불화	k3div
4 경제문제	k4div	4 경제문제	k4div
5 기타	k5div	5 성격차이	k5div
0 미상	-	6 건강문제	k6div
		7 기타	-
		9 미상	-

이혼사유 분류의 비교

㉗ (추가분석) 시군구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자료	DGV_k1div_f.xls DGV_k2div_f.xls DGV_k3div_f.xls DGV_k4div_f.xls DGV_k5div_f.xls DGV_k1div_m.xls DGV_k2div_m.xls DGV_k3div_m.xls DGV_k4div_m.xls DGV_k5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건수\2. 이혼사유 5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4div)
	세분류 부부불화: k1div 가족간불화: k2div 건강문제: k3div

	경제문제: k4div 기타: k5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1991~2010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사유가 1991년~1999년 사이와 2000년 이후에 그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1991년~1999년의 이혼사유 분류와 2000년 이후의 이혼사유 분류를 연결하여 계산한 이혼건수에 대하여 서술한다. 1991~2010년 사이의 연결 자료를 만들 때는 2000년대의 자료를 1990년대의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즉 "3 가족간 불화", "6 건강문제", "4 경제문제"는 코드번호만 바뀌되 서로 합치거나 나누지 않았다. 반면 "1 배우자부정", "2 정신/육체적 학대", "5 성격차이"는 1990년~1999년 사이의 "1 부부불화"로 간주하여 모두 통합하였다(즉 2000년대의 1,2,5 는 모두 1990년대의 1로 재분류).

⑦ 시군구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자료	DGV_h01div_f.xls	DGV_h01div_m.xls
	DGV_h05div_f.xls	DGV_h05div_m.xls
	DGV_h10div_f.xls	DGV_h10div_m.xls
	DGV_h15div_f.xls	DGV_h15div_m.xls
	DGV_h20div_f.xls	DGV_h20div_m.xls
	DGV_h25div_f.xls	DGV_h25div_m.xls
	DGV_h30div_f.xls	DGV_h30div_m.xls
	DGV_h31div_f.xls	DGV_h31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5.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동거기간별(h01div~h31div)	
	세분류	동거기간 1년 미만 이혼건수: h01div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이혼건수 h05div 동거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이혼건수 h10div 동거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혼건수 h15div 동거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이혼건수 h20div 동거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이혼건수 h25div 동거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이혼건수 h30div 동거기간 30년 이상 이혼건수 h31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동거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각 동거기간을 위에 제시된 세분류와 같이 8가지 분류로 나누고, 식별된 경우에 한해 각 동거기간 분류에 해당하는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⑧ 결혼연령별 이혼건수

자료	DGV_m20div_f.xls
	DGV_m25div_f.xls

	DGV_m30div_f.xls DGV_m35div_f.xls DGV_m40div_f.xls DGV_m41div_f.xls DGV_m20div_m.xls DGV_m25div_m.xls DGV_m30div_m.xls DGV_m35div_m.xls DGV_m40div_m.xls DGV_m41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6. 결혼연령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단 분석 시작 연령범주는 각 세분류에 따라 다름), 결혼연령별(m20div~m41div)
	세분류 결혼연령 20세 미만 이혼건수: m20div 결혼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이혼건수: m25div 결혼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이혼건수: m30div 결혼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 이혼건수: m35div 결혼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이혼건수: m40div 결혼연령 40세 이상 이혼건수: m41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의 결혼 당시 연령을 제공하고 있다. 각 결혼연령 범주를 위에 제시된 세분류와 같이 6가지로 나누고, 식별된 경우에 한해 각 결혼연령 분류에 해당하는 남편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단, 주의할 점은 이혼은 결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15세~20세인 경우 이혼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연령범위가 15세부터 74세까지 나타나지만, 결혼연령이 예컨대 30세~35세인 경우, 이혼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연령범위는 30세~35세 범주부터 시작하게 된다.

⑨ 시군구 성별 연령별 월별 이혼건수

자료	DGV_m01div_f.xls	DGV_m01div_m.xls
	DGV_m02div_f.xls	DGV_m02div_m.xls
	DGV_m03div_f.xls	DGV_m03div_m.xls
	DGV_m04div_f.xls	DGV_m04div_m.xls
	DGV_m05div_f.xls	DGV_m05div_m.xls
	DGV_m06div_f.xls	DGV_m06div_m.xls
	DGV_m07div_f.xls	DGV_m07div_m.xls
	DGV_m08div_f.xls	DGV_m08div_m.xls
	DGV_m09div_f.xls	DGV_m09div_m.xls

	DGV_m10div_f.xls DGV_m11div_f.xls DGV_m12div_f.xls	DGV_m10div_m.xls DGV_m11div_m.xls DGV_m12div_m.xls
위치	1. 인구동태자료\2. 이혼\7. 월별 이혼건수\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월별(m01div~m12div)	
출처	인구동태자료(이혼)	

인구동태자료(이혼)에서 이혼신고의 월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남편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와 아내의 해당 월별, 연령 5세 단위별 이혼건수를 계산하였다.

### 3.1.3. 출생 (B)

출생자료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자료의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으며, 다만 시군구 자료의 경우 (i) 어머니의 연령별, 직업별 분류를 제외하였고, (ii) 교육수준도 고등학교 교육 이하와 대학교육 이상으로 나누었다. 출생연도는 실제 출생한 해를 기준 값으로 사용하였다.

변수내용	기본변수명	자료설명	해당번호
출생아 수:	bir		①, ②, ③
혼인 중 출생아 수:	mbir		④, ⑤, ⑥
혼인 외 출생아 수:	sbir		⑦, ⑧, ⑨
결혼연령별 출생아 수: m20div~m41div 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결혼연령 20세 미만 출생아 수: m20bir                      결혼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출생아 수: m25bir                      결혼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출생아 수: m30bir                      결혼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 출생아 수: m35bir                      결혼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출생아 수: m40bir                      결혼연령 40세 이상 출생아 수: m41bir                 </div>	

#### (1) 전국자료 (BNV)

##### ①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	BNV_bir_f_all BNV_bir_f_dau BNV_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1.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 ②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자료	BNV_bir_e1_f_all BNV_bir_e2_f_all BNV_bir_e3_f_all BNV_bir_e1_f_dau BNV_bir_e2_f_dau
----	--------------------------------------------------------------------------------------------------

	BNV_bir_e3_f_dau BNV_bir_e1_f_son BNV_bir_e2_f_son BNV_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1.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③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출생아 수

자료	BNV_bir_o1_f_all	BNV_bir_o1_f_dau	BNV_bir_o1_f_son
	BNV_bir_o2_f_all	BNV_bir_o2_f_dau	BNV_bir_o2_f_son
	BNV_bir_o3_f_all	BNV_bir_o3_f_dau	BNV_bir_o3_f_son
	BNV_bir_o4_f_all	BNV_bir_o4_f_dau	BNV_bir_o4_f_son
	BNV_bir_o5_f_all	BNV_bir_o5_f_dau	BNV_bir_o5_f_son
	BNV_bir_o6_f_all	BNV_bir_o6_f_dau	BNV_bir_o6_f_son
	BNV_bir_o7_f_all	BNV_bir_o7_f_dau	BNV_bir_o7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1. 출생아 수\3. 모 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④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

자료	BNV_mbir_f_all
	BNV_mbir_f_dau
	BNV_m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한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⑤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

자료	BNV_mbir_e1_f_all BNV_mbir_e2_f_all BNV_mbir_e3_f_all BNV_mbir_e1_f_dau BNV_mbir_e2_f_dau BNV_mbir_e3_f_dau BNV_mbir_e1_f_son BNV_mbir_e2_f_son BNV_m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한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⑥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혼인 중 출생아 수

자료	BNV_mbir_o1_f_all BNV_mbir_o2_f_all BNV_mbir_o3_f_all BNV_mbir_o4_f_all BNV_mbir_o5_f_all BNV_mbir_o6_f_all BNV_mbir_o7_f_all	BNV_mbir_o1_f_dau BNV_mbir_o2_f_dau BNV_mbir_o3_f_dau BNV_mbir_o4_f_dau BNV_mbir_o5_f_dau BNV_mbir_o6_f_dau BNV_mbir_o7_f_dau	BNV_mbir_o1_f_son BNV_mbir_o2_f_son BNV_mbir_o3_f_son BNV_mbir_o4_f_son BNV_mbir_o5_f_son BNV_mbir_o6_f_son BNV_mbir_o7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3. 모 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한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⑦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

자료	BNV_sbir_f_all
	BNV_sbir_f_dau
	BNV_s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외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⑧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

자료	BNV_sbir_e1_f_all
	BNV_sbir_e2_f_all
	BNV_sbir_e3_f_all
	BNV_sbir_e1_f_dau
	BNV_sbir_e2_f_dau
	BNV_sbir_e3_f_dau
	BNV_sbir_e1_f_son
	BNV_sbir_e2_f_son
	BNV_s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외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 (전국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⑨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혼인 외 출생아 수

자료	BNV_sbir_o1_f_all	BNV_sbir_o1_f_dau	BNV_sbir_o1_f_son
	BNV_sbir_o2_f_all	BNV_sbir_o2_f_dau	BNV_sbir_o2_f_son
	BNV_sbir_o3_f_all	BNV_sbir_o3_f_dau	BNV_sbir_o3_f_son
	BNV_sbir_o4_f_all	BNV_sbir_o4_f_dau	BNV_sbir_o4_f_son
	BNV_sbir_o5_f_all	BNV_sbir_o5_f_dau	BNV_sbir_o5_f_son
	BNV_sbir_o6_f_all	BNV_sbir_o6_f_dau	BNV_sbir_o6_f_son
	BNV_sbir_o7_f_all	BNV_sbir_o7_f_dau	BNV_sbir_o7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외 출생아 수\3. 모 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01~0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⑩ 전국 어머니 결혼연령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	BNV_m20bir_f BNV_m20bir_f_dau BNV_m20bir_f_son BNV_m25bir_f BNV_m25bir_f_dau BNV_m25bir_f_son BNV_m30bir_f BNV_m30bir_f_dau BNV_m30bir_f_son BNV_m35bir_f BNV_m35bir_f_dau BNV_m35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4. 모 결혼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결혼연령별 출생아 수(m20div~m41div)	
	세분류	결혼연령 20세 미만 출생아 수: m20bir 결혼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출생아 수: m25bir 결혼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출생아 수: m30bir 결혼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 출생아 수: m35bir 결혼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출생아 수: m40bir 결혼연령 40세 이상 출생아 수: m41bir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는 따로 결혼연령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출산 당시의) 연령과 그때까지의 동거기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결혼연령별 분석을 위하여 어머니의 현재 (출산) 연령에서 동거기간을 빼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 후, 이렇게 생성된 결혼연령을 5세 단위로 범주화하여 해당 결혼연령범주 별로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한편 동거기간을 그대로 빼기만 한 이유는 동거기간이 연단위로서 출산을 한 상태인데 동거기간이 0으로 보고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다.

(2) 시도별 자료 (BSV)

①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	BSV_bir_f_all BSV_bir_f_dau BSV_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1.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②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자료	BSV_bir_e1_f_all BSV_bir_e2_f_all BSV_bir_e3_f_all BSV_bir_e1_f_dau BSV_bir_e2_f_dau BSV_bir_e3_f_dau BSV_bir_e1_f_son BSV_bir_e2_f_son BSV_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1.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별 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③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출생아 수

자료	BSV_bir_o1_f_all BSV_bir_o2_f_all BSV_bir_o3_f_all BSV_bir_o4_f_all BSV_bir_o5_f_all BSV_bir_o6_f_all BSV_bir_o7_f_all	BSV_bir_o1_f_dau BSV_bir_o2_f_dau BSV_bir_o3_f_dau BSV_bir_o4_f_dau BSV_bir_o5_f_dau BSV_bir_o6_f_dau BSV_bir_o7_f_dau	BSV_bir_o1_f_son BSV_bir_o2_f_son BSV_bir_o3_f_son BSV_bir_o4_f_son BSV_bir_o5_f_son BSV_bir_o6_f_son BSV_bir_o7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1. 출생아 수\3. 모 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④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

자료	BSV_mbir_f_all BSV_mbir_f_dau BSV_m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한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⑤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

자료	BSV_mbir_e1_f_all BSV_mbir_e2_f_all BSV_mbir_e3_f_all BSV_mbir_e1_f_dau BSV_mbir_e2_f_dau BSV_mbir_e3_f_dau BSV_mbir_e1_f_son BSV_mbir_e2_f_son BSV_m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한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도별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⑥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혼인 중 출생아 수

자료	BSV_mbir_o1_f_all BSV_mbir_o2_f_all BSV_mbir_o3_f_all BSV_mbir_o4_f_all BSV_mbir_o5_f_all BSV_mbir_o6_f_all BSV_mbir_o7_f_all	BSV_mbir_o1_f_dau BSV_mbir_o2_f_dau BSV_mbir_o3_f_dau BSV_mbir_o4_f_dau BSV_mbir_o5_f_dau BSV_mbir_o6_f_dau BSV_mbir_o7_f_dau	BSV_mbir_o1_f_son BSV_mbir_o2_f_son BSV_mbir_o3_f_son BSV_mbir_o4_f_son BSV_mbir_o5_f_son BSV_mbir_o6_f_son BSV_mbir_o7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3. 모 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한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직업별(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⑦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

자료	BSV_sbir_f_all BSV_sbir_f_dau BSV_s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외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다만 시도별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포함하였다. (시도 또는 시군구 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값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⑧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

자료	BSV_sbir_e1_f_all BSV_sbir_e2_f_all BSV_sbir_e3_f_all BSV_sbir_e1_f_dau BSV_sbir_e2_f_dau BSV_sbir_e3_f_dau BSV_sbir_e1_f_son BSV_sbir_e2_f_son BSV_s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외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시도별 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1,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⑨ 시도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혼인 외 출생아 수

자료	BSV_sbir_o1_f_all	BSV_sbir_o1_f_dau	BSV_sbir_o1_f_son
	BSV_sbir_o2_f_all	BSV_sbir_o2_f_dau	BSV_sbir_o2_f_son
	BSV_sbir_o3_f_all	BSV_sbir_o3_f_dau	BSV_sbir_o3_f_son
	BSV_sbir_o4_f_all	BSV_sbir_o4_f_dau	BSV_sbir_o4_f_son
	BSV_sbir_o5_f_all	BSV_sbir_o5_f_dau	BSV_sbir_o5_f_son
	BSV_sbir_o6_f_all	BSV_sbir_o6_f_dau	BSV_sbir_o6_f_son
	BSV_sbir_o7_f_all	BSV_sbir_o7_f_dau	BSV_sbir_o7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외 출생아 수\3. 모 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직업별(o1~o7)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직업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원 및 장치조작,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의 7가지로 나누고 각각 o1~o7 으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⑩ 시도별 어머니 결혼연령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	BSV_m20bir_f	
	BSV_m20bir_f_dau	
	BSV_m20bir_f_son	
	BSV_m25bir_f	
	BSV_m25bir_f_dau	
	BSV_m25bir_f_sons	
	BSV_m30bir_f	
	BSV_m30bir_f_dau	
	BSV_m30bir_f_son	
	BSV_m35bir_f	
	BSV_m35bir_f_dau	
	BSV_m35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4. 모 결혼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결혼연령별 출생아 수(m20div~m41div)	
	세분류	결혼연령 20세 미만 출생아 수: m20bir
		결혼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출생아 수: m25bir
		결혼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출생아 수: m30bir
		결혼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 출생아 수: m35bir
		결혼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출생아 수: m40bir
결혼연령 40세 이상 출생아 수: m41bir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는 따로 결혼연령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출산 당시의) 연령과 그때까지의 동거기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결혼연령별 분석을 위하

여 어머니의 현재 (출산) 연령에서 동거기간을 빼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 후, 이렇게 생성된 결혼연령을 5세 단위로 범주화하여 해당 결혼연령범주 별로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한편 동거기간을 그대로 빼기만 한 이유는 동거기간이 연단위로서 출산을 한 상태인데 동거기간이 0으로 보고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다.

### (3) 시군구 자료 (BGV)

#### ①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	BGV_bir_f_all BGV_bir_f_dau BGV_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1.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 ②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자료	BGV_bir_e1_f_all BGV_bir_e2_f_all BGV_bir_e3_f_all BGV_bir_e1_f_dau BGV_bir_e2_f_dau BGV_bir_e3_f_dau BGV_bir_e1_f_son BGV_bir_e2_f_son BGV_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1.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 ③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

자료	BGV_mbir_f_all BGV_mbir_f_dau BGV_m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한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④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

자료	BGV_mbir_e1_f_all BGV_mbir_e2_f_all BGV_mbir_e3_f_all BGV_mbir_e1_f_dau BGV_mbir_e2_f_dau BGV_mbir_e3_f_dau BGV_mbir_e1_f_son BGV_mbir_e2_f_son BGV_m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한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⑤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

자료	BGV_sbir_f_all BGV_sbir_f_dau BGV_s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아 수\3. 모 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⑥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

자료	BGV_sbir_e1_f_all BGV_sbir_e2_f_all BGV_sbir_e3_f_all BGV_sbir_e1_f_dau BGV_sbir_e2_f_dau BGV_sbir_e3_f_dau BGV_sbir_e1_f_son BGV_sbir_e2_f_son BGV_sbir_e3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외 출생아 수\1.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교육수준별(e2, e3)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각각 어머니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해당 교육수준별 (시군구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각 e2, e3로 표시) 연령 5세 단위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⑦ 시군구 어머니 결혼연령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	BGV_m20bir_f BGV_m20bir_f_dau BGV_m20bir_f_son BGV_m25bir_f BGV_m25bir_f_dau BGV_m25bir_f_son BGV_m30bir_f BGV_m30bir_f_dau BGV_m30bir_f_son BGV_m35bir_f BGV_m35bir_f_dau BGV_m35bir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3. 출생\2. 혼인 외 출생아 수\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결혼연령별 출생아 수(m20div~m41div)
	세분류 결혼연령 20세 미만 출생아 수: m20bir 결혼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출생아 수: m25bir 결혼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출생아 수: m30bir 결혼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 출생아 수: m35bir 결혼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출생아 수: m40bir 결혼연령 40세 이상 출생아 수: m41bir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는 따로 결혼연령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출산 당시의) 연령과 그때까지의 동거기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결혼연령별 분석을 위하여 어머니의 현재 (출산) 연령에서 동거기간을 빼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 후, 이렇게 생성된 결혼연령을 5세 단위로 범주화하여 해당 결혼연령범주 별로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를 계산하였다. 한편 동거기간을 그대로 빼기만 한 이유는 동거기간이 연단위로서 출산을 한 상태인데 동거기간이 0으로 보고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다.

### 3.1.4. 기타(O)

<p>결혼코호트별 임신주수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li> <li>- 분포 (a) 26주 이하, (b) 27-36주, (c) 37-42주, (d) 42주 이후</li> </ul> <p>결혼코호트별 다태아 수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li> </ul> <p>가구주 특성별 평균 가구원의 수 (인구센서스 원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li> </ul> <p>가구주 특성별 가구유형 및 세대구성 (인구센서스 원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li> </ul> <p>가구주 특성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 (인구센서스 원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li> </ul>
---------------------------------------------------------------------------------------------------------------------------------------------------------------------------------------------------------------------------------------------------------------------------------------------------------------------------------------------------------------------------------------------------------------------------------------------------------------------------------------------------------------------------------------------------------------------------------------------

#### (1) 전국자료 (ONV)

##### ① 어머니 결혼코호트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평균 임신주수

자료	<p>어머니 결혼코호트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평균 임신주수</p> <p>BNV_mar_cohort1_wmean_f</p> <p>BNV_mar_cohort2_wmean_f</p> <p>BNV_mar_cohort3_wmean_f</p> <p>BNV_mar_cohort4_wmean_f</p> <p>BNV_mar_cohort1_wmean_f_dau</p> <p>BNV_mar_cohort2_wmean_f_dau</p> <p>BNV_mar_cohort3_wmean_f_dau</p> <p>BNV_mar_cohort4_wmean_f_dau</p> <p>BNV_mar_cohort1_wmean_f_son</p> <p>BNV_mar_cohort2_wmean_f_son</p> <p>BNV_mar_cohort3_wmean_f_son</p> <p>BNV_mar_cohort4_wmean_f_son</p>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1. 결혼 코호트별 평균 임신주수
분류	<p>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p> <p>결혼코호트별(1991년~2009년간, 5년 간격)</p> <p>mar_cohort1: 1991~1995 혼인한 집단</p> <p>mar_cohort2: 1996~2000 혼인한 집단</p> <p>mar_cohort3: 2001~2005 혼인한 집단</p>

	mar_cohort4: 2006~2009 혼인한 집단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의 결혼코호트를 추정한다. 출생자료에서는 결혼의 연월일이 따로 제공되지 않으나 동거기간을 제공하므로, 출산한 연도에서 동거기간을 빼 결혼연도를 역추적하였다. 이때 결혼코호트(5년 간격)별로 자녀의 출산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임신 주수를 계산하였다. 다만 전국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포함하였다.

## ② 결혼코호트별 임신주수 분포

자료	어머니 결혼코호트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임신주수 분포 BNV_mar_cohort1_wdistn_f BNV_mar_cohort2_wdistn_f BNV_mar_cohort3_wdistn_f BNV_mar_cohort4_wdistn_f BNV_mar_cohort1_wdistn_f_dau BNV_mar_cohort2_wdistn_f_dau BNV_mar_cohort3_wdistn_f_dau BNV_mar_cohort4_wdistn_f_dau BNV_mar_cohort1_wdistn_f_son BNV_mar_cohort2_wdistn_f_son BNV_mar_cohort3_wdistn_f_son BNV_mar_cohort4_wdistn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2. 결혼코호트별 임신주수 분포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결혼코호트별(1991년~2009년간, 5년 간격) mar_cohort1: 1991~1995 혼인한 집단 mar_cohort2: 1996~2000 혼인한 집단 mar_cohort3: 2001~2005 혼인한 집단 mar_cohort4: 2006~2009 혼인한 집단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의 결혼코호트를 추정한다. 출생자료에서는 결혼의 연월일이 따로 제공되지 않으나 동거기간을 제공하므로, 출산한 연도에서 동거기간을 빼 결혼연도를 역추적하였다. 이때 결혼코호트(5년 간격)별로 어머니의 (출산)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임신 주수를 계산하였다. 다만 임신주수의 보고에서 20주 이하로 나오는 46건과 51주 이상으로 나오는 5건 (20년간 총 11,194,119 건 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 전국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포함하였다.

## ③ 결혼코호트별 다태아 수

자료	어머니 결혼코호트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다태아 수
----	-------------------------------

	BNV_mar_cohort1_twins_f BNV_mar_cohort2_twins_f BNV_mar_cohort3_twins_f BNV_mar_cohort4_twins_f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3. 결혼코호트별 다태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결혼코호트별(1991년~2009년간, 매년) mar_cohort1: 1991~1995 혼인한 집단 mar_cohort2: 1996~2000 혼인한 집단 mar_cohort3: 2001~2005 혼인한 집단 mar_cohort4: 2006~2009 혼인한 집단 연령(15~49세, 5세 단위), 다태아 여부 및 수(1명,2명,3명이상)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의 결혼코호트를 추정한다. 출생자료에서는 결혼의 연월일이 따로 제공되지 않으나 동거기간을 제공하므로, 출산한 연도에서 동거기간을 빼 결혼연도를 역추적하였다. 이때 결혼코호트(매년)별로 어머니의 (출산)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 시 다태아 수를 계산하였다. 다만 전국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포함하였다. 한편 다태아 비율은 결혼코호트 별로 매해 어머니의 연령 5세 단위별 전체 출생신고의 숫자 중에 다태아로 신고한 숫자의 비율 (다태아 여부 및 수 항목에서 2 또는 3의 값을 가질 때)로 정의하고 계산하였다.

#### ④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의 수

자료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의 수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4. 가구주 특성별 평균 가구원의 수\1.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의 수
분류	가구주 연령(15세~79세는 5세 단위, 80세 이상은 합산)
출처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단, 1985년은 2.5%) 마이크로 표본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평균 가구원의 수를 계산하였다.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가 각각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 샘플에 대해 가구원의 수가 존재한다.

가구주의 연령이 결측 값(999)을 가지는 경우는 0.1% 미만이고 1995년과 2000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999가 아니면서 120 이상으로 기록된 샘플은 기록상 오류로 간주하여 무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1건 존재한다.

#### ⑤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가구원의 수

자료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가구원의 수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4. 가구주 특성별 평균 가구원의 수\2.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가구원의 수
분류	가구주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단, 1985년은 2.5%) 마이크로 표본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가구원의 수를 계산하였다.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가 각각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 샘플에 대해 가구원의 수가 존재한다.

가구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졸업/재학/중퇴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결측 값을 가지는 경우의 비율은 0.1% 미만이다. 15세 미만의 가구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연령 미상(전체 샘플의 0.1% 미만)은 포함시켰다.

⑥ 가구주 혼인상태별 평균 가구원의 수

자료	가구주 혼인상태별 평균 가구원의 수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4. 가구주 특성별 평균 가구원의 수\3. 가구주 혼인상태별 평균 가구원의 수
분류	가구주 혼인상태별(m1, m2)
출처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단, 1985년은 2.5%) 마이크로 표본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가구원의 수를 계산하였다.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가 각각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 샘플에 대해 가구원의 수가 존재한다.

가구의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배우자 없음]으로 분류되었으며 미혼과 더불어 이혼, 사별이 모두 배우자 없음 범주에 포함된다. 15세 미만의 가구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연령 미상(전체 샘플의 0.1% 미만)은 포함시켰다.

⑦ 가구주 연령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

자료	가구주 연령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5. 가구주 특성별 가구유형\1. 가구주 연령별 가구유형 비율
분류	가구주 연령(15세~79세는 5세 단위, 80세 이상은 합산)
출처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단, 1985년은 2.5%) 마이크로 표본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특히 초기 센서스의 경우 가구 유형 분류에 있어서 몇몇 샘플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분류를 하였고, 주어진 가구 유형 분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타 x세대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가구 유형이 분류된 유형의 하나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는데, 1985년과 1990년은 그 비율이 0.1% 정도의 수준이고 그 밖의 연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2세대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부모이고 자녀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뿐 아니라 가구주가 미혼이면서 부모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을 이룬다.

가구의 연령이 결측 값(999)을 가지는 경우는 0.1% 미만이고 1995년과 2000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999가 아니면서 120 이상으로 기록된 샘플은 기록상 오류로 간주하여 무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1건 존재한다.

⑧ 가구주 교육수준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

자료	가구주 교육수준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5. 가구주 특성별 가구유형\2. 가구주 교육수준별 가구 유형 비율
분류	가구주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단, 1985년은 2.5%) 마이크로 표본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특히 초기 센서스의 경우 가구 유형 분류에 있어서 몇몇 샘플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분류를 하였고, 주어진 가구 유형 분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타 x세대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가구 유형이 분류된 유형의 하나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는데, 1985년과 1990년은 그 비율이 0.1% 정도의 수준이고 그 밖의 연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2세대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부모이고 자녀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뿐 아니라 가구주가 미혼이면서 부모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을 이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졸업/재학/중퇴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결측 값을 가지는 경우의 비율은 0.1% 미만이다. 15세 미만의 가구주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연령 미상(전체 샘플의 0.1% 미만)은 포함시켰다.

㉑ 가구주 혼인상태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

자료	가구주 혼인상태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5. 가구주 특성별 가구유형\3.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유형 비율
분류	가구주 혼인상태별(m1, m2)
출처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단, 1985년은 2.5%) 마이크로 표본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특히 초기 센서스의 경우 가구 유형 분류에 있어서 몇몇 샘플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분류를 하였고, 주어진 가구 유형 분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타 x세대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가구 유형이 분류된 유형의 하나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는데, 1985년과 1990년은 그 비율이 0.1% 정도의 수준이고 그 밖의 연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2세대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부모이고 자녀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뿐 아니라 가구주가 미혼이면서 부모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을 이룬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배우자 없음]으로 분류되었으며 미혼과 더불어 이혼, 사별이 모두 배우자 없음 범주에 포함된다. 15세 미만의 가구주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연령 미상(전체 샘플의 0.1% 미만)은 포함시켰다.

㉒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

자료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족형성시기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6. 가구주 특성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1. 가구주 연령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
분류	가구주 연령(15세~79세는 5세 단위, 80세 이상은 합산)
출처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 (1980년, 2005년)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평균 초혼 연령을 계산하였다. 인구주택센서스 중 초혼연령 변수가 존재하는 연도는 1980년, 1990년, 2005년인데 그 중 1990년의 데이터는 결측 값이 많고 (87% 이상) 결측 값이 아닌 경우에도 분포가 초혼연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서 (0~2의 값이 96% 이상) 사용하지 않고 1980년과 2005년의 평균 초혼 연령만 구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결측 값(999)을 가지는 경우는 0.1% 미만이고 1995년과 2000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999가 아니면서 120 이상으로 기록된 샘플은 기록상 오류로 간주하여 무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1건 존재한다.

㉑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가족형성시기

자료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가족형성시기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6. 가구주 특성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2. 가구주 교육수준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
분류	가구주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 (1980년, 2005년)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평균 초혼 연령을 계산하였다. 인구주택센서스 중 초혼연령 변수가 존재하는 연도는 1980년, 1990년, 2005년인데 그 중 1990년의 데이터는 결측 값이 많고 (87% 이상) 결측 값이 아닌 경우에도 분포가 초혼연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서 (0~2의 값이 96% 이상) 사용하지 않고 1980년과 2005년의 평균 초혼 연령만 구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졸업/재학/중퇴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결측 값을 가지는 경우의 비율은 0.1% 미만이다. 15세 미만의 가구주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연령 미상(전체 샘플의 0.1% 미만)은 포함시켰다.

㉒ 가구주 혼인상태별 평균 가족형성시기

자료	가구주 혼인상태별 평균 가족형성시기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6. 가구주 특성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3.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
분류	가구주 혼인상태별(m1, m2)
출처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 (1980년, 2005년)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평균 초혼 연령을 계산하였다. 인구주택센서스 중 초혼연령 변수가 존재하는 연도는 1980년, 1990년, 2005년인데 그 중 1990년의 데이터는 결측 값이 많고 (87% 이상) 결측 값이 아닌 경우에도 분포가 초혼연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서 (0~2의 값이 96% 이상) 사용하지 않고 1980년과

2005년의 평균 초혼 연령만 구하였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배우자 없음]으로 분류되었으며 미혼과 더불어 이혼, 사별이 모두 배우자 없음 범주에 포함된다. 15세 미만의 가구주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연령 미상(전체 샘플의 0.1% 미만)은 포함시켰다.

## (2) 시도자료 (OSV)

### ① 어머니 결혼코호트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평균 임신주수

자료	BSV_mar_cohort1_wmean_f BSV_mar_cohort2_wmean_f BSV_mar_cohort3_wmean_f BSV_mar_cohort4_wmean_f BSV_mar_cohort1_wmean_f_dau BSV_mar_cohort2_wmean_f_dau BSV_mar_cohort3_wmean_f_dau BSV_mar_cohort4_wmean_f_dau BSV_mar_cohort1_wmean_f_son BSV_mar_cohort2_wmean_f_son BSV_mar_cohort3_wmean_f_son BSV_mar_cohort4_wmean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1. 결혼 코호트별 평균 임신주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결혼코호트별(1991년~2009년간, 5년 간격)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의 결혼코호트를 추정한다. 출생자료에서는 결혼의 연월일이 따로 제공되지 않으나 동거기간을 제공하므로, 출산한 연도에서 동거기간을 빼 결혼연도를 역추적하였다. 이때 결혼코호트(5년 간격)별로 자녀의 출산 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임신 주수를 계산하였다. 다만 시도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값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② 결혼코호트별 임신주수 분포

자료	BSV_mar_cohort1_wdistn_f BSV_mar_cohort2_wdistn_f BSV_mar_cohort3_wdistn_f BSV_mar_cohort4_wdistn_f BSV_mar_cohort1_wdistn_f_dau BSV_mar_cohort2_wdistn_f_dau BSV_mar_cohort3_wdistn_f_dau BSV_mar_cohort4_wdistn_f_dau BSV_mar_cohort1_wdistn_f_son
----	------------------------------------------------------------------------------------------------------------------------------------------------------------------------------------------------------------------------------------------------------------------------------

	BSV_mar_cohort2_wdistn_f_son BSV_mar_cohort3_wdistn_f_son BSV_mar_cohort4_wdistn_f_son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2. 결혼코호트별 임신주수 분포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결혼코호트별(1991년~2009년간, 5년 간격) 연령(15~49세, 5세 단위)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의 결혼코호트를 추정한다. 출생자료에서는 결혼의 연월일이 따로 제공되지 않으나 동거기간을 제공하므로, 출산한 연도에서 동거기간을 빼 결혼연도를 역추적하였다. 이때 결혼코호트(5년 간격)별로 어머니의 (출산)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임신 주수를 계산하였다. 다만 임신주수의 보고에서 20주 이하로 나오는 46건과 51주 이상으로 나오는 5건 (20년간 총 11,194,119 건 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 시도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값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③ 결혼코호트별 다태아 수 및 비율

자료	어머니 결혼코호트별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다태아 수 BSV_mar_cohort1_twins_f BSV_mar_cohort2_twins_f BSV_mar_cohort3_twins_f BSV_mar_cohort4_twins_f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3. 결혼코호트별 다태아 수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결혼코호트별(1991년~2009년간, 매년) 연령(15~49세, 5세 단위), 다태아 여부 및 수(1명,2명,3명이상)
출처	인구동태자료(출생)

인구동태자료(출생)에서 어머니의 결혼코호트를 추정한다. 출생자료에서는 결혼의 연월일이 따로 제공되지 않으나 동거기간을 제공하므로, 출산한 연도에서 동거기간을 빼 결혼연도를 역추적하였다. 이때 결혼코호트(매년)별로 어머니의 (출산)연령 5세 단위별 해당 출생시 다태아 수를 계산하였다. 다만 시도자료에서는 주소지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값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다태아 비율은 결혼코호트 별로 매해 어머니의 연령 5세 단위별 전체 출생신고의 숫자 중에 다태아로 신고한 숫자의 비율 (다태아 여부 및 수 항목에서 2 또는 3의 값을 가질 때)로 정의하고 계산하였다.

### ④ 시도별 평균 가구원의 수

자료	시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의 수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4. 가구주 특성별 평균 가구원의 수\1.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의 수
분류	가구주 연령(15세~79세는 5세 단위, 80세 이상은 합산)
출처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단, 1985년은 2.5%) 마이크로 표본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평균 가구원의 수를 계산하였다. 가구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가 각각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 샘플에 대

해 가구원의 수가 존재한다.

시/도의 분류는 해당 연도 분류에 따랐으며 시간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고 당시 존재하지 않던 광역시는 결측 값으로 두었다.

⑤ 시도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

자료	시도별 가구주 연령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5. 가구주 특성별 가구유형\1. 가구주 연령별 가구유형 비율
분류	가구주 연령(15세~79세는 5세 단위, 80세 이상은 합산)
출처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단, 1985년은 2.5%) 마이크로 표본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각 가구유형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특히 초기 센서스의 경우 가구 유형 분류에 있어서 몇몇 샘플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구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분류를 하였고, 주어진 가구 유형 분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타 x세대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가구 유형이 분류된 유형의 하나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는데, 1985년과 1990년은 그 비율이 0.1% 정도의 수준이고 그 밖의 연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2세대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부모이고 자녀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뿐 아니라 가구주가 미혼이면서 부모와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을 이룬다.

시/도의 분류는 해당 연도 분류에 따랐으며 시간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고 당시 존재하지 않던 광역시는 결측 값으로 두었다.

⑥ 시도별 평균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

자료	시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족형성시기
위치	1. 인구동태자료\4. 기타\6. 가구주 특성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1. 가구주 연령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
분류	가구주 연령(15세~79세는 5세 단위, 80세 이상은 합산)
출처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 (1980년, 2005년)

각 연도 인구주택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자료에서 가구주 연령 5세 단위별 평균 초혼 연령을 계산하였다. 인구주택센서스 중 초혼연령 변수가 존재하는 연도는 1980년, 1990년, 2005년인데 그 중 1990년의 데이터는 결측 값이 많고 (87% 이상) 결측 값이 아닌 경우에도 분포가 초혼연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서 (0~2의 값이 96% 이상) 사용하지 않고 1980년과 2005년의 평균 초혼 연령만 구하였다.

시/도의 분류는 해당 연도 분류에 따랐으며 시간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고 당시 존재하지 않던 광역시는 결측 값으로 두었다.

### 3.2. 모수자료 (P)

#### (1) 전국자료

##### ①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

자료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 ~ 3. 출생\1.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인구\1. 전국자료
분류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 -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통계청)

연앙추계인구(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계한 인구)를 추산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연앙추계인구 자체는 통계청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앙추계인구  $t = \frac{\text{추계인구}_t + \text{추계인구}_{t-1}}{2}$ . 즉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추계인구를 산술평균하여 연앙추계인구를 추산하였다.

#####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자료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 ~ 3. 출생\1.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1. 전국자료
분류	성별, 연령(15~59세는 5세단위, 60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 -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e1: 고등학교 교육 미만, e2: 고등학교 교육, e3: 대학교육 이상. 단 1990~1992년은 e1: 중학교 교육 미만, e2: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e3: 대학교육 이상)
출처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 (통계청)

5년 단위의 인구주택 총조사는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수를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추산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도 인구주택 총조사이다. 1990, 1995, 2000, 2005, 2010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수 추산 과정에서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교육 미만(e1), 고등학교 교육(e2), 대학교육 이상(e3)으로 나누고, 각각의 교육수준에 대해 인구를 추산하였다. 단 1991년과 1992년에는 인구동태자료에서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분리할 수 없었으므로 모수자료에서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랐다. 즉 1990~1992년의 e1은 중학교 교육 미만이며, e2는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이다. 이와 관련하여 '2.3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의 구분'을 참조할 것.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단위의 인구수만을 알려주고 있다. 기타 연도의 인구를 추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이다. 5년 단위의 인구수를 알고 있으므로 ( $T$ , 인구수 $T$ )와 ( $T+5$ , 인구수 $T+5$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f(t)$ 를 구하고,  $T < t < T+5$ 의 인구수는  $y=f(t)$ 의 함수값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선형보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구분을 통일하였다. 즉 15~59세는 5세 단위로 구분하고, 60세 이상은 '60세 이상(A60)'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1990년과 1995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가 방금과 같은 연령구분을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1990~1992년의 교육수준 분류와 1993~2010년의 교육수준 분류가 다르므로 이를 무시한 채 선형보간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1990년의 e1을 중학교 교육 미만으로 분류하고 1995년의 e1을 고등학교 교육 미만으로 분류한 뒤 두 인구수를 선형보간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1990년과 1995년의 교육수준을 i. 중학교 교육 미만 ii. 고등학교 교육 미만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1991년과 1992년의 인구를 추산할 때는 i의 기준으로 분류된 1990년과 1995년의 인구수를 토대로 선형보간법을 사용한다. 한편 1993~1994년의 인구는 ii로 분류된 1990년과 1995년의 인구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1990년과 1995년의 인구수는 각각 i, ii의 분류를 사용한다.

### ③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자료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 ~ 3. 출생\1. 인구수\3.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1. 전국자료
분류	성별, 연령(15~64세는 5세 단위, 6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 -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o1: 전문직, o2: 사무직, o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o4: 농림어업, o5: 기능원 및 장치조작, o6: 단순노무)
출처	1990, 1995, 2000,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 (통계청)

1990, 1995, 2000, 2005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를 사용하고, 기타 연도에 대해서는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였다. 2010년에는 직업별 인구수에 대한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06~2010년의 인구는 추산할 수 없었다. 직업별 인구의 연령별 구분은 15~64세까지는 5세 단위 구분을, 65세 이상은 '65세 이상(A65)'으로 처리하였다. 선형보간법과 연령별 구분에 대해서는 '(1)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참조.

직업은 전문직(o1), 사무직(o2),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o3), 농림어업(o4), 기능원 및 장치조작(o5), 단순노무(o6)로 분류하였다. 센서스 연도별 분류는 '2.3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의 구분'을 참조할 것. 단 학생, 가사, 무직(o7)의 경우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해당 직업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를 생성하지 못하였고, 단순노무(o6)는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1995~2005년에 대한 인구수만 추산하였다.

### ④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자료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2. 유배우 인구수 ~ 6. 이혼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이혼) 인구수\1. 전국자료 2. 인구모수자료\2. 이혼\2. 유배우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1. 전국자료 2. 인구모수자료\3. 출생\2. 유배우 인구수 ~ 3. 무배우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무배우) 인구수\1. 전국자료
분류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 -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mpop: 유배우 인구, spop: 무배우 인구, npop: 미혼 인구, wpop: 사별 인구, dpop: 이혼 인구)
출처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 (통계청)

1990, 1995, 2000, 2005, 2010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를 사용하고, 기타 연도에 대해서는 역시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였다. 연령별 구분은 15~74세까지는 5세 단위 구분은, 75세 이상을 '75세 이상(A75)'으로 처리하였다. 선형보간법과 연령별 구분에 대해서는 '(1)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참조.

혼인상태는 유배우 인구(mpop), 무배우 인구(spop), 미혼 인구(npop), 사별 인구(wpop), 이혼 인구(dpop)로 구분하였다. 단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무배우 인구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미혼·사별·이혼인구의 단순 합으로 산출하였다. 즉 무배우 인구<sub>t</sub> = 미혼 인구<sub>t</sub> + 사별 인구<sub>t</sub> + 이혼 인구<sub>t</sub> 이다.

⑤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자료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2. 유배우 인구수 ~ 6. 이혼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이혼) 인구수\1. 전국자료 2. 인구모수자료\2. 이혼\2. 유배우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1. 전국자료 2. 인구모수자료\3. 출생\2. 유배우 인구수 ~ 3. 무배우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무배우) 인구수\1. 전국자료
분류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 -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mpop: 유배우 인구, spop: 무배우 인구, npop: 미혼 인구, wpop: 사별 인구, dpop: 이혼 인구) 교육수준(e12: 대학교육 미만, e3: 대학교육 이상)
출처	1990, 1995, 2000, 2005 2% 마이크로센서스 (통계청)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통계청)

해당 사회경제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2% 마이크로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해당 인구를 추산하였다. 마이크로센서스 자료는

1990, 1995, 2000, 2005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1) ①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와 결합하여 해당 인구를 추산하였다. 연령구분은 인구동태자료와 구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15~74세까지는 5세 단위 구분을, 75세 이상은 '75세 이상(A75)'으로 처리하였다.

인구의 추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i. 해당 성별과 연령에 대해 각각의 혼인상태와 교육수준을 가지는 인구의 비율을 추산하였다. 자신의 혼인상태와 교육수준을 모두 보고한 이들의 총 숫자를 분모로 하고, 해당 혼인상태와 교육수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들의 총 숫자를 분자로 한 비율이다. 따라서 만들어진 비율은 혼인상태와 교육수준에 대한 결합확률(joint probability)이다. 분류 기준은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 인구(mpop), 무배우 인구(spop), 미혼 인구(npop), 사별 인구(wpop), 이혼 인구(dpop)이며,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육 미만(e12)과 대학교육 이상(e3)이다. 따라서 총  $5 \times 2 = 10$ 가지의 분류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때 여전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무배우 인구가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미혼 인구, 사별인구, 이혼인구의 단순합계로 무배우 인구를 정의하였다. 이후 ii. 인구비율이 5년 단위로만 존재하므로 기타 연도에 대해서는 선형보간법을 수행하였고, 이제 iii (1) ①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인구수를 산출하였다.

## (2) 광역시도 자료

### ①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자료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 ~ 3. 출생\1.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인구\2. 시도별 자료
분류	광역시도,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통계청)

광역시도별 연앙추계인구를 추계하기 위해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추계인구를 산술평균하여 해당 인구를 추산하였다. '(1) ①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 참조.

광역시도별 추계인구 원자료에서는 현재의 광역시도 경계가 과거 연도의 인구자료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되어 있다. 예컨대 울산시는 1997년에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울산광역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1996년의 경상남도 추계인구는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거주하였던 이들을 제외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1996년의 경상남도 연앙추계인구는 기존의 경상남도 인구와 울산광역시 인구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즉  $1991 \leq t \leq 1996$ 에 대하여 경상남도 성별 연령별 인구<sub>t</sub> = 경상남도 연앙추계인구<sub>t</sub> + 울산광역시 연앙추계인구<sub>t</sub> 이다.

### ②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자료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 ~ 3. 출생\1.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2. 시도별 자료

분류	광역시도, 성별, 연령(15~59세는 5세단위, 60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e1: 고등학교 교육 미만, e2: 고등학교 교육, e3: 대학교육 이상. 단 1990~1992년은 e1: 중학교 교육 미만, e2: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e3: 대학교육 이상)
출처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 (통계청)

1990, 1995, 2000, 2005, 2010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를 사용하였다. 교육수준별 분류 기준, 선형보간법, 연령별 구분, 1990~1992년의 교육수준별 분류에 대한 추산은 모두 '(1)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와 동일하므로 이를 참조할 것.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대한 선형보간법의 사용은 '2.4. 광역시도 구분의 변화'를 참조하라.

### ③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자료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 ~ 3. 출생\1. 인구수\3.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2. 시도별 자료
분류	광역시도, 성별, 연령(15~64세는 5세단위, 6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o1: 전문직, o2: 사무직, o3: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o4: 농림어업, o5: 기 능원 및 장치조작, o6: 단순노무)
출처	1990, 1995, 2000,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 (통계청)

1990, 1995, 2000, 2005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를 사용하였다. 직업 분류 기준, 연령별 구분은 모두 '(1) ③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와 동일하므로 이를 참조할 것.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연도에 대해서는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였는데, 직업별 인구수의 전수자료는 시군구 단위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2) ②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에서 경상남도과 울산광역시 인구를 추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6~1999년 경상남도 인구는 사용가능한 자료가 아니게 되어 추산하지 않았고, 1997~1999년 울산광역시 인구는 선형보간법으로 추산할 수 없게 되어 역시 추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 광역시도에 대한 선형보간법은 '(1)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를 참조하라.

### ④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자료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2. 유배우 인구수 ~ 6. 이혼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이혼) 인구수\2. 시도별 자료 2. 인구모수자료\2. 이혼\2. 유배우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2. 시도별 자료

	2. 인구모수자료\3. 출생\2. 유배우 인구수 ~ 3. 무배우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무배우) 인구수\2. 시도별 자료
분류	광역시도,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mpop: 유배우 인구, spop: 무배우 인구, npop: 미혼 인구, wpop: 사별 인구, dpop: 이혼 인구)
출처	1990, 1995, 2000, 2005,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 (통계청)

1990, 1995, 2000, 2005, 2010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를 사용하였다. 혼인상태별 분류 기준, 연령별 구분은 모두 '(1) ④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와 동일하고, 선형보간법은 '(1)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2) ②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와 동일하다. 즉 혼인상태별 인구수에 대해서는 시군구 자료까지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자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선형보간법을 적용하였다.

⑤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자료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2. 유배우 인구수 ~ 6. 이혼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이혼) 인구수\2. 시도별 자료 2. 인구모수자료\2. 이혼\2. 유배우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2. 시도별 자료 2. 인구모수자료\3. 출생\2. 유배우 인구수 ~ 3. 무배우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무배우) 인구수\2. 시도별 자료
분류	시군구,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mpop: 유배우 인구, spop: 무배우 인구, npop: 미혼 인구, wpop: 사별 인구, dpop: 이혼 인구), 교육수준(e12: 대학교육 미만, e3: 대학교육 이상)
출처	1990, 1995, 2000, 2005 2% 마이크로센서스 (통계청)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통계청)

2% 마이크로센서스 자료와 '(2) ① 광역시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사용하여 인구를 추산하였다. 2% 마이크로센서스는 1990, 1995, 2000, 200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5년 단위 비율 추산 → 기타 연도에 대한 비율 선형보간 → 광역시도별 인구수에 비율을 곱하여 해당 인구 추산'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구를 구하였다. 분류 기준과 인구의 추산 과정은 '(1) ⑤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참조할 것.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대한 선형보간법의 사용은 '2.4. 광역시도 구분의 변화'를 참조하라. 단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대한 선형보간법 사용을 위해 1995년 자료에서는 경상남도 울산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의 인구비율을, 2000년 자료에서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합한 인구비율을 추가로 계산하였다.

### (3) 시군구 자료

#### ①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자료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 ~ 3. 출생)\1.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인구\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시군구,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출처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1992년부터 존재하므로 접근할 수 있는 시군구 인구 역시 1992년부터이다. 시군구 코드의 부여 기준과 현황은 '2.5. 시군구 분류 기준' 참조.

#### ②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자료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 ~ 3. 출생)\1.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시군구,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e12: 대학교육 미만, e3: 대학교육 이상)
출처	1990, 1995, 2000, 2005 2% 마이크로센서스 (통계청)

2% 마이크로센서스 자료와 '(3) ①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사용하여 인구를 추산하였다. 2% 마이크로센서스는 1990, 1995, 2000, 200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육 미만(e12)과 대학교육 이상(e3)으로 구별하였고, '5년 단위 비율 추산 → 기타 연도에 대한 비율 선형보간 → 시군구별 인구수에 비율을 곱하여 해당 인구 추산'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구를 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 ⑤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참조.

다만 시군구의 통합·분리·행정구역 변경이 빈번하였으므로 선형보간법을 사용할 때 이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행정구역요람』을 참조하여 선형보간법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였다. 즉 선형보간법을 시행할 때,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보간법을 실행하지 않았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중구(11020)의 경우 1999년 5월 13일에 중구 신당동 일부가 성동구로 편입되었는데(『2009년도 지방행정구역요람』) 이로 인해 1995년과 2000년의 중구 행정구역은 서로 달라진다. 따라서 1996~1999년에 대한 선형보간은 실행되지 않는다.

일부 시군구의 경우 2% 마이크로센서스 자료에서 해당 성별·연령의 인구가 0이 되어 비율 자체를 추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분모가 0이 되어 비율 자체를 구하는 것이 불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든 교육수준에 대해 비율=0으로 추산하였다. 따라서 해당 인구 역시 0으로 추산된다.

③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자료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2. 유배우 인구수 ~ 6. 이혼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이혼) 인구수\3. 시군구별 자료 2. 인구모수자료\2. 이혼\2. 유배우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3. 시군구별 자료 2. 인구모수자료\3. 출생\2. 유배우 인구수 ~ 3. 무배우 인구수\1. 성별, 연령별 (유배우~무배우) 인구수\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시군구, 성별, 연령(15~74세는 5세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mpop: 유배우 인구, spop: 무배우 인구, npop: 미혼 인구, wpop: 사별 인구, dpop: 이혼 인구)
출처	1990, 1995, 2000, 2005 2% 마이크로센서스 (통계청)

2% 마이크로센서스 자료와 '(3) ①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사용하여 인구를 추산하였다. 2% 마이크로센서스는 1990, 1995, 2000, 200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혼인유형 구분은 '(1) ④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를 참조하고, 인구의 추산 방법은 '(1) ⑤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와 '(3) ②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참조할 것.

④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자료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위치	2. 인구모수자료\1. 혼인\2. 유배우 인구수 ~ 6. 이혼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이혼) 인구수\3. 시군구별 자료 2. 인구모수자료\2. 이혼\2. 유배우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3. 시군구별 자료 2. 인구모수자료\3. 출생\2. 유배우 인구수 ~ 3. 무배우 인구수\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무배우) 인구수\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시군구, 성별,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75세 이상은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mpop: 유배우 인구, spop: 무배우 인구, npop: 미혼 인구, wpop: 사별 인구, dpop: 이혼 인구), 교육수준(e12: 대학교육 미만, e3: 대학교육 이상)
출처	1990, 1995, 2000, 2005 2% 마이크로센서스 (통계청)

2% 마이크로센서스 자료와 '(3) ①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사용하여 인구를 추산하였다. 2% 마이크로센서스는 1990, 1995, 2000, 200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5년 단위

비율 추산 → 기타 연도에 대한 비율 선형보간 → 시군구별 인구수에 비율을 곱하여 해당 인구 추산'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구를 구하였다. 분류 기준과 인구의 추산 과정은 '(1) ⑤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인구수'와 '(1) ②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아울러 참조할 것.

### 3.3. 인구비율자료 (R)

인구비율자료를 계산함에는 상기한 3.1 인구동태자료 및 3.2 인구모수자료에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비율을 계산하였다.

#### 3.3.1. 혼인 (M)

##### (1) 전국자료 (MNR)

###### ①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비율

자료	MNR_rmpop_f.xls MNR_rspop_f.xls MNR_rnpop_f.xls MNR_rwpop_f.xls MNR_rdpop_f.xls MNR_rmpop_m.xls MNR_rspop_m.xls MNR_rnpop_m.xls MNR_rwpop_m.xls MNR_rdpop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1. 혼인상태비율\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별(rmpop, rspop, rnpop, rwpop, rdpop)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분자로는 3.2 인구모수자료에서 계산된 전국 혼인상태별 인구수를 사용하였고, 분모로는 역시 3.2 인구모수자료에서 계산된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사용하였다.(rmpop : 유배우 인구비율, rspop : 무배우 인구비율, rnpop : 미혼 인구비율, rwpop : 사별 인구비율, rdpop : 이혼인구비율)

###### ②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비율

자료	MNR_rmar_f.xls MNR_rmar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2. 혼인율\1. 성별, 연령별 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③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비율

자료	MNR_rmar_e1_f.xls MNR_rmar_e2_f.xls MNR_rmar_e3_f.xls MNR_rmar_e1_m.xls MNR_rmar_e2_m.xls MNR_r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2.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60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e1 : 고등학교, e2 : 고등학교, e3 : 대학교육 이상) 단, 1991~1992년의 경우 인구동태자료 및 인구모수자료에서 e1은 중학교 교육 미만, e2는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비율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및 3.2 인구모수자료 참고)

④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비율

자료	MNR_rmar_o1_f.xls MNR_rmar_o2_f.xls MNR_rmar_o3_f.xls MNR_rmar_o4_f.xls MNR_rmar_o5_f.xls MNR_rmar_o6_f.xls MNR_rmar_o1_m.xls MNR_rmar_o2_m.xls MNR_rmar_o3_m.xls
----	-------------------------------------------------------------------------------------------------------------------------------------------------------------------------------------------

	MNR_rmar_o4_m.xls MNR_rmar_o5_m.xls MNR_rmar_o6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2. 혼인율\3.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65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별(o1~o7)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는 무직(o7)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비율자료에서는 (o1~o6)까지의 자료를 계산하였다.

⑤ 전국 성별 연령별 무배우 혼인율

자료	MNR_rsmar_f MNR_rs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3. 무배우 혼인율\1. 성별, 연령별 무배우 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⑥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혼인율

자료	MNR_rsmar_e12_f.xls MNR_rsmar_e3_f.xls MNR_rsmar_e12_m.xls MNR_rs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3. 무배우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⑦ 전국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혼인율

자료	MNR_rnmar_f MNR_rn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4. 미혼인구 혼인율\1.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혼인율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omar)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인구수(n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o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인구수(n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⑧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 혼인율

자료	MNR_rnmar_e12_f.xls MNR_rnmar_e3_f.xls MNR_rnmar_e12_m.xls MNR_rn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4. 미혼인구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 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수(n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수(n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⑨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율

자료	MNR_rwmar_f MNR_rw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5. 사별인구 재혼인율\1.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인구수(w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인구수(w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⑩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율

자료	MNR_rwmar_e12_f.xls MNR_rwmar_e3_f.xls MNR_rwmar_e12_m.xls MNR_rw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5. 사별인구 재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수(w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w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⑪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율

자료	MNR_rdmarm_f MNR_rdmarm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6. 이혼인구 재혼인율\1.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

	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수(d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인구수(d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㉔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율

자료	MNR_rdmар_e12_f.xls MNR_rdmар_e3_f.xls MNR_rdmар_e12_m.xls MNR_rdmар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6. 이혼인구 재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수(d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d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2) 시도 자료 (MSR)

① 시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비율

자료	MSR_rmpop_f.xls MSR_rspop_f.xls MSR_rnpop_f.xls MSR_rwpop_f.xls MSR_rdpop_f.xls MSR_rmpop_m.xls MSR_rspop_m.xls MSR_rnpop_m.xls MSR_rwpop_m.xls
----	-------------------------------------------------------------------------------------------------------------------------------------------------------------------------

	MSR_rdpop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1. 혼인상태비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별(rmpop, rspop, rnpop, rwpop, rdpop)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분자로는 3.2 인구모수자료에서 계산된 시도 혼인상태별 인구수를 사용하였고, 분모로는 역시 3.2 인구모수자료에서 계산된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사용하였다.(rmpop : 유배우 인구비율, rspop : 무배우 인구비율, rnpop : 미혼 인구비율, rwpop : 사별 인구비율, rdpop : 이혼인구비율) 단, 시도 모수자료에서는 울산시 자료를 1997년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비율자료에서 또한 울산시의 경우 1997년부터 계산하였다.(자세한 사항은 모수자료 설명 참고, 울산시 자료가 1997년부터 계산된 것은 이하 모든 시도 비율자료에 해당)

## ② 시도 성별 연령별 혼인비율

자료	MSR_rmar_f.xls MSR_rmar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2. 혼인율\1. 성별, 연령별 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 ③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율

자료	MSR_rmar_e1_f.xls MSR_rmar_e2_f.xls MSR_rmar_e3_f.xls MSR_rmar_e1_m.xls MSR_rmar_e2_m.xls MSR_r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2.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e1 : 고등학교, e2 : 고등학교, e3 : 대학교육 이상) 단, 1991~1992년의 경우 인구동태자료 및 인구모수자료에서 e1은 중학교 교육 미만, e2는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비율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및 3.2 인구모수자료 참고)

④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비율

자료	MSR_rmar_o1_f.xls MSR_rmar_o2_f.xls MSR_rmar_o3_f.xls MSR_rmar_o4_f.xls MSR_rmar_o5_f.xls MSR_rmar_o6_f.xls MSR_rmar_o1_m.xls MSR_rmar_o2_m.xls MSR_rmar_o3_m.xls MSR_rmar_o4_m.xls MSR_rmar_o5_m.xls MSR_rmar_o6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2. 혼인율\3.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별(o1~o7)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는 무직(o7)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비율자료에서는 (o1~o6)까지의 자료를 계산하였다.

⑤ 시도 성별 연령별 무배우 혼인율

자료	MSR_rsmar_f
----	-------------

	MSR_rs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3. 무배우 혼인율\1. 성별, 연령별 무배우 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⑥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혼인율

자료	MSR_rsmar_e12_f.xls MSR_rsmar_e3_f.xls MSR_rsmar_e12_m.xls MSR_rs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3. 무배우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⑦ 시도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혼인율

자료	MSR_rnmar_f MSR_rn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4. 미혼인구 혼인율\1.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omar)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인구수(n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o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인구수(n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⑧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 혼인율

자료	MSR_rnmar_e12_f.xls MSR_rnmar_e3_f.xls MSR_rnmar_e12_m.xls MSR_rn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4. 미혼인구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 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omar)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수(n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o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수(n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⑨ 시도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혼인율

자료	MSR_rwmar_f MSR_rw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5. 사별인구 재혼인율\1.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인구수(w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인구수(w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⑩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율

자료	MSR_rwmar_e12_f.xls MSR_rwmar_e3_f.xls MSR_rwmar_e12_m.xls
----	------------------------------------------------------------------

	MSR_rw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5. 사별인구 재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수(w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w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㉑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율

자료	MSR_rdmар_f MSR_rdmар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6. 이혼인구 재혼인율\1.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수(d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인구수(d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㉒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율

자료	MSR_rdmар_e12_f.xls MSR_rdmар_e3_f.xls MSR_rdmар_e12_m.xls MSR_rdmар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6. 이혼인구 재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수(d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d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 (3) 시군구 자료 (MGV)

#### ① 시군구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비율

자료	MGR_rmpop_f.xls
	MGR_rspop_f.xls
	MGR_rnpop_f.xls
	MGR_rwpop_f.xls
	MGR_rdpop_f.xls
	MGR_rmpop_m.xls
	MGR_rspop_m.xls
	MGR_rnpop_m.xls
	MGR_rwpop_m.xls
	MGR_rdpop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1. 혼인상태비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 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혼인상태별(rmpop, rspop, rnpop, rwpop, rdpop)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분자로는 3.2 인구모수자료에서 계산된 시군구 혼인상태별 인구수를 사용하였고, 분모로는 역  
 시 3.2 인구모수자료에서 계산된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사용하였다.(rmpop : 유배우  
 인구비율, rspop : 무배우 인구비율, rnpop : 미혼 인구비율, rwpop : 사별 인구비율,  
 rdpop : 이혼인구비율)

#### ② 시군구 성별 연령별 혼인비율

자료	MGR_rmar_f.xls
	MGR_rmar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2. 혼인율\1. 성별, 연령별 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 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③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자료	MGR_rmar_e12_f.xls MGR_rmar_e3_f.xls MGR_rmar_e12_m.xls MGR_r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2.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e1 : 고등학교, e2 : 고등학교, e3 : 대학교육 이상) 단, 1991~1992년의 경우 인구동태자료 및 인구모수자료에서 e1은 중학교 교육 미만, e2는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비율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및 3.2 인구모수자료 참고)

④ 시군구 성별 연령별 무배우 혼인율

자료	MGR_rsmar_f MGR_rs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3. 무배우 혼인율\1. 성별, 연령별 무배우 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⑤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혼인율

자료	MGR_rsmar_e12_f.xls MGR_rsmar_e3_f.xls MGR_rsmar_e12_m.xls MGR_rs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3. 무배우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⑥ 시군구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혼인율

자료	MGR_rnmar_f MGR_rn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4. 미혼인구 혼인율\1.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omar)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인구수(n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초혼건수(o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미혼인구 인구수(n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⑦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 혼인율

자료	MGR_rnmar_e12_f.xls MGR_rnmar_e3_f.xls MGR_rnmar_e12_m.xls MGR_rnmar_e3_m.xls
----	----------------------------------------------------------------------------------------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4. 미혼인구 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 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omar)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수(n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초혼건수(o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인구수(n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⑧ 시군구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혼인율

자료	MGR_rwmar_f MGR_rwmar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5. 사별인구 재혼인율\1.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인구수(w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사별인구 인구수(w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⑨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율

자료	MGR_rwmar_e12_f.xls MGR_rwmar_e3_f.xls MGR_rwmar_e12_m.xls MGR_rwmar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5. 사별인구 재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수(wpop) (단위 : 천 명당)
--	--------------------------------------------------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 재혼인건수(w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별인구(w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⑩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율

자료	MGR_rdmар_f MGR_rdmар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6. 이혼인구 재혼인율\1.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수(d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인구 인구수(d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⑪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율

자료	MGR_rdmар_e12_f.xls MGR_rdmар_e3_f.xls MGR_rdmар_e12_m.xls MGR_rdmар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 1. 혼인\6. 이혼인구 재혼인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수(d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 재혼인건수(dmar)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인구(d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 3.3.2. 이혼 (D)

#### (1) 전국자료 (DNR)

##### ①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율

자료	DNR_rdiv_f.xls DNR_rdiv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1. 이혼율\1. 성별, 연령별 이혼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 ②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

자료	DNR_rdiv_e1_f.xls DNR_rdiv_e2_f.xls DNR_rdiv_e3_f.xls DNR_rdiv_e1_m.xls DNR_rdiv_e2_m.xls DNR_rdiv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1. 이혼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e1 : 고등학교, e2 : 고등학교, e3 : 대학교육 이상) 단, 1991~1992년의 경우 인구동태자료 및 인구모수자료에서 e1은 중학교 교육 미만, e2는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비율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및 3.2 인구모수자료 참고)

③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율

자료	DNR_rdiv_o1_f.xls DNR_rdiv_o2_f.xls DNR_rdiv_o3_f.xls DNR_rdiv_o4_f.xls DNR_rdiv_o5_f.xls DNR_rdiv_o6_f.xls DNR_rdiv_o1_m.xls DNR_rdiv_o2_m.xls DNR_rdiv_o3_m.xls DNR_rdiv_o4_m.xls DNR_rdiv_o5_m.xls DNR_rdiv_o6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1. 이혼율\3.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별(o1~o7)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 자료에서는 무직(o7)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비율자료에서는 (o1~o6)까지의 자료를 계산하였다.

④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자료	DNR_rmdiv_f.xls DNR_rmdiv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2. 유배우 이혼율\1.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⑤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이혼율

자료	DNR_rmdiv_e12_f.xls DNR_rmdiv_e3_f.xls DNR_rmdiv_e12_m.xls DNR_rmdiv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2. 유배우 이혼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 \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⑥ 전국 이혼종류별 이혼율

자료	DNR_ragdiv_f DNR_ragdiv_m DNR_rctdiv_f DNR_rctdiv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3. 이혼종류별 이혼율\1. 전국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종류별(협의 이혼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 ctdiv)
	세분류 협의이혼비율: ragdiv 재판에 의한 이혼비율: rctdiv
정의	분자 : 전국 이혼종류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이혼종류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⑦ 전국 이혼사유 6별 이혼율

자료	DNR_rk1div2000_f DNR_rk1div2000_m DNR_rk2div2000_f
----	----------------------------------------------------------

	DNR_rk2div2000_m DNR_rk3div2000_f DNR_rk3div2000_m DNR_rk4div2000_f DNR_rk4div2000_m DNR_rk5div2000_f DNR_rk5div2000_m DNR_rk6div2000_f DNR_rk6div2000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율\1. 이혼사유6별 이혼율\1. 전국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6div)	
	세분류	배우자 부정 이혼비율: rk1div 정신 육체적 학대 이혼비율: rk2div 가족 간 불화 이혼비율: rk3div 경제문제 이혼비율: rk4div 성격차이 이혼비율: rk5div 건강문제 이혼비율: rk6div
정의	분자 : 전국 이혼사유 6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이혼사유 6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이혼사유 분류 기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참고)

㉔ (추가분석) 전국 이혼사유 5별 이혼율

자료	DNR_rk1div_f DNR_rk1div_m DNR_rk2div_f DNR_rk2div_m DNR_rk3div_f DNR_rk3div_m DNR_rk4div_f DNR_rk4div_m DNR_rk5div_f DNR_rk5div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율\2. 이혼사유5별 이혼율\1. 전국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5div)	
	세분류	부부불화 이혼비율: rk1div 가족간불화 이혼비율: rk2div 건강문제 이혼비율 : rk3div 경제문제 이혼비율: rk4div 기타 이혼비율: rk5div
정의	분자 : 전국 이혼사유 5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이혼사유 4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혼사유 분류 기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참고)

## (2) 시도자료 (DSR)

### ①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율

자료	DSR_rdiv_f.xls DSR_rdiv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1. 이혼율\1. 성별, 연령별 이혼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시도 모수자료에서는 울산시 자료를 1997년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비율자료에서 또한 울산시의 경우 1997년부터 계산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모수자료 설명 참고, 울산시 자료가 1997년부터 계산된 것은 이하 모든 시도 비율자료에 해당)

### ②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

자료	DSR_rdiv_e1_f.xls DSR_rdiv_e2_f.xls DSR_rdiv_e3_f.xls DSR_rdiv_e1_m.xls
----	----------------------------------------------------------------------------------

	DSR_rdiv_e2_m.xls DSR_rdiv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1. 이혼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e1 : 고등학교, e2 : 고등학교, e3 : 대학교육 이상) 단, 1991~1992년의 경우 인구동태자료 및 인구모수자료에서 e1은 중학교 교육 미만, e2는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비율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및 3.2 인구모수자료 참고)

③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율

자료	DSR_rdiv_o1_f.xls DSR_rdiv_o2_f.xls DSR_rdiv_o3_f.xls DSR_rdiv_o4_f.xls DSR_rdiv_o5_f.xls DSR_rdiv_o6_f.xls DSR_rdiv_o1_m.xls DSR_rdiv_o2_m.xls DSR_rdiv_o3_m.xls DSR_rdiv_o4_m.xls DSR_rdiv_o5_m.xls DSR_rdiv_o6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1. 이혼율\3.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직업별(o1~o7)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

의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 자료에서는 무직(o7)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비율자료에서는 (o1~o6)까지의 자료를 계산하였다.

④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자료	DSR_rmdiv_f.xls DSR_rmdiv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2. 유배우 이혼율\1.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⑤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이혼율

자료	DSR_rmdiv_e12_f.xls DSR_rmdiv_e3_f.xls DSR_rmdiv_e12_m.xls DSR_rmdiv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2. 유배우 이혼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⑥ 시도 이혼종류별 이혼율

자료	DSR_ragdiv_f DSR_ragdiv_m
----	------------------------------

	DSR_rctdiv_f DSR_rctdiv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3. 이혼종류별 이혼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종류별(협의 이혼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 ctdiv)
	세분류 협의이혼비율: ragdiv 재판에 의한 이혼비율: rctdiv
정의	분자 : 시도 이혼종류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이혼종류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⑦ 시도 이혼사유 6별 이혼율

자료	DSR_rk1div2000_f DSR_rk1div2000_m DSR_rk2div2000_f DSR_rk2div2000_m DSR_rk3div2000_f DSR_rk3div2000_m DSR_rk4div2000_f DSR_rk4div2000_m DSR_rk5div2000_f DSR_rk5div2000_m DSR_rk6div2000_f DSR_rk6div2000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율\1. 이혼사유6별 이혼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6div)
	세분류 배우자 부정 이혼비율: rk1div 정신 육체적 학대 이혼비율: rk2div 가족 간 불화 이혼비율: rk3div 경제문제 이혼비율: rk4div 성격차이 이혼비율: rk5div 건강문제 이혼비율: rk6div
정의	분자 : 시도 이혼사유 6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	-------------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이혼사유 6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혼사유 분류 기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참고)

⑧ (추가분석) 시도 이혼사유 5별 이혼율

자료	DSR_rk1div_f DSR_rk1div_m DSR_rk2div_f DSR_rk2div_m DSR_rk3div_f DSR_rk3div_m DSR_rk4div_f DSR_rk4div_m DSR_rk5div_f DSR_rk5div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율\2. 이혼사유5별 이혼율\2. 시도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4div)	
	세분류	부부불화 이혼율 : rk1div 가족간불화 이혼율 : rk2div 건강문제 이혼율 : rk3div 경제문제 이혼율 : rk4div 기타 이혼율 : rk5div
정의	분자 : 시도 이혼사유 4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이혼사유 4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혼사유 분류 기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참고)

(3) 시군구 자료 (DGR)

①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율

자료	DGR_rdiv_f.xls DGR_rdiv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1. 이혼율\1. 성별, 연령별 이혼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

	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②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

자료	DGR_rdiv_e12_f.xls DGR_rdiv_e3_f.xls DGR_rdiv_e12_m.xls DGR_rdiv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1. 이혼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e1 : 고등학교, e2 : 고등학교, e3 : 대학교육 이상) 단, 1991~1992년의 경우 인구동태자료 및 인구모수자료에서 e1은 중학교 교육 미만, e2는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비율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및 3.2 인구모수자료 참고)

③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자료	DGR_rmdiv_f.xls DGR_rmdiv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2. 유배우 이혼율\1.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

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④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이혼율

자료	DGR_rmdiv_e12_f.xls DGR_rmdiv_e3_f.xls DGR_rmdiv_e12_m.xls DGR_rmdiv_e3_m.xls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2. 유배우 이혼율\2.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율 \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교육수준별(e1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spop)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⑤ 시군구 이혼종류별 이혼율

자료	DGR_ragdiv_f DGR_ragdiv_m DGR_rctdiv_f DGR_rctdiv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3. 이혼종류별 이혼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종류별(협의 이혼 agdiv, 재판에 의한 이혼 ctdiv)
	세분류 협의이혼비율: ragdiv 재판에 의한 이혼비율: rctdiv
정의	분자 : 시군구 이혼종류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이혼종류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⑥ 시군구 이혼사유 6별 이혼율

자료	DGR_rk1div2000_f DGR_rk1div2000_m DGR_rk2div2000_f DGR_rk2div2000_m DGR_rk3div2000_f DGR_rk3div2000_m DGR_rk4div2000_f DGR_rk4div2000_m DGR_rk5div2000_f DGR_rk5div2000_m DGR_rk6div2000_f DGR_rk6div2000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율\1. 이혼사유6별 이혼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6div)	
	세분류	배우자 부정 이혼비율 : rk1div 정신 육체적 학대 이혼비율: rk2div 가족 간 불화 이혼비율: rk3div 경제문제 이혼비율: rk4div 성격차이 이혼비율: rk5div 건강문제 이혼비율: rk6div
정의	분자 : 시군구 이혼사유 6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이혼사유 6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혼사유 분류 기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참고)

⑦ (추가분석) 시군구 이혼사유 5별 이혼율

자료	DGR_rk1div_f DGR_rk1div_m DGR_rk2div_f DGR_rk2div_m DGR_rk3div_f DGR_rk3div_m DGR_rk4div_f DGR_rk4div_m
----	------------------------------------------------------------------------------------------------------------------------------

	DGR_rk5div_f DGR_rk5div_m
위치	3. 인구비율자료\2. 이혼\4. 이혼사유별 이혼율\2. 이혼사유5별 이혼율\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성별(m, f), 연령(15~74세는 5세 단위, 14세 미만 및 75세 이상은 각각 합산, 연령미상은 00으로 표기-A14, 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00, A00), 이혼사유별(k1div~k4div)
	세분류 부부불화 이혼율 : rk1div 가족간불화 이혼율 : rk2div 건강문제 이혼율 : rk3div 경제문제 이혼율 : rk4div 기타 이혼율 : rk5div
정의	분자 : 시군구 이혼사유 5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이혼사유 5별 성별 연령별 이혼건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혼사유 분류 기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3.1 인구동태자료 참고)

### 3.3.3. 출생 (B)

#### (1) 전국자료 (BNR)

##### ①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률

자료	BNR_rbir_f_all BNR_rbir_f_dau BNR_r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1. 출생률\1. 모 연령별 출생률\1. 전국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
정의	분자 :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 ②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률

자료	BNR_rbir_e1_f_all BNR_rbir_e1_f_dau BNR_rbir_e1_f_son
----	-------------------------------------------------------------

	BNR_rbir_e2_f_all BNR_rbir_e2_f_dau BNR_rbir_e2_f_son BNR_rbir_e3_f_all BNR_rbir_e3_f_dau BNR_r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1.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생률\1. 전국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③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출생률

자료	BNR_rbir_o1_f_all BNR_rbir_o1_f_dau BNR_rbir_o1_f_son BNR_rbir_o2_f_all BNR_rbir_o2_f_dau BNR_rbir_o2_f_son BNR_rbir_o3_f_all BNR_rbir_o3_f_dau BNR_rbir_o3_f_son BNR_rbir_o4_f_all BNR_rbir_o4_f_dau BNR_rbir_o4_f_son BNR_rbir_o5_f_all BNR_rbir_o5_f_dau BNR_rbir_o5_f_son BNR_rbir_o6_f_all BNR_rbir_o6_f_dau BNR_rbir_o6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1. 출생률\3. 모 연령별 직업별 출생률\1. 전국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직업별(o1~o7)

정의	분자 :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	-----------------------------------------------------------------------------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는 무직(o7)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비율자료에서는 o1~o6까지의 자료를 계산하였다.

④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률

자료	BNR_rmbir_f_all BNR_rmbir_f_dau BNR_rm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중 출생률\1. 전국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정의	분자 :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⑤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률

자료	BNR_rmbir_e12_f_all BNR_rmbir_e12_f_dau BNR_rmbir_e12_f_son BNR_rmbir_e3_f_all BNR_rmbir_e3_f_dau BNR_rm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률\1. 전국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

(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⑥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률

자료	BNR_rsbir_f_all BNR_rsbir_f_dau BNR_rs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3. 혼인 외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외 출생률\1. 전국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정의	분자 :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⑦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률

자료	BNR_rsbir_e12_f_all BNR_rsbir_e12_f_dau BNR_rsbir_e12_f_son BNR_rsbir_e3_f_all BNR_rsbir_e3_f_dau BNR_rs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3. 혼인 외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률\1. 전국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분자 :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 분모 :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전국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전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 (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2) 시도별 자료 (BSR)

①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률

자료	BSR_rmbir_f_all BSR_rmbir_f_dau BSR_rm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중 출생률\2. 시도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정의	분자 :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②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률

자료	BSR_rmbir_e12_f_all BSR_rmbir_e12_f_dau BSR_rmbir_e12_f_son BSR_rmbir_e3_f_all BSR_rmbir_e3_f_dau BSR_rm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률\2. 시도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③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출생률

자료	BSR_rbir_o1_f_all BSR_rbir_o1_f_dau BSR_rbir_o1_f_son BSR_rbir_o2_f_all BSR_rbir_o2_f_dau BSR_rbir_o2_f_son BSR_rbir_o3_f_all BSR_rbir_o3_f_dau
----	----------------------------------------------------------------------------------------------------------------------------------------------------------------------

	BSR_rbir_o3_f_son BSR_rbir_o4_f_all BSR_rbir_o4_f_dau BSR_rbir_o4_f_son BSR_rbir_o5_f_all BSR_rbir_o5_f_dau BSR_rbir_o5_f_son BSR_rbir_o6_f_all BSR_rbir_o6_f_dau BSR_rbir_o6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3. 혼인 외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외 출생률\2. 시도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직업별(o1~o7)
정의	분자 :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직업별 출생아 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직업별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는 무직(o7)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비율자료에서는 o1~o6까지의 자료를 계산하였다.

④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률

자료	BSR_rmbir_f_all BSR_rmbir_f_dau BSR_rm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중 출생률\2. 시도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정의	분자 :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⑤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률

자료	BSR_rmbir_e12_f_all BSR_rmbir_e12_f_dau
----	--------------------------------------------

	BSR_rmbir_e12_f_son BSR_rmbir_e3_f_all BSR_rmbir_e3_f_dau BSR_rm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률\2. 시도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⑥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률

자료	BSR_rsbir_f_all BSR_rsbir_f_dau BSR_rs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3. 혼인 외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외 출생률\2. 시도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정의	분자 :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⑦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률

자료	BSR_rsbir_e12_f_all BSR_rsbir_e12_f_dau BSR_rsbir_e12_f_son BSR_rsbir_e3_f_all BSR_rsbir_e3_f_dau BSR_rs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3. 혼인 외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률\2. 시도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분자 :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 분모 :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도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

### (3) 시군구 자료 (BGR)

#### ①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률

자료	BGR_rmbir_f_all BGR_rmbir_f_dau BGR_rm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중 출생률\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정의	분자 :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출생아 수 자료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 ②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률

자료	BGR_rmbir_e12_f_all BGR_rmbir_e12_f_dau BGR_rmbir_e12_f_son BGR_rmbir_e3_f_all BGR_rmbir_e3_f_dau BGR_rm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률\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③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률

자료	BGR_rmbir_f_all BGR_rmbir_f_dau BGR_rm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중 출생률\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정의	분자 :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중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④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률

자료	BGR_rmbir_e12_f_all BGR_rmbir_e12_f_dau BGR_rmbir_e12_f_son BGR_rmbir_e3_f_all BGR_rmbir_e3_f_dau BGR_rm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2. 혼인 중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률\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정의	분자 :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m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중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e12)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⑤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률

자료	BGR_rsbir_f_all BGR_rsbir_f_dau BGR_rsbir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3. 혼인 외 출생률\1. 모 연령별 혼인 외 출생률\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정의	분자 :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혼인 외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무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⑥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률

자료	BGR_rsbir_e12_f_all BGR_rsbir_e12_f_dau BGR_rsbir_e12_f_son BGR_rsbir_e3_f_all BGR_rsbir_e3_f_dau BGR_rsbir_e3_f_son
위치	3. 인구비율자료\3. 출생\3. 혼인 외 출생률\2. 모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률\3. 시군구별 자료
분류	자녀성별(son, daughter, 전체), 연령(15~49세, 5세 단위-A1519,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교육수준별(e1, e2, e3)
출처	분자 :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 분모 :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spop) (단위 : 천 명당)

3.1 인구동태자료에서의 시군구 어머니 (출산)연령별 자녀성별 교육수준별 혼인 외 출생아 수를 분자로, 3.2 인구모수자료에서의 시군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무배우 인구수를 분모로 하여 천 명당 비율을 계산하였다. 단, 인구모수자료에서 교육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대학교육 이하 및 대학교육 이상(e3)로 구분되었기에 비율자료 또한 e12와 e3로 계산하였다.

## 4. 출생, 혼인, 이혼 등 인구변동 요인들의 변화요인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1991년 이후 출산율의 장기적인 변화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연령별 유배우 인구 비율의 변화,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연령별 무배우 출산율의 변화 등으로 분해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왜 합계출산율이 변화하였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 분석은 전체여성고 고학력·저학력 여성 각각에 대해 수행할 것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합계출산율 감소가 대부분 유배우 인구비율의 감소에 의해 설명되며,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유배우 여성비율이 왜 장기적으로 하락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연령 및 학력별로 미혼여성, 이혼여성, 사별여성의 비율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유배우 여성비율의 감소가 거의 전적으로 미혼여성의 증가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혼인의 감소가 유배우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유배우 비율이 감소한 요인이 출산율의 결정요인과 무관하며, 현재의 출산율 제고정책만으로는 유배우 비율을 제고하기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4.1. 합계출산율 변화의 분해 방법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세-49세)에 있는 각 세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연령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각 세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유배우 여성 출생아 수와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연도(t)의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quad TFR_t = \sum_{a=15}^{49} \left[ \left( \frac{M_t^a}{P_t^a} \right) \left( \frac{B_{M,t}^a}{M_t^a} \right) + \left( 1 - \frac{M_t^a}{P_t^a} \right) \left( \frac{B_{N,t}^a}{P_t^a - M_t^a} \right) \right] = \sum_{a=15}^{49} (m_t^a f_{m,t}^a + (1 - m_t^a) f_{n,t}^a)$$

여기에서 각 부호와 첨자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t: 연도, a: 연령, TFR: 합계출산율, P: 여성인구, M: 유배우 여성인구, B<sub>M</sub>: 유배우 여성 출산아 수, B<sub>N</sub>: 무배우 여성 출산아 수, m: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 f<sub>m</sub>: 유배우 출산율, f<sub>n</sub>: 무배우 출산율.

위의 식은 합계출산율의 변화가 각 연령의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m), 각 연령 유배우 출산율(f<sub>m</sub>), 각 연령 무배우 출산율(f<sub>n</sub>)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출발점은 이 각각의 요인들이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변화의 분해는 특정한 요인이 기준 시점으로부터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변화와 실제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전체 가임연령의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편의상 기준 시점을 t=0로, 비교 시점을 t=T라고 하자. T기의 실제 합계출산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TFR_T = \sum_{a=15}^{49} (m_T^a f_{m,T}^a + (1 - m_T^a) f_{n,T}^a)$$

그리고 기준 시점(t=0)의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 $m_0^a$ )이 T기까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3) TFR_T(m) = \sum_{a=15}^{49} (m_0^a f_{m,T}^a + (1 - m_0^a) f_{n,T}^a)$$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여한 몫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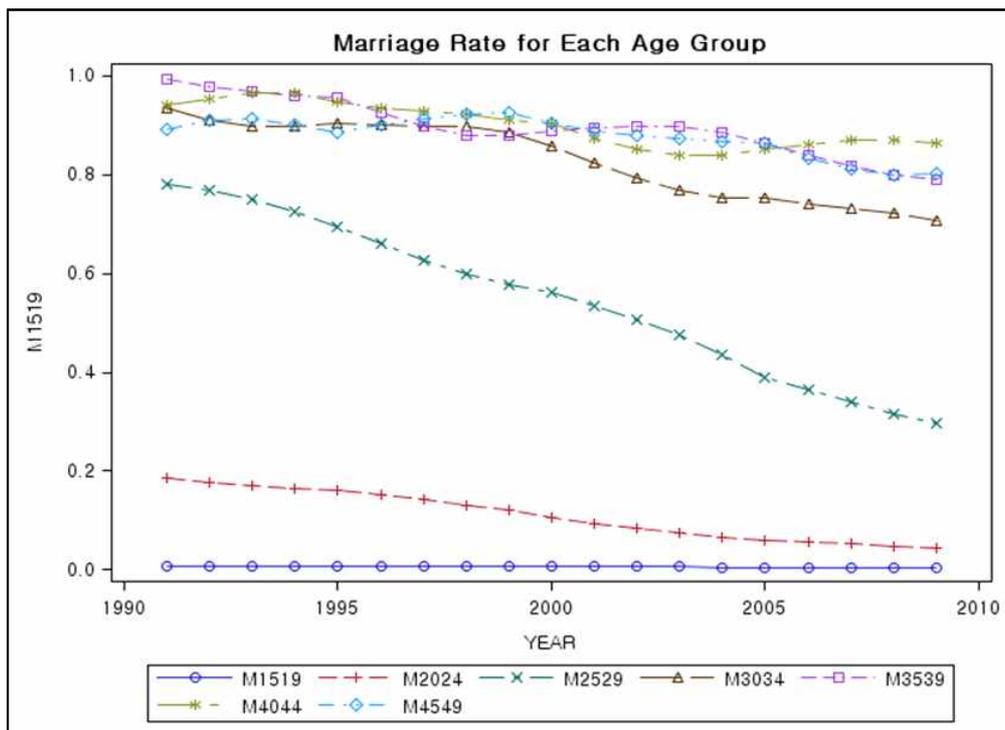
$$(4) \Delta TFR(m) = TFR_T - TFR_T(m)$$

그리고 여성인구 비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5) \Delta TFR(m_0) / \Delta TFR = [TFR_T - TFR_T(m_0)] \times 100 / [TFR_T - TFR_0]$$

이와 같은 분해는 전체 가임연령 여성의 유배우 비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 유배우

<도표 4-1>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인구비율 변화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25-29세 여성 가운데 유배우 비율 변화가 가져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 $t=0$ ) 25-29세 인구 유배우 비율 ( $m_0^{25-29}$ )이 T기까지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 $TFR_T(m_0^{25-29})$ ]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연령 유배우 인구비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 [ $\Delta TFR_T(m_0^{25-29})$ ,  $\Delta TFR_T(m_0^{25-29})/\Delta TFR$  등]를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유배우 출산율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4.2. 전체 여성 합계출산율 분해요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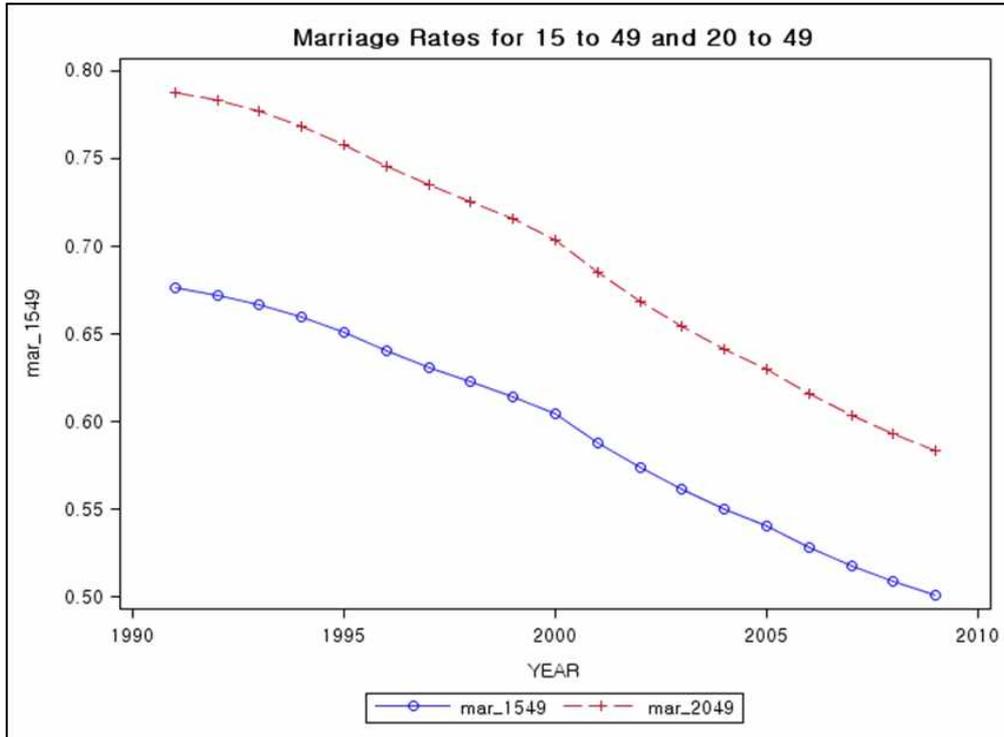
<식 1>이 보여주듯이 합계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은 연령별 유배우 여성의 비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무배우 출산율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혼외출산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배우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주로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과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두 요인이 1991년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표 4-1>은 1991년 이후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컨대 M2024는 20-24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을 나타낸다. 20-모든 가임연령에 대해 유배우 여성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25-29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매우 빠르게 하락하여 1991년 78.1%에서 2009년 29.7%로 감소하였다. 1991년에는 20대 초반 여성 다섯 가운데 하나가 유배우 여성이었으나 2009년에는 극소수(4.3%)의 여성만 2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30대 초반 여성의 유배우 비율도 같은 기간 93.4%에서 70.6%로 하락하였다. 1991년에는 30대 후반 여성 거의 대부분(99.3%)이 유배우 여성이었으나 2009년에는 다섯 중 한 명이 무배우 여성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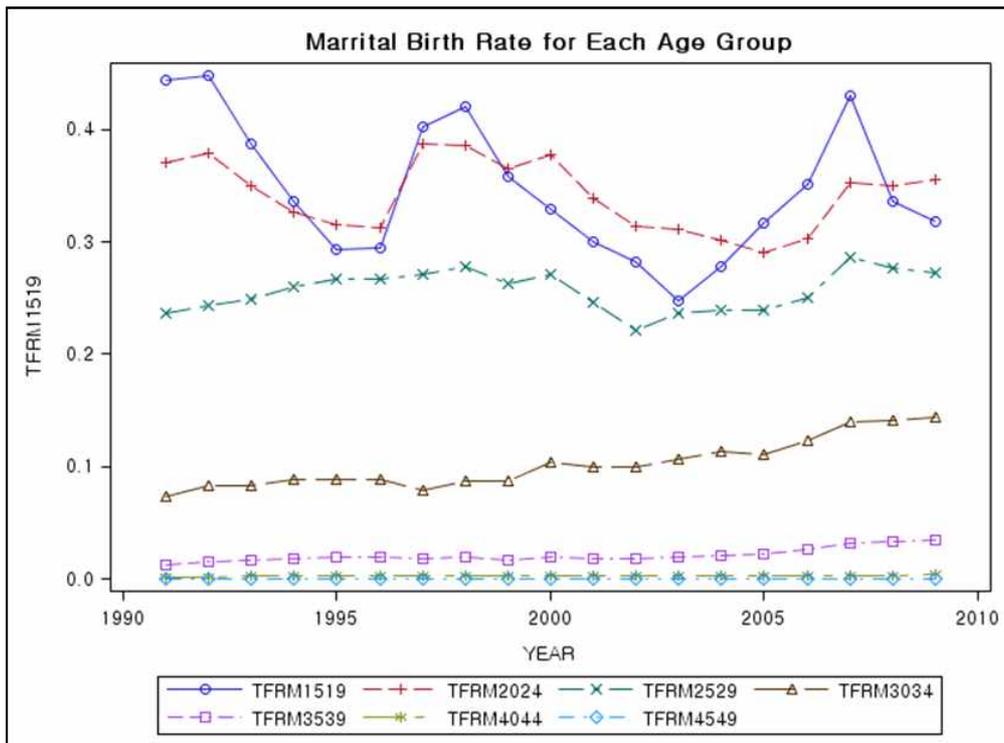
<도표 4-2>은 전체 가임연령 여성들의 유배우 비율을 종합적인 보여주기 위하여 계산한 지표를 보여준다. 이하에는 이를 “유배우 비율 지표”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각 연령별 유배우 비율을 모두 더한 뒤 연령집단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예컨대 15-49세 여성 유배우 비율의 지표(도표에는 mar\_1549로 표시되어 있음)는 각 5세 구간의 유배우 비율을 모두 더한 뒤 연령집단의 수인 7로 나누어 얻을 수 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 지표는 15세 이후 49세까지 기간 동안 유배우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의 비율을 보여준다. 1991년 이후에는 20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20-49세 연령의 유배우 비율을 함께 계산하였다. 도표에 나타난 결과는 매우 가파른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를 보여준다. 1991년의 20세 여성은 49세까지의 기간 동안 약 79%의 기간을 혼인상태에서 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58%로 감소하였다. 15-49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 지표는 68%에서 50%로 감소하였다.

<도표 4-3>은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컨대 TFRM2024는 20-24세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을 나타낸다. 젊은 유배우 여성들의 출산율은 상당한 정도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추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20대

<도표 4-2> 15-49세 및 20-49세 여성 유배우 비율 지표



<도표 4-3> 유배우 여성 연령별 출생률



<도표 4-4> 1991년 혼인패턴의 유지되는 경우의 유배우 합계출산율



중반 이후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예컨대 20대 후반 유배우 여성 1000명 당 출생 수는 1991년 237명에서 2009년 273명으로 증가하였다. 30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이 보다 더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여준다.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1000명 당 출생 수는 74에서 143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30대 후반 유배우 여성 1000명 당 출생 수는 13에서 35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도표 4-4>는 1991년의 혼인패턴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궁극적으로 혼인한 여성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보여준다. 이를 이하에서는 유배우 합계출산율(Marital Total Fertility Rate: MTFR)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 \quad MTFR_t = \theta^{15} \sum_{a=15}^{49} \left( \frac{B_t^a}{M_t^a} \right) + \theta^{16} \sum_{a=16}^{49} \left( \frac{B_t^a}{M_t^a} \right) + \dots + \theta^{48} \sum_{a=48}^{49} \left( \frac{B_t^a}{P_t^a} \right) + \theta^{49} \left( \frac{B_t^{49}}{P_t^{49}} \right)$$

이 식에서  $\theta^a$ 는 궁극적으로 혼인하는 여성들 가운데 a세에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가임연령 전체에 대해 합하면 1이 된다( $\sum_{a=15}^{49} \theta^a = 1$ ). 여기서 이 비율은 1991년의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이 비율이 2009년까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고정된 연령별 혼인확률과 각 연도의 유배우 출산율을 <식 6>에 적용하여 이 지표를 계산하였다. 실제의 계산에서는 5세 단위의 혼인확률과 유배우 출산율이 이용

<표 4-1>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 분해

	1991-2005		2005-2009		1991-2009	
	△TFR 기여	기여도 (%)	△TFR 기여	기여도 (%)	△TFR 기여	기여도 (%)
전체 유배우 비율	-0.76236	123.50	-0.19590	-260.09	-1.10397	203.72
15-19세 유배우 비율	-0.00309	5.00	-0.00064	-0.85	-0.00366	0.68
20-24세 유배우 비율	-0.18592	30.12	-0.02661	-35.33	-0.25417	46.90
25-29세 유배우 비율	-0.46391	75.15	-0.12585	-167.09	-0.65636	121.12
30-34세 유배우 비율	-0.09731	15.76	-0.03204	-42.54	-0.15875	29.30
35-39세 유배우 비율	-0.11702	1.90	-0.01087	-14.43	-0.03003	5.54
40-44세 유배우 비율	-0.00067	0.11	0.00015	0.19	-0.00081	0.15
45-49세 유배우 비율	-0.00006	0.01	-0.00002	-0.03	-0.00000	0.00
전체 유배우 출생률	0.16083	-26.05	0.23503	312.04	0.38946	-71.87
15-19세 유배우 출생률	-0.00253	4.10	0.00002	0.03	-0.00217	0.40
20-24세 유배우 출생률	-0.02353	3.81	0.01412	18.75	-0.00330	0.61
25-29세 유배우 출생률	0.00376	-0.61	0.05121	67.99	0.05414	-10.00
30-34세 유배우 출생률	0.13827	-22.40	0.11529	153.07	0.24516	-45.24
35-39세 유배우 출생률	0.04096	-6.63	0.04951	65.73	0.08708	-16.07
40-44세 유배우 출생률	0.00391	-0.63	0.00496	6.59	0.00902	-1.67
45-49세 유배우 출생률	-0.00030	0.05	-0.00007	-0.09	-0.00027	0.05
전체 무배우 출생률	-0.02013	3.26	0.00377	5.00	-0.01994	3.68

되었다. 계산의 결과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유배우 합계출산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0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했던 유배우 합계출산율은 2000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여 1991년 출산율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특히 2005년과 2007년 사이 유배우 출산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4.3. 전체 여성 합계출산율 분해 결과

위에서 살펴본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과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패턴은 1991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감소가 대부분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연령의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점을 고려할 때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비율 감소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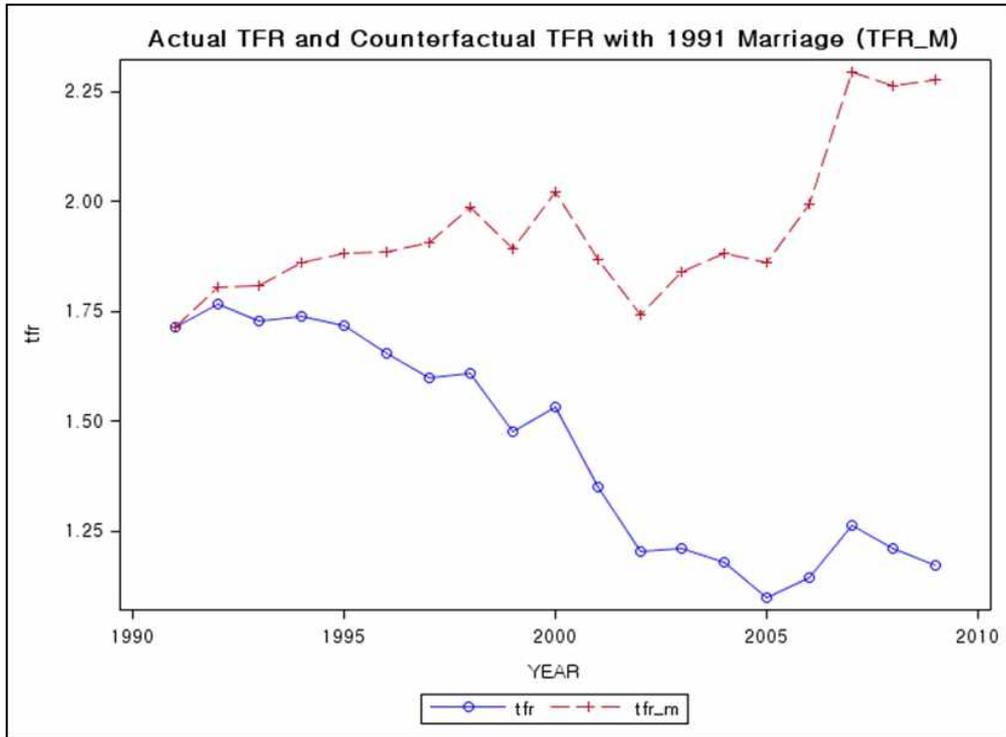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4.1절에서 소개한 방법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을 분해하였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약간 반등한 점을 고려하여 1991년-2009년 전 기간뿐만 아니라 1991년-2005년과 2005년-2009년 등 두 기간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 $\Delta$ TFR 기여”는 각 요인의 변화가 초래한 합계출산율 변화분을 의미한다. 예컨대 유배우 여성비율 변화의 기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식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지표가 양수라는 것은 해당요인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여도(%)”는 각 요인이 해당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변화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기간에 있어서 기여도가 음수라는 것은 해당요인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출산율이 감소했던 1991년~2005년 기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유배우 비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를 100% 이상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배우 출산율과 같은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었다면 유배우 비율의 변화는 해당 기간에 발생했던 실제 합계출산율의 감소보다 더 큰 폭의 출산율 감소를 초래했을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25-29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 감소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 및 30-34세 유배우 비율 감소는 각각 합계출산율 감소의 30%와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유배우 출산율의 기여도는 음수로 나타난다. 이는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유배우 비율 변화가 초래한 합계출산율 감소를 상당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이 1991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면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실제의 수준보다 0.16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0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는 합계출산율의 감소 폭을 상당 정도 줄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09년 사이 유배우 여성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을 거의 0.2 정도 낮추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유배우 출산율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유배우 비율 감소의 효과를 압도하였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20대 후반 여성 유배우 비율의 감소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도표 4-5> 실제 합계출산율과 1991년 유배우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방향으로 작용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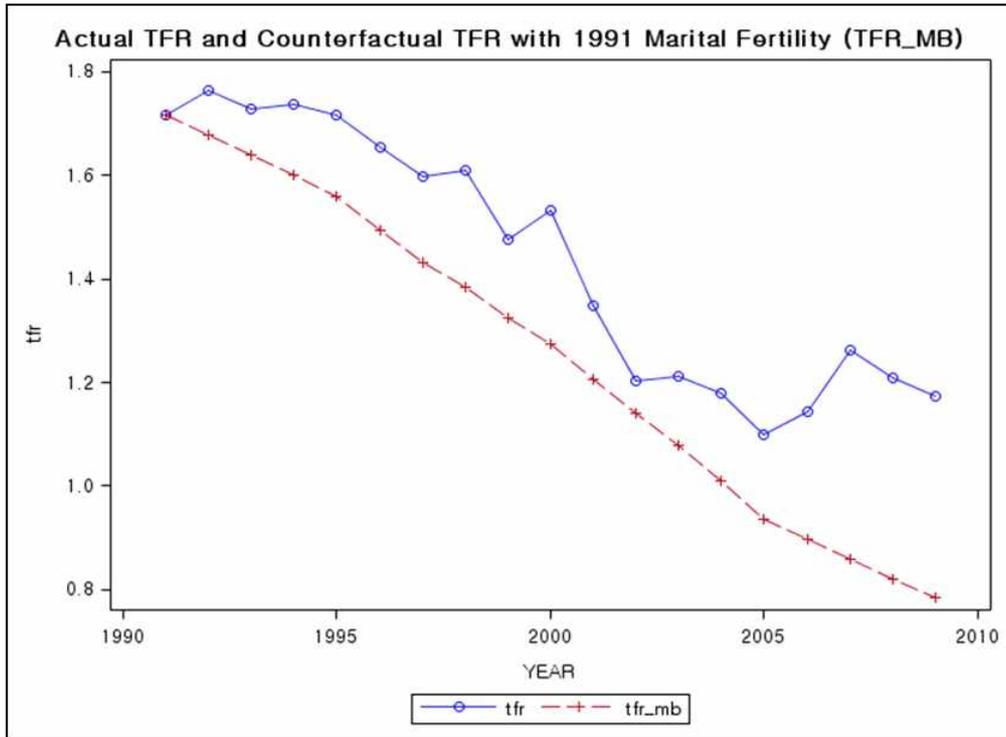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분석기간 초기에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통해 더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을 약간 더 낮추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 4-5>는 실제의 합계출산율(TFR)과 1991년의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TFR\_M)을 비교함으로써 위에서 수행한 분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제의 합계출산율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유배우 여성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합계출산율이 2005년경까지는 1991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이후 2009년까지는 거의 2.3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 4-6>은 실제의 합계출산율(TFR)과 1991년의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TFR\_MB)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상적인 합계출산율이 실제 합계출산율보다 낮으며, 그 격차는 특히 2005년 이후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가 없었다면 합계출산율은 실제보다 더 크게 떨어졌을 것이고, 특히 출산율이 반등했던 200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와 같은 추세로 출산율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전적으로 유배

<도표 4-6>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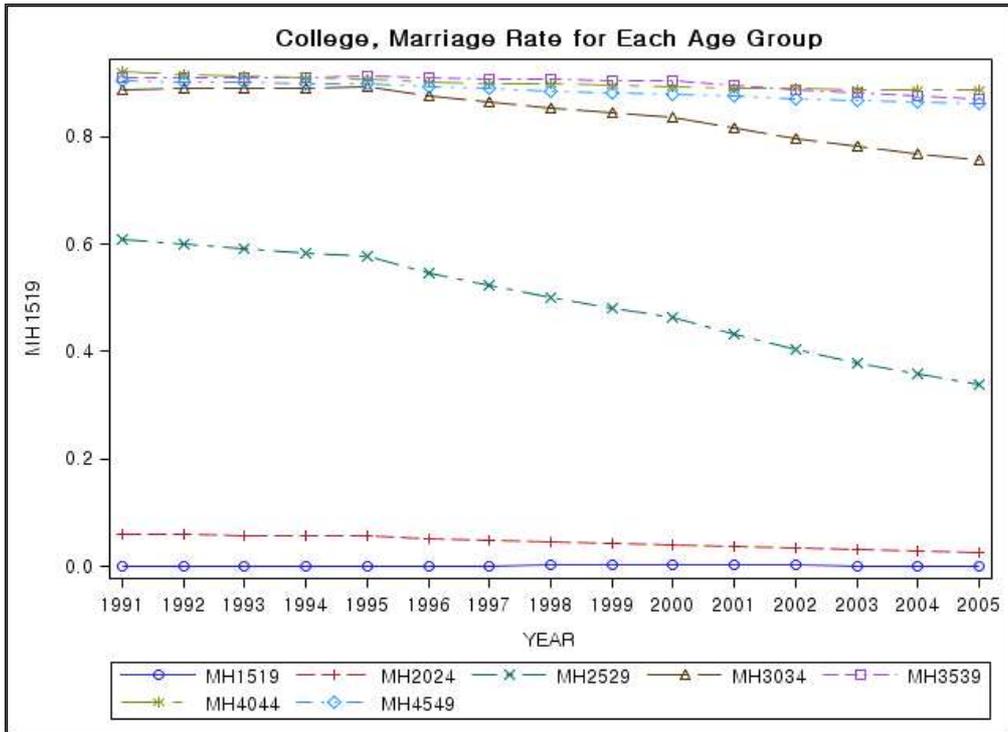
우 여성 비율의 하락에 의해 발생하였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비율 하락은 합계출산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둘째, 1991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출산율의 하락을 상당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30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상승은 합계출산율의 하락폭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 4.4.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 변화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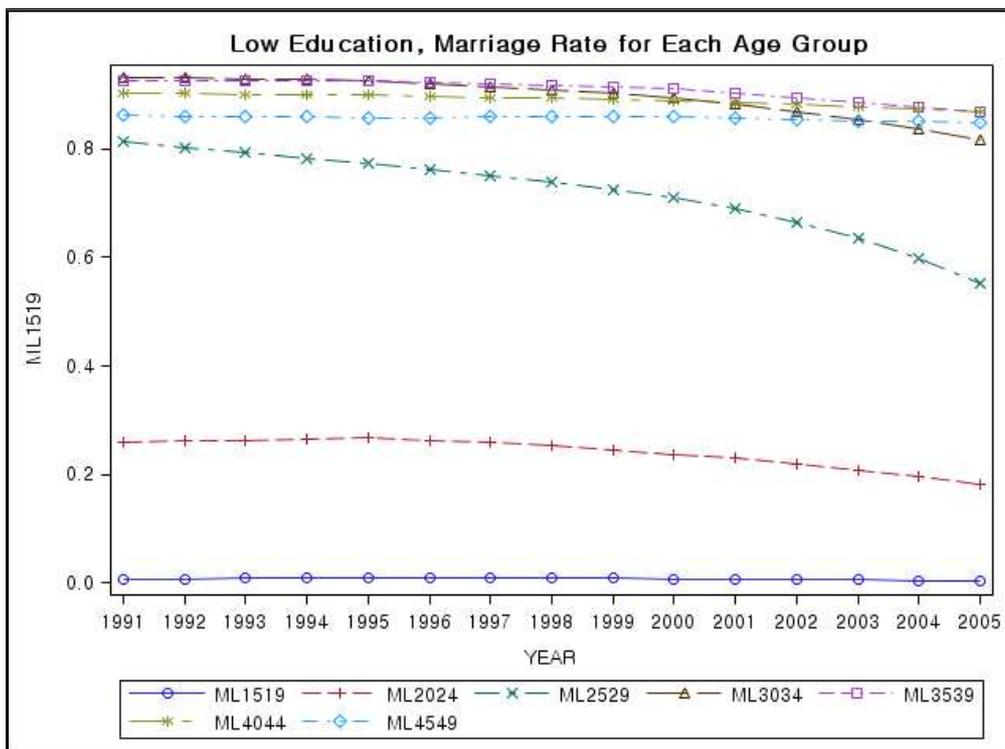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앞의 두 절에서 수행한 분석을 고학력(대학중퇴 이상) 및 저학력(고졸 이하) 여성에 대하여 각각 수행함으로써 학력별로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본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인구수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로서는 인구주택 센서스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해야만 한다. 그런데 아직 2010년 센서스의 원시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별 분석은 불가피하게 1991년-2005년 기간으로 제한되었다.

먼저 <도표 4-7>과 <도표 4-8>은 고학력 및 저학력 여성의 유배우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예컨대 MH2024와 ML2024는 각각 20-24세 고학력 및 저학력의 유배우 비율을 나타낸다. 학력을 구분하는 경우 연령별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전체 여성의 경우(도표 4-1)보다 더 완만하게 나타난다. 이는 15-49세 및 20-49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 지표를 학력별로 보여주는 <도표 4-9>와 <도표 4-10>에서 잘 나타난다. 전체여성의 경우 20-49세 유배우 비율 지표는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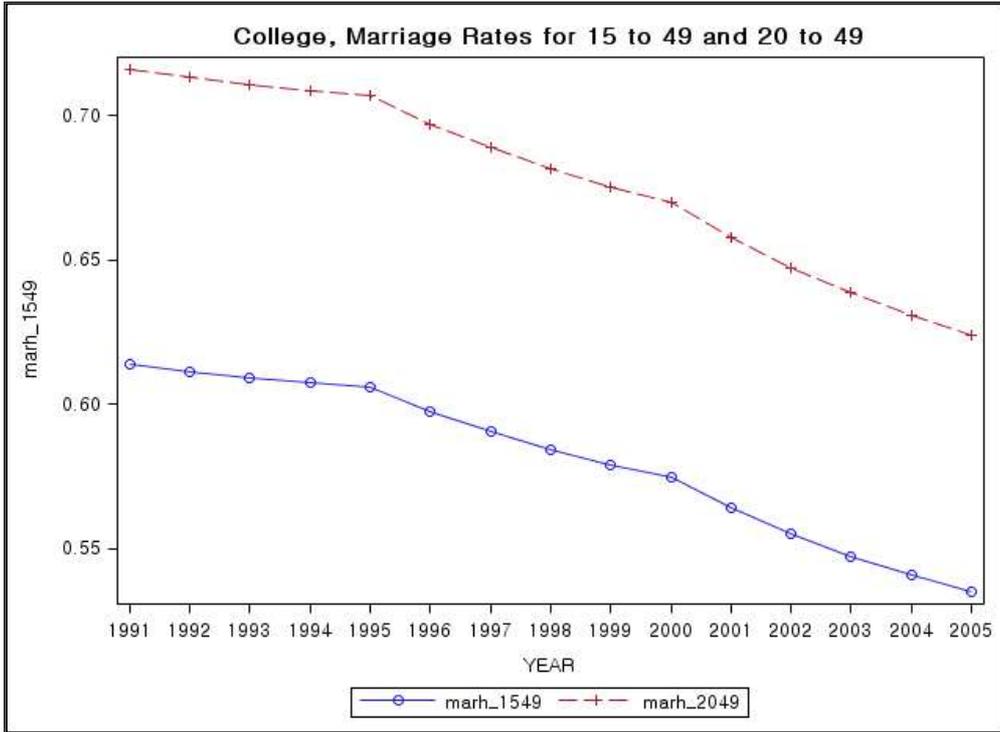
<도표 4-7> 대학 이상 학력 여성 유배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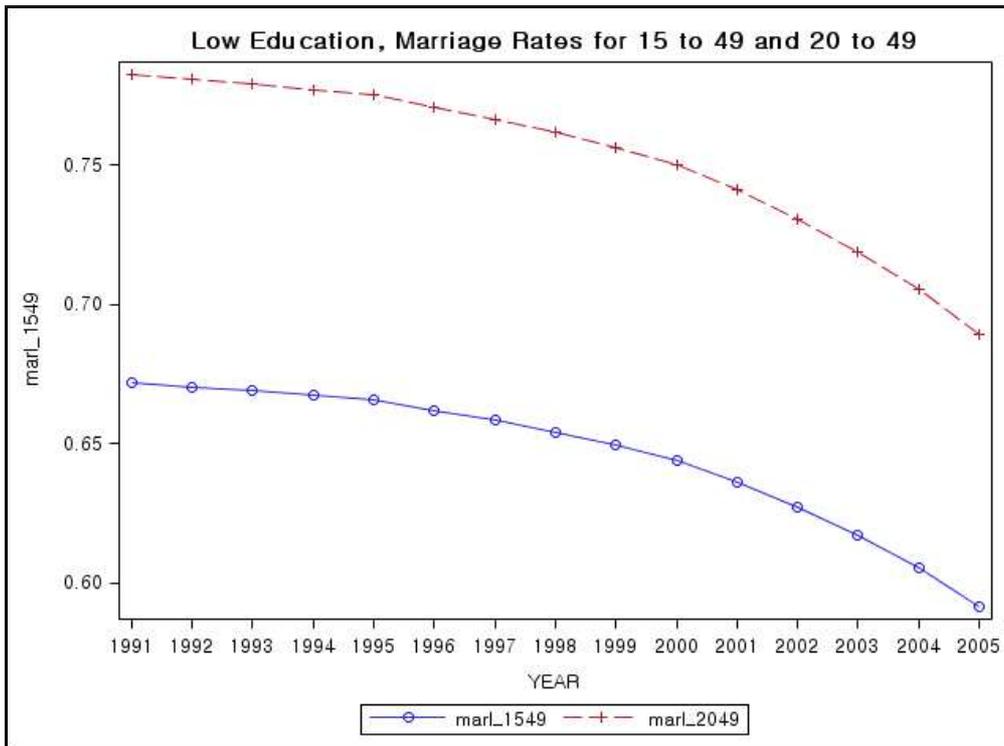
<도표 4-8> 고졸 이하 학력 여성 유배우 비율



<도표 4-9> 대학 이상 학력 여성 15-49세 및 20-49세 유배우 비율 지표



<도표 4-10> 고졸 이하 학력 여성 15-49세 및 20-49세 유배우 비율 지표



년 78.8%에서 2005년 63.0%로 약 16% 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를 학력별로 나누어 볼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고학력 여성의 유배우 비율 지표는 71.6%에서 62.4%로 약 9% 포인트 하락했으며, 저학력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78.2%에서 68.9%로 역시 9% 포인트 하락하였다.

전체여성의 경우 유배우 비율의 하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고학력자 비율의 장기적인 증가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에 비해 더 늦게 결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령별 유배우 비율이 낮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학력 여성비율의 증가는 유배우 비율 감소를 가져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이와 같은 고학력 여성 비율 변화의 효과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유배우 비율 감소가 더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표에 나타난 결과는 학력변화의 효과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유배우 비율의 감소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모두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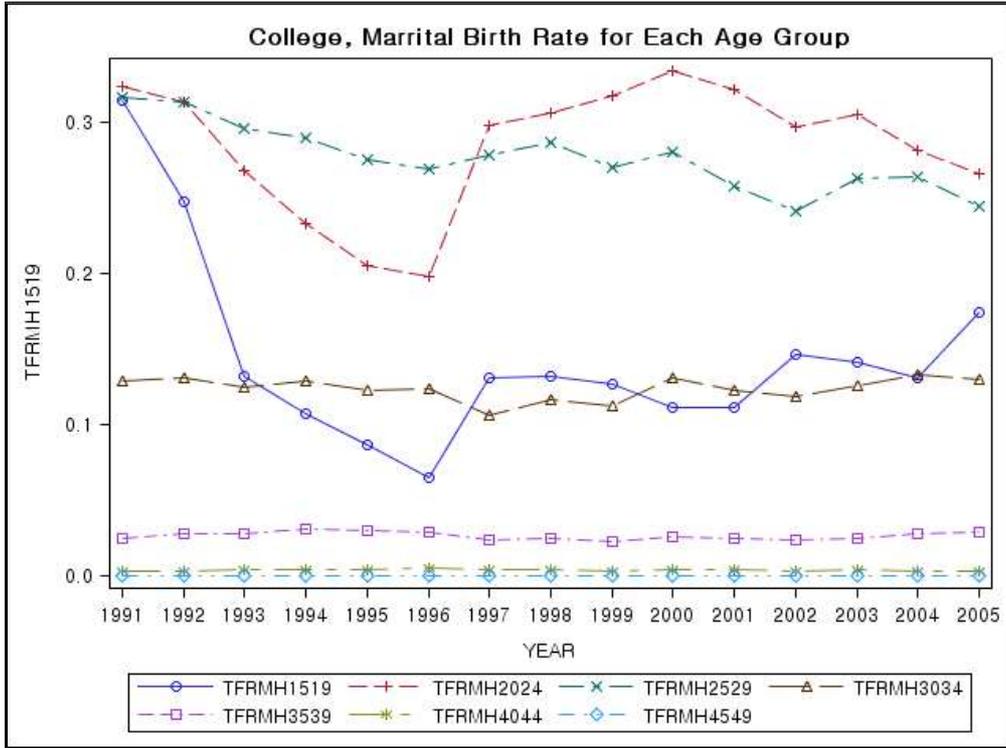
다음으로 학력별 유배우 출산율을 살펴보자. <도표 4-11>과 <도표 4-12>는 각각 고학력 및 저학력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를 보여준다. 예컨대 TFRMH2024와 TFRML2024는 각각 20-24세 고학력 및 저학력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을 나타낸다. 연령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배우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학력자의 경우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이 완만하게 하락하였고, 저학력자의 경우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이 1990년 중반 이후 서서히 하락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4-13>과 <도표 4-14>은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한 유배우 기대합계출산율 지표를 보여준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유배우 출산율이 1991년~1997년 다소 하락하다가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저학력 여성의 경우 유배우 출산율이 1990년대 말까지 상승하다가 2000년 이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두 학력 그룹 모두 1991년~2005년 유배우 기대합계출산율 지표 감소폭이 0.2 이하로 그다지 크지 않다. 요컨대 학력별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경우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는 달리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의 감소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그러나 그 감소폭으로 보아 합계출산율 감소의 비교적 작은 부분만을 설명할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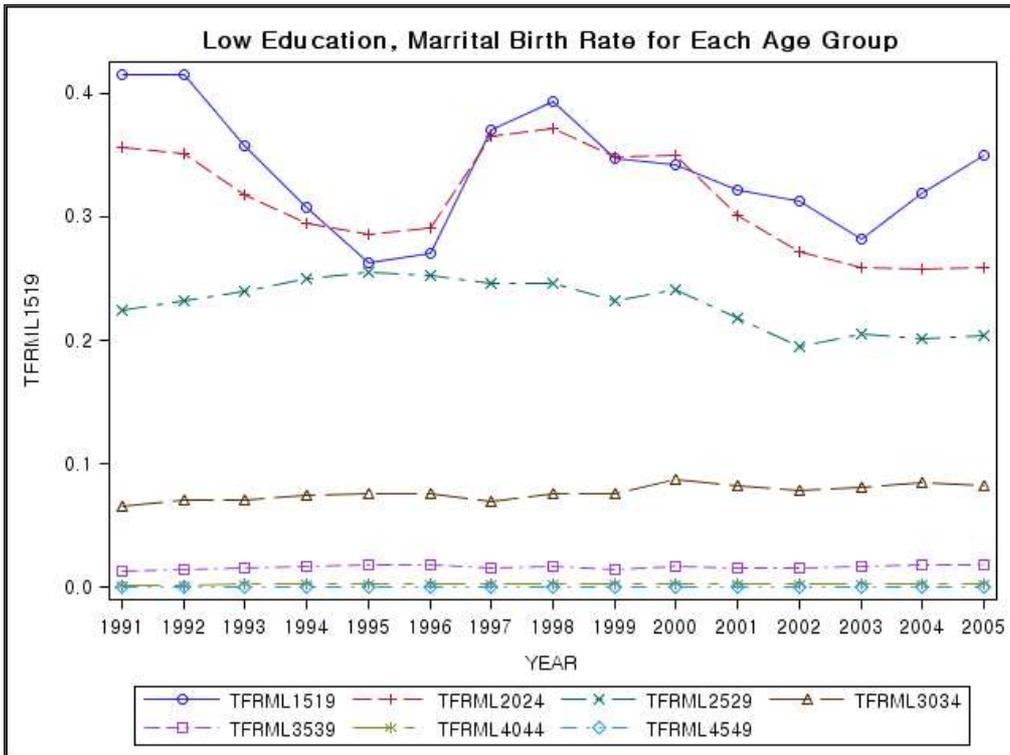
<표 4-2>는 4.1절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1991년-2005년 고학력 및 저학력 여성 합계출산율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각 학력 집단에 있어서 유배우 비율의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의 훨씬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유배우 비율의 변화는 해당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의 68%(고학력자)에서 80%(저학력자) 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9%(저학력자)에서 16%(고학력자) 정도를 설명할 따름이다.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비해 유배우 비율 변화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기여도가 증가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고학력자 비율 변화의 효과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연령별 유배우 비율 변화의 효과를 고려하면, 전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학력 및 저학력 여성 모두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비율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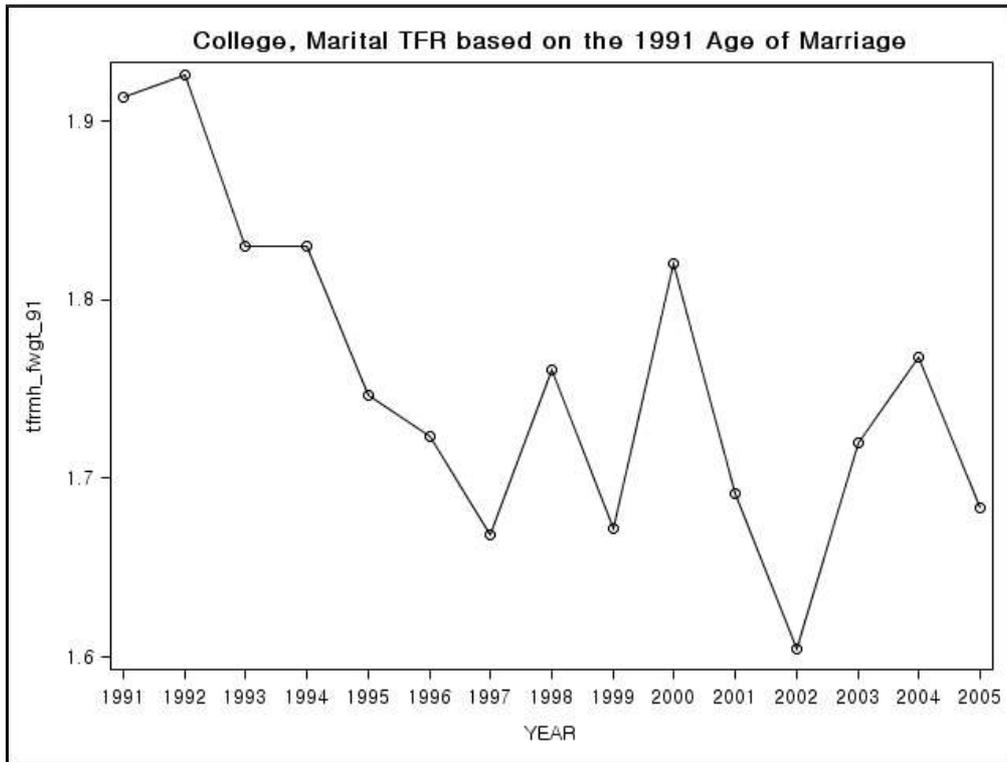
<도표 4-11> 대학 이상 학력 여성 연령별 유배우 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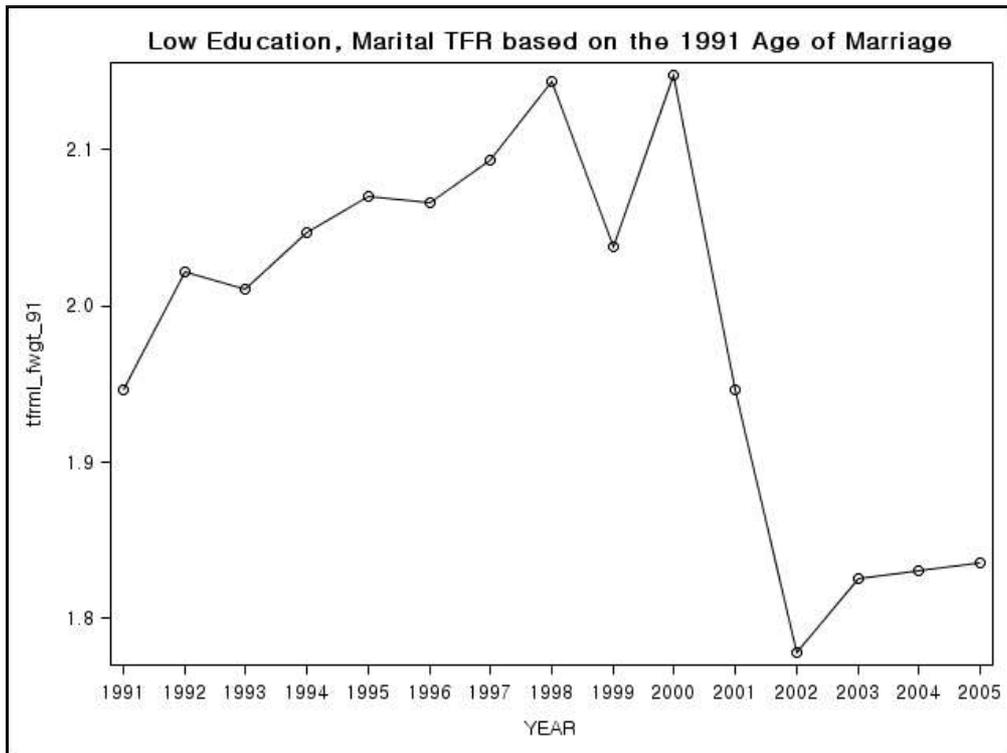
<도표 4-12> 고졸 이하 학력 여성 연령별 유배우 출생률



<도표 4-13> 대학 이상 학력 여성 1991년 혼인패턴의 유지되는 경우의 유배우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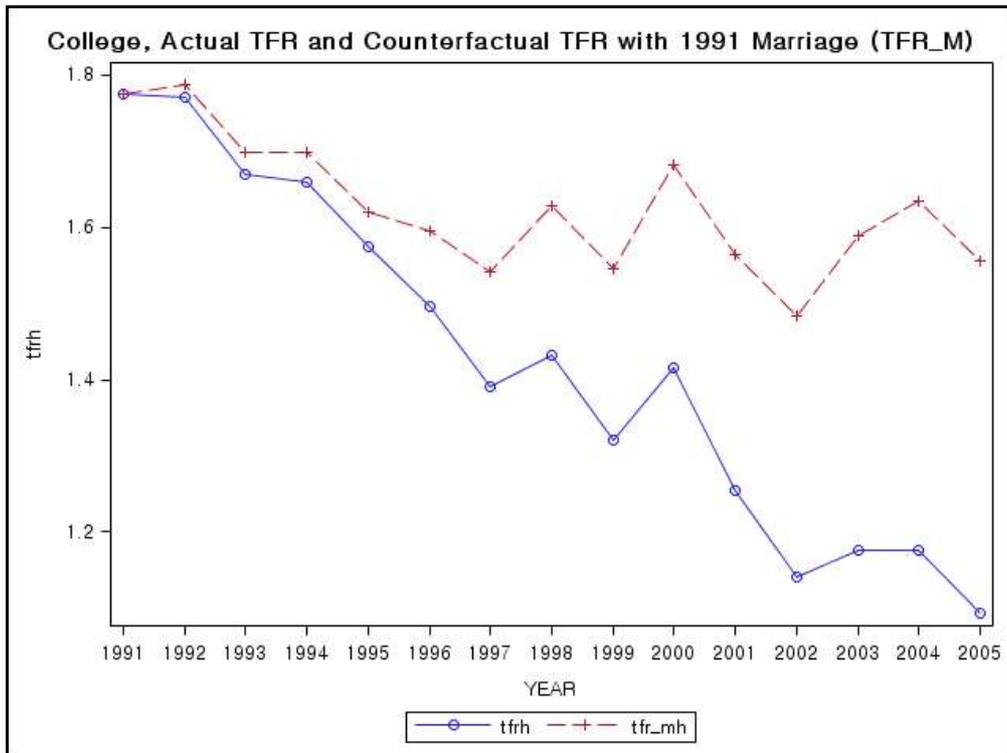
<도표 4-14> 고졸 이하 학력 여성 1991년 혼인패턴의 유지되는 경우의 유배우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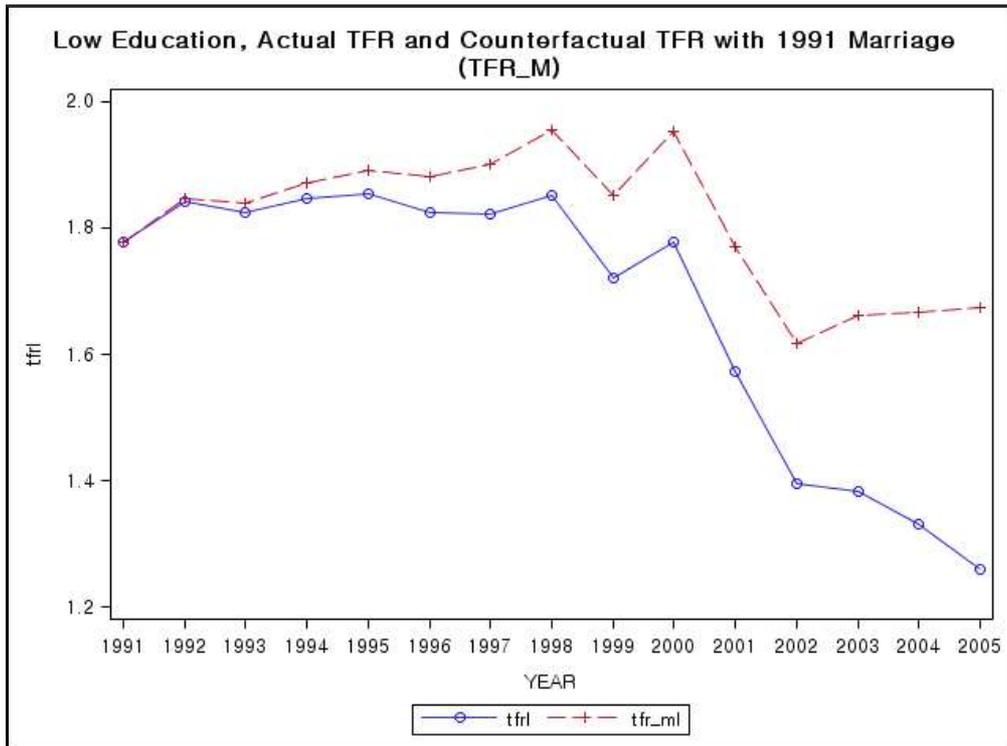
<표 4-2> 1991-2005년 유배우 출생률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 분해 (학력별)

	고학력		저학력	
	△TFR 기여	기여도 (%)	△TFR 기여	기여도 (%)
전체 유배우 비율	-0.46311	67.85	-0.41367	79.99
15-19세 유배우 비율	0.00087	-0.13	-0.00457	0.88
20-24세 유배우 비율	-0.04530	6.64	-0.10131	19.59
25-29세 유배우 비율	-0.32976	48.31	-0.26032	50.34
30-34세 유배우 비율	-0.08338	12.22	-0.04348	8.41
35-39세 유배우 비율	-0.00506	0.74	-0.00385	0.74
40-44세 유배우 비율	-0.00043	0.06	-0.00017	0.03
45-49세 유배우 비율	-0.00003	0.00	-0.00001	0.00
전체 유배우 출생률	-0.10803	15.83	-0.04630	8.95
15-19세 유배우 출생률	-0.00119	0.17	-0.00135	0.26
20-24세 유배우 출생률	-0.00752	1.10	-0.08730	16.88
25-29세 유배우 출생률	-0.12184	17.85	-0.05620	10.87
30-34세 유배우 출생률	0.00434	-0.64	0.07183	-13.89
35-39세 유배우 출생률	0.01517	-2.22	0.02477	-4.79
40-44세 유배우 출생률	0.00343	-0.50	0.00228	-0.44
45-49세 유배우 출생률	-0.00039	0.06	-0.00035	-0.07
전체 무배우 출생률	-0.01177	1.73	-0.01123	2.17

<도표 4-15> 대학 이상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도표 4-16> 고졸 이하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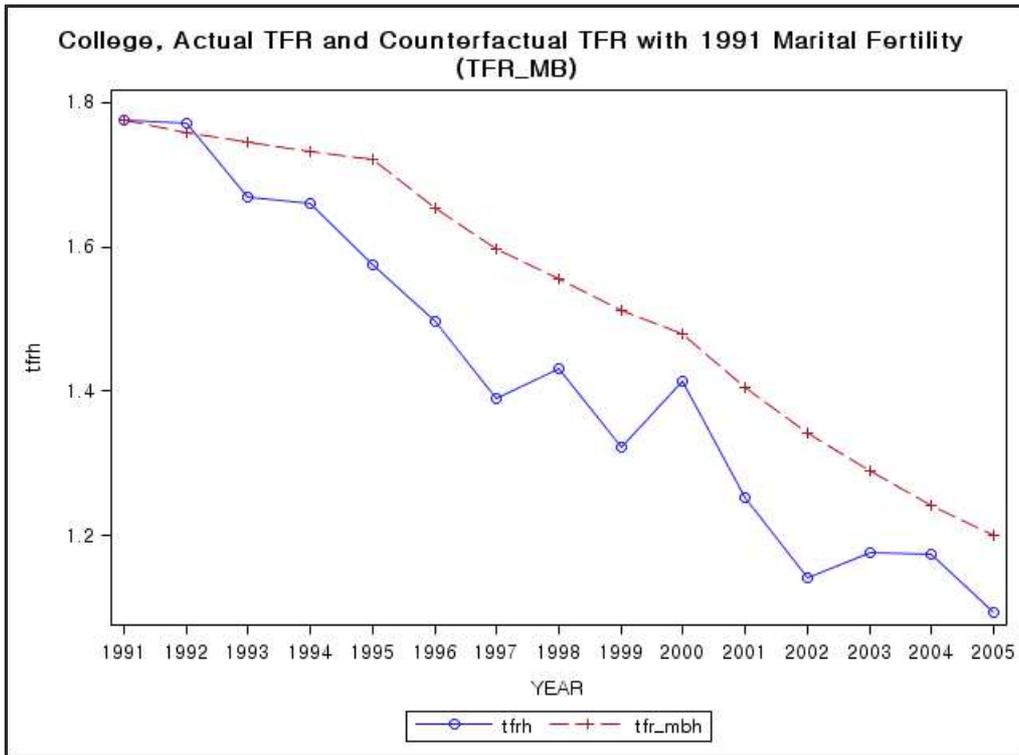


었다. 두 학력집단 모두 이 요인이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절반을 설명한다. 고학력자의 경우 30대 초반 유배우 비율 변화의 기여도가 그 다음으로 높았던 반면, 저학력의 경우에는 20대 초반 유배우 비율 변화의 기여도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를 고려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이, 저학력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이 각각 가장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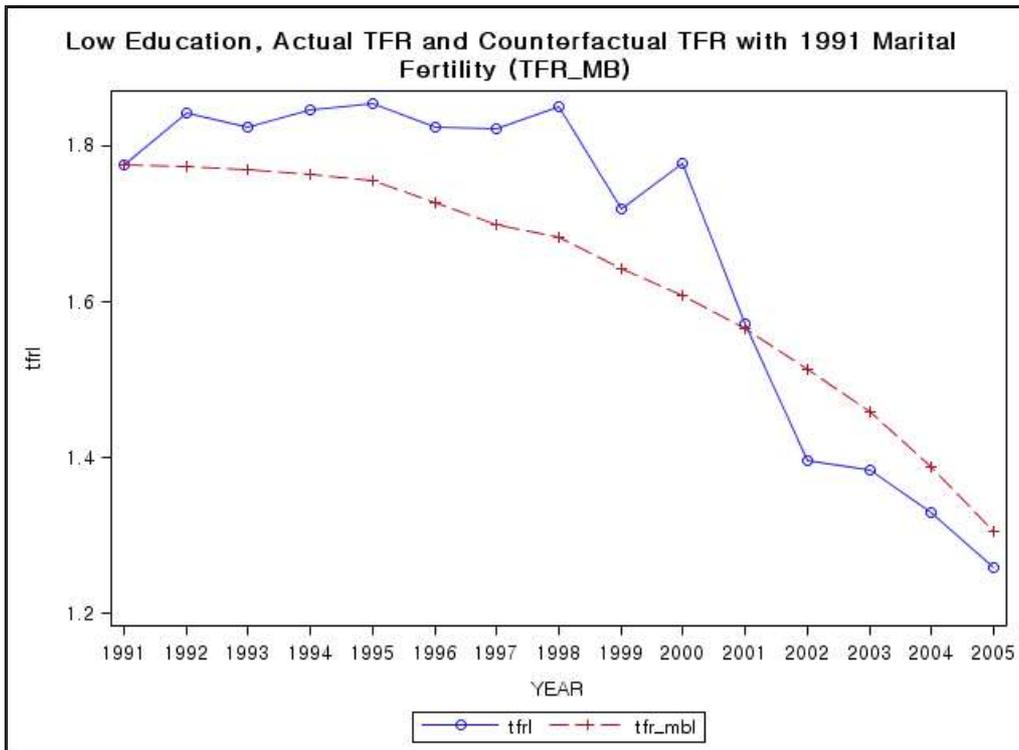
<도표 4-15>와 <도표 4-16>은 각각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에 대해 실제의 합계출산율(TFRH, TFR\_L)과 1991년의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TFR\_MH, TFR\_ML)을 비교함으로써 위에서 수행한 분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도표가 보여주는 결과는 각 학력별로 유배우 비율의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실제의 합계출산율은 1991년 1.78 수준에서 2005년까지 1.1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만약 연령별 유배우 비율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면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거의 1.6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에도 유배우 비율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실제치인 1.26보다 훨씬 높은 1.7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두 학력 집단 모두 2000년 이후 실제 합계출산율과 가상 합계출산율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근래에 와서 유배우 비율 감소가 출산율 감소의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표 4-17>과 <도표 4-18>은 각각 고학력 및 저학력 여성의 실제의 합계출산율(TFRH, TFR\_L)과 1991년의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도표 4-17> 대학 이상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도표 4-18> 고졸 이하 실제 합계출산율 및 1991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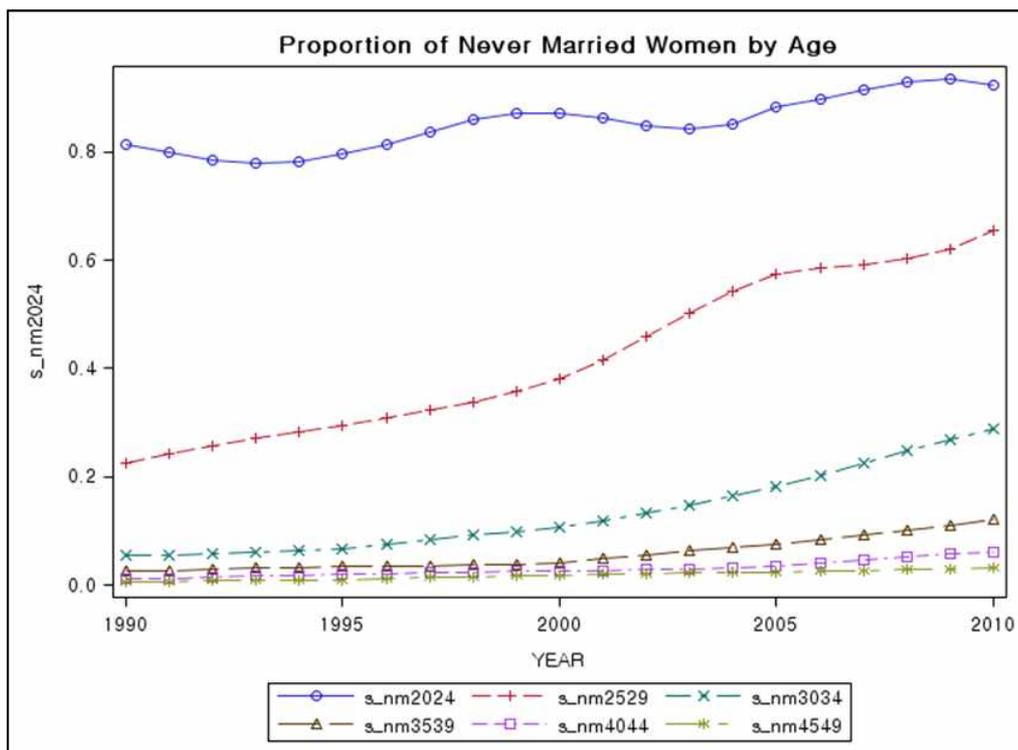
(TFR\_MBH, TFR\_MBL)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가상적인 합계출산율이 실제 합계출산율보다 해당 시기 전반을 통해 약간 높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다. 이는 고학력자의 경우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가 분석기간 전체를 통하여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면 저학력 여성의 경우 2001년까지는 가상의 합계출산율이 실제 합계출산율보다 더 낮았으며, 그 이후에도 실제 출산율과 가상 출산율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저학력 여성의 경우 1990년대를 통해 유배우 출산율이 증가하여 합계출산율 감소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과, 근래에 와서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 4.5.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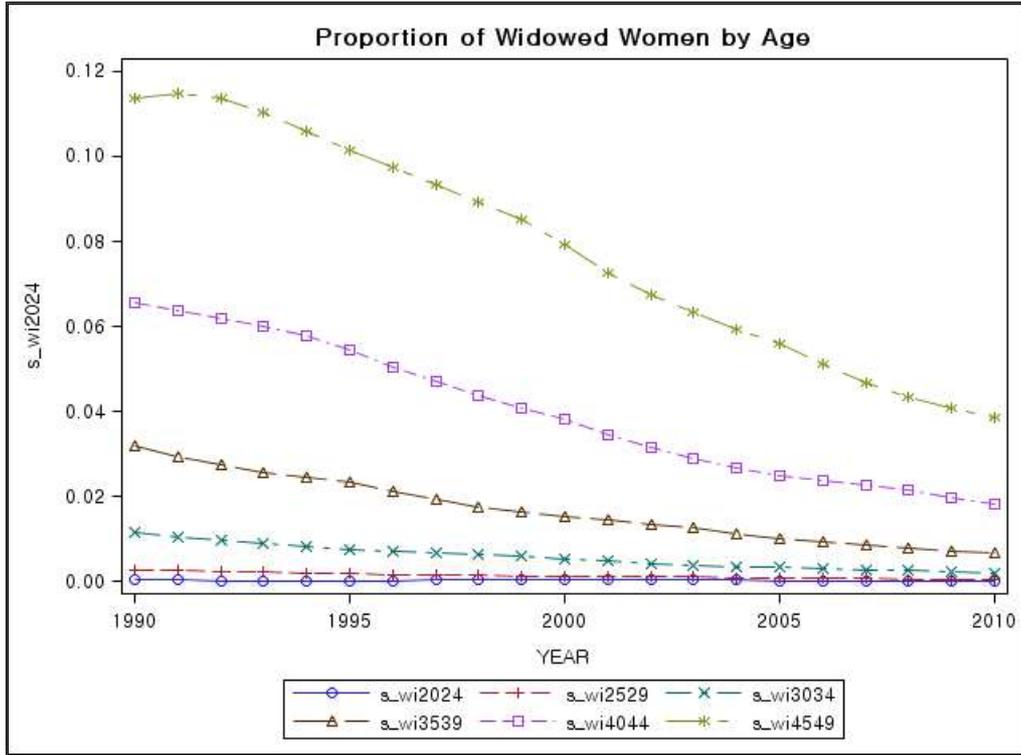
이상에서 제시한 결과는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배우 여성의 비율은 왜 감소했을까? 여기서는 우선 미혼(never married) 무배우 여성(S\_NM), 사별 무배우 여성(S\_WI), 이혼 무배우 여성(S\_DI) 등 무배우 여성인구를 구성하는 세 집단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도표 4-19>가 보여주듯이 미혼여성의 비율은 1991년 이후 대부분 연령에 대해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199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 다섯 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미혼자였으나 2010년경에는 세 명 중 두 명이 미혼상태로 남아 있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미혼자의 비율은 1990년 8%에서 2010년 31%로 크게 증가하였다. 30대 후반까지 미혼인 여성들이 비율도 최

<도표 4-19> 연령별 미혼 독신 여성 비율



<도표 4-20> 연령별 사별 독신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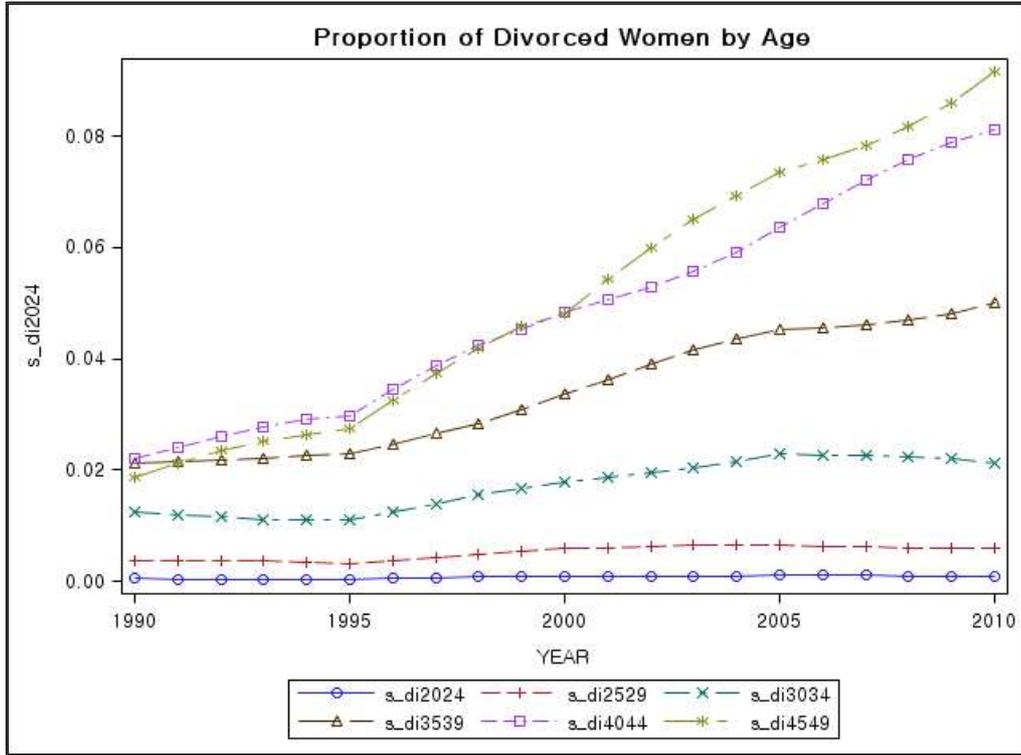
근 20%를 육박한다.

<도표 4-20>은 주로 30대 후반 이후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별에 의해 배우자 없이 사는 여성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45-49세 여성의 경우 1990년 사별 무배우자의 비율이 11%에 달했지만 2010년까지는 4% 미만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40대 초반 여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사별 무배우 인구의 비율이 6.5%에서 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의 조기사망이 장기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표 4-21>이 보여주듯이 이혼에 의해 배우자 없이 사는 여성들의 비율은 199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0대 후반 여성 가운데 이혼 무배우 여성의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에는 9%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40대 초반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2%에서 8.1%로 증가하였다. 30대 여성 가운데 이혼 무배우 여성의 비율도 1990년 이후 20년 간 약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미혼, 사별, 이혼 여성의 증가는 각각 무배우 여성 비율의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는 거의 100% 미혼 여성 비율의 감소에 의해 설명되며, 이혼 여성 비율의 증가와 사별 여성 비율의 증가의 효과는 서로 상쇄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 감소 요인 분해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각 요인이 유배우 인구 비율 감소에 기여한 정도를 계산해보면, 1991년부터 2009년까지 미혼 인구비율 증가의 기여도는 99.0%, 사별 인구비율 감소의 기여도는 -16.9%, 이혼인구비율 증가의 기여도는

<도표 4-21> 연령별 이혼 독신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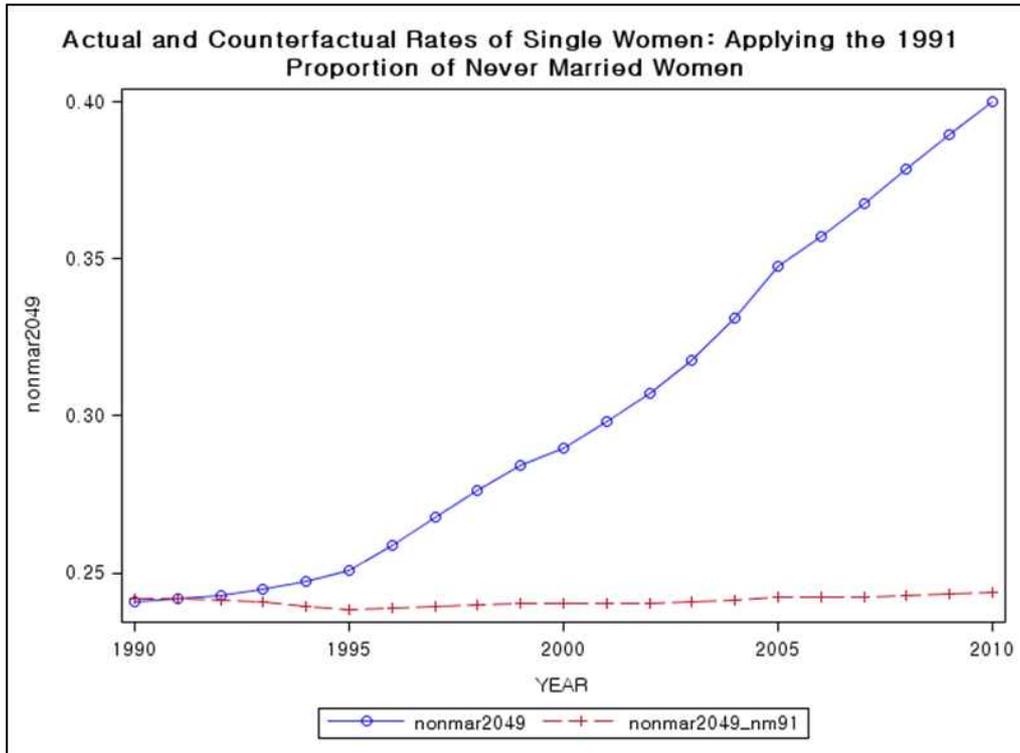


17.9%로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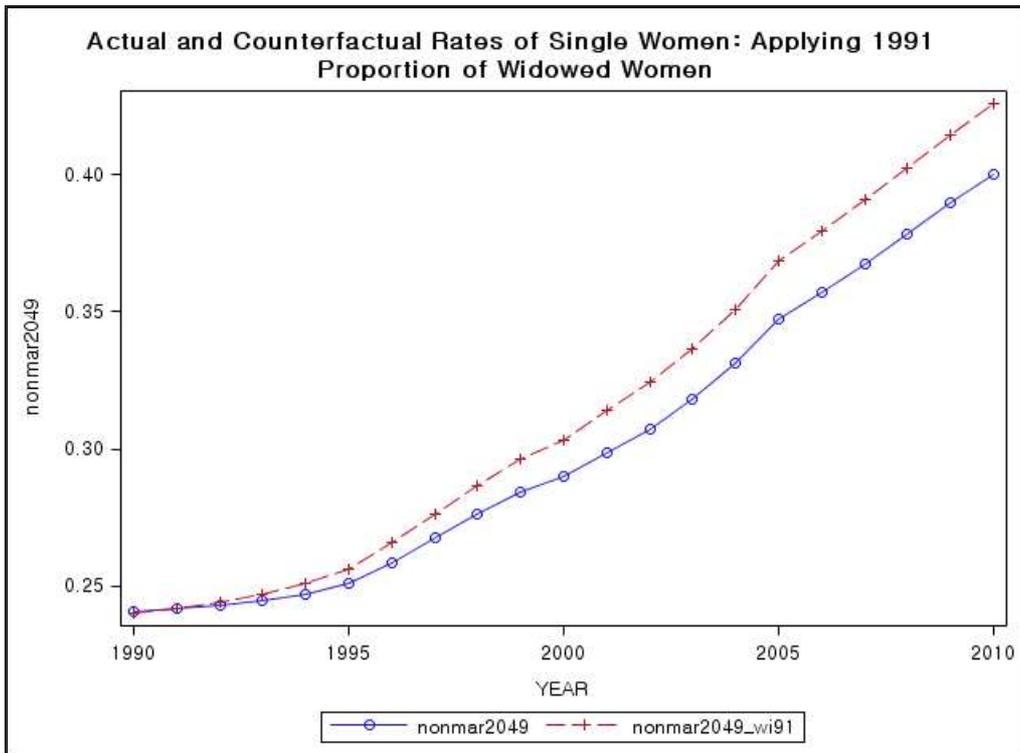
<도표 4-22>부터 <도표 4-24>까지의 그래프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의 무배우 여성 비율 지표(nonmar2049)와 1990년의 연령별 미혼 무배우 여성 비율, 사별 무배우 여성 비율, 이혼 무배우 여성 비율 등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무배우 여성 비율 지표(nonmar2049\_nm91)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무배우 여성 비율 지표는 20세부터 49세까지 각 5세 단위 연령 그룹의 무배우 비율을 더한 다음 이것을 연령 그룹의 수(6개)로 나눈 것이다. <도표 4-22>가 보여주듯이 1990년 이후 미혼 무배우 여성의 비율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전체 무배우 인구 비율을 거의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사별 무배우 인구 비율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전체 무배우 인구비율은 약간 더 높았을 것이고(도표 4-23), 이혼 무배우 인구비율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전체 무배우 인구비율은 약간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도표 4-24).

각 연령에 있어서 미혼 무배우 여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배우 인구의 혼인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도표 4-25>와 <도표 4-26>은 각각 전체 무배우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과 미혼 무배우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30대 초반까지는 전체 무배우 여성 가운데 미혼 무배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두 개의 그래프는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유배우 여성 비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대 후반 여성의 무배우 혼인율이 가장 빠르게 감소했던 것이 확인된다. 1990년대 초 1000명 당 300건을 기록했던 20대 후반 무배우 여성 혼인율은 2010년까지 거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대 초반 무배우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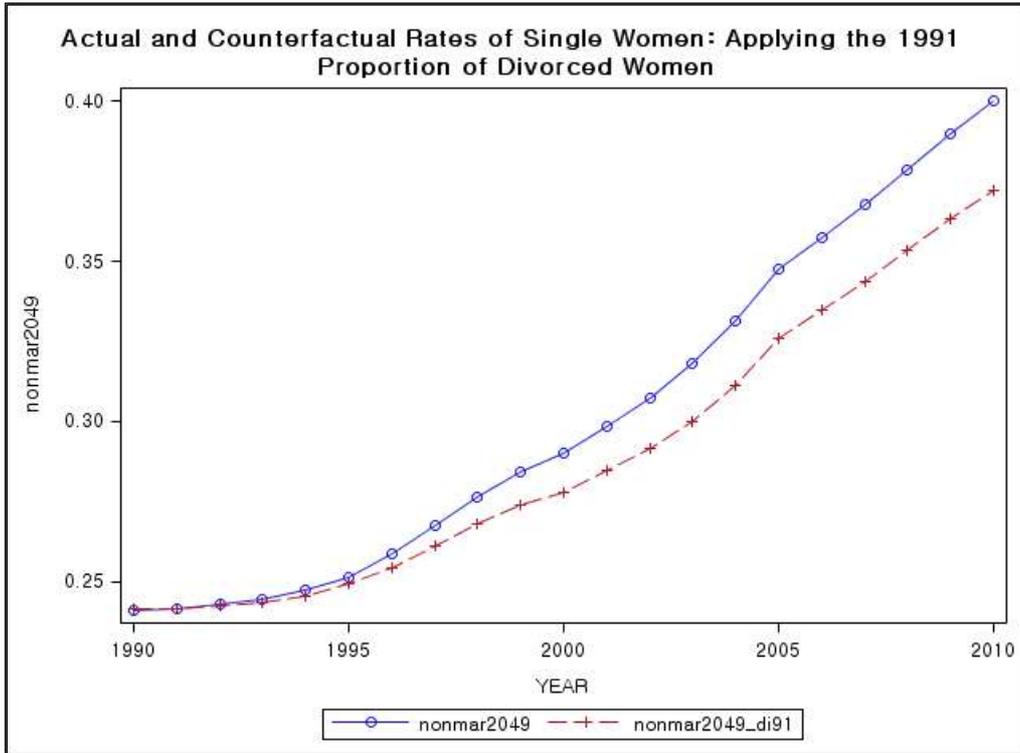
<도표 4-22> 실제 무배우 여성 비율과 1991년 미혼여성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무배우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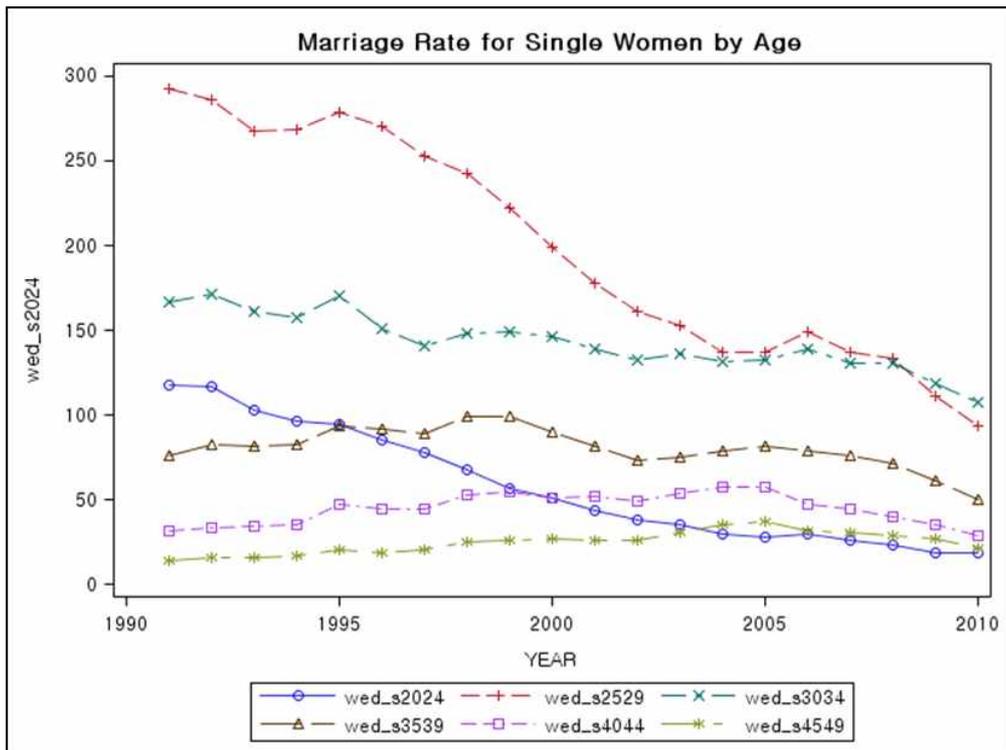
<도표 4-23> 실제 무배우 여성 비율과 1991년 사별 여성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무배우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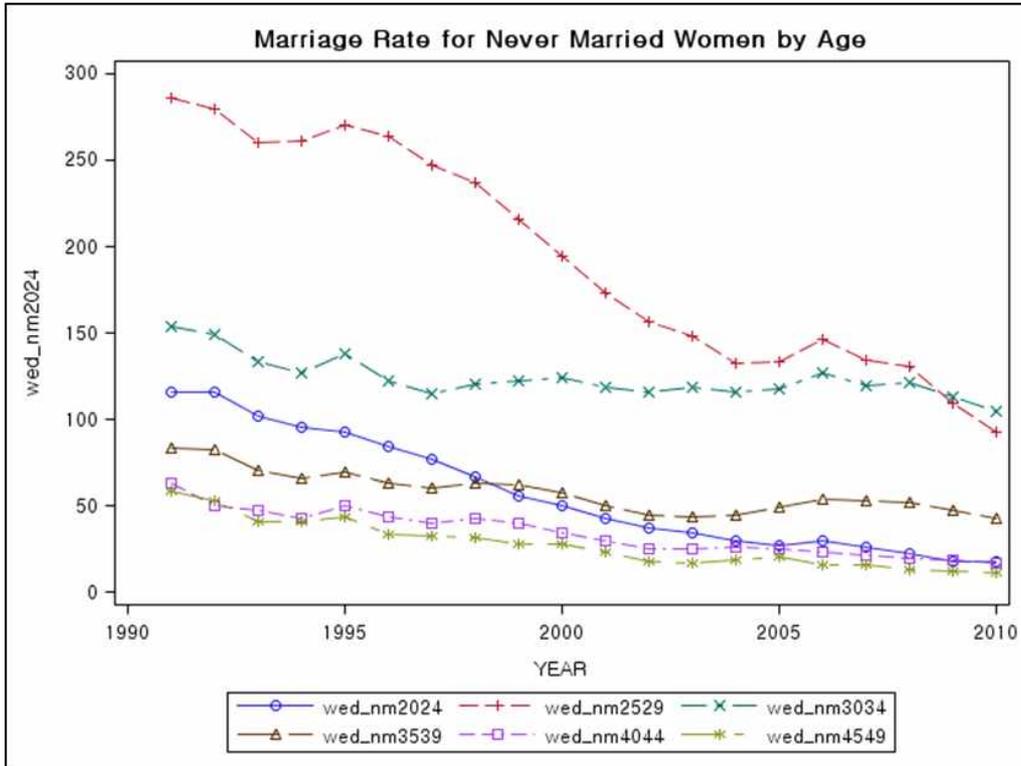
<도표 4-24> 실제 무배우 여성 비율과 1991년 이혼 여성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무배우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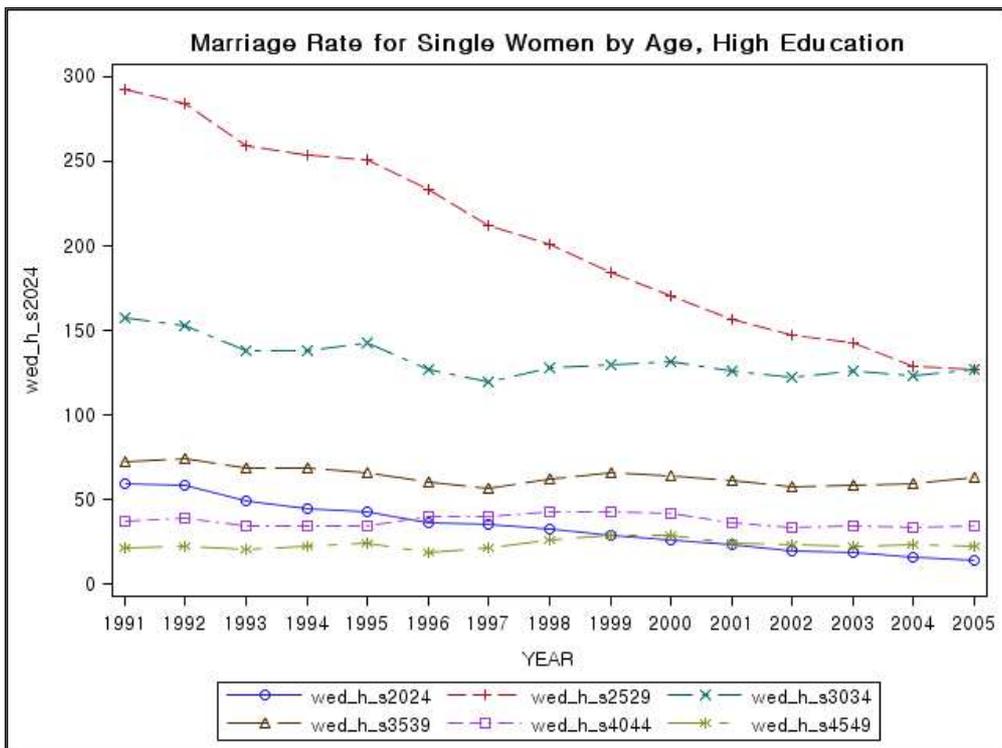
<도표 4-25> 연령별 무배우 여성 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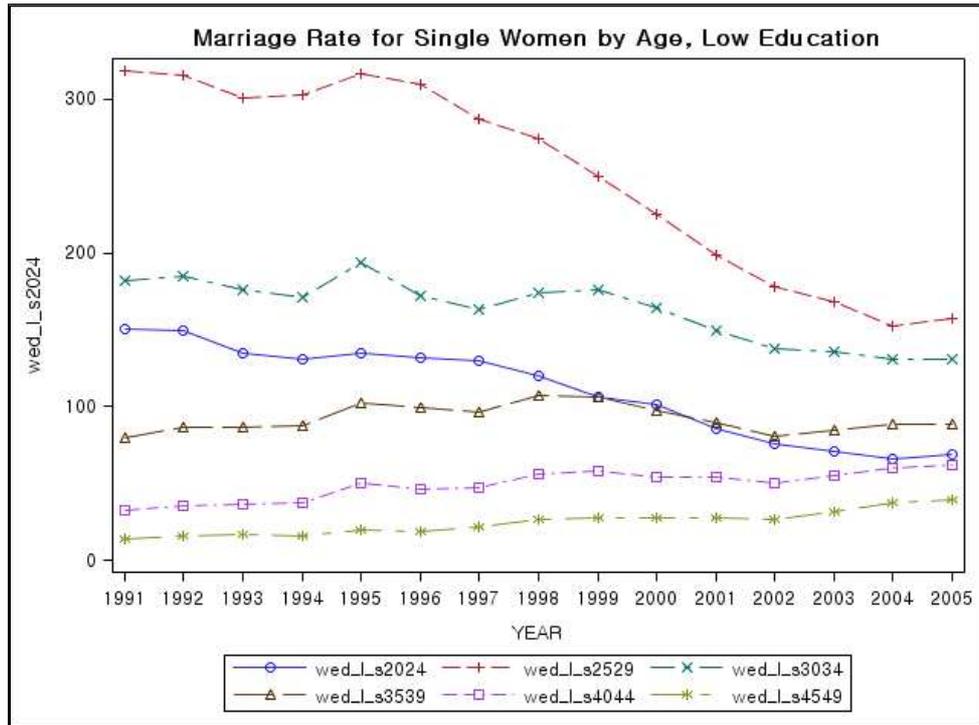
<도표 4-26> 연령별 미혼여성 혼인율



<도표 4-27> 연령별 고학력 무배우 혼인율



<도표 4-28> 연령별 저학력 무배우 여성 혼인율



혼인율도 같은 기간 동안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도표 4-27>과 <도표 4-28>은 연령별 무배우 여성 혼인율을 학력별로 보여준다. 결과에 따르면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저하 현상은 학력을 나누어서 보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무배우 혼인율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지는 20대 후반의 경우 고학력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저하는 이미 1990년부터 시작된 반면 저학력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감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 혼인율 역시 이미 199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저학력 여성의 경우 같은 20대 초반 혼인율이 1997년 이후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보다는 오히려 저학력자의 혼인율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30대 중반 이상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저학력 여성의 경우 40대 무배우 혼인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요컨대 유배우 여성의 비율이 감소한 가장 주된 원인은 미혼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혼 여성 비율의 증가도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사별 여성의 감소가 이를 전적으로 상쇄하였다. 20대 무배우 여성의 가파른 혼인율 감소는 미혼 무배우 여성 비율을 높인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고학력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감소가 1990년 이전부터 시작된 반면 고학력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감소는 1990년대 중반 내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4.6.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결정요인

위에서 제시한 결과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주된 원인이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덜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혼인한 여성이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미혼 여성들이 점점 더 늦게 결혼을 하고, 더 많은 비율의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유배우 비율과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을까? 이 연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혼인의 결정요인, 예컨대 각 지역의 노동시장, 주택시장, 결혼시장의 상황 등에 관한 데이터와 연결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유용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추가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 보고서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이 절에서는 유배우 여성 비율의 시간적, 지역적 변이가 유배우 출산율의 시간적, 지역적 변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출산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고, 결혼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출산의 확률이 낮아지게 되면 결혼의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혼인과 출산 모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혼인율 및 유배우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출산 장려금, 보육지원,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 현재까지 추진된 많은 저출산 대책들은 유배우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의 정책들이었다. 만약 출산의 장애요인들이 혼인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들이라면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유배우 비율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배우 비율을 감소시킨 요인이 출산율의 결정요인과 무관하다면 현재의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유배우 비율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시군구의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과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출발점은 출산과 혼인의 결정요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 상이하리라는 가정이다. 즉 각 시군구마다 노동시장, 주택시장, 혼인시장, 양육, 교육 등의 환경이 다르고, 이는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만약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환경이 혼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면 연도 및 시군구별 유배우 비율의 변이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이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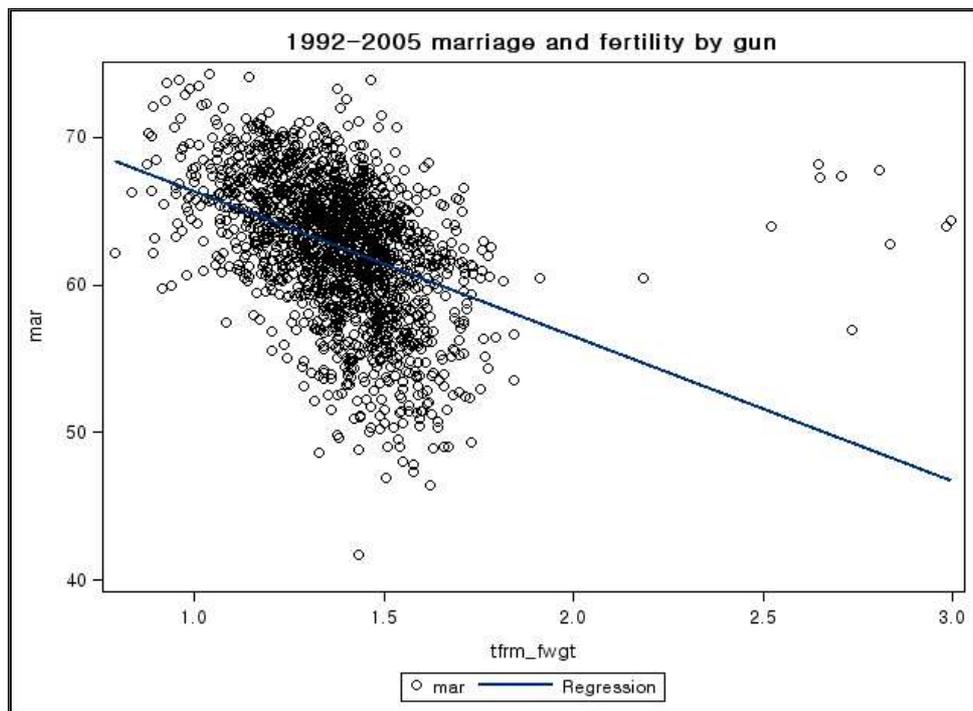
연도별, 시군구별 유배우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20-24세, 25-29세, 30-34세 등 3개 연령 그룹 여성들의 유배우 비율( $m_{2024}$ ,  $m_{2529}$ ,  $m_{3034}$ )과 20-49세 여성 전체의 유배우 비율 지표( $mar$ : 각 5세별 연령그룹의 유배우 비율을 더하여 연령그룹의 수로 나눈 것)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시군구별 유배우 출산율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20-24세, 25-29세, 30-34세 등 3개 연령 그룹 유배우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tfrm_{2024}$ ,  $tfrm_{2529}$ ,  $tfrm_{3034}$ )과 <식 6>에 설명되어 있는 유배우 기대합계출산율 지표( $tfrm\_fwgt$ )를 이용하였다.

<표 4-3> 유배우 비율 지표와 유배우 출산율 지표의 관계: 상관계수 및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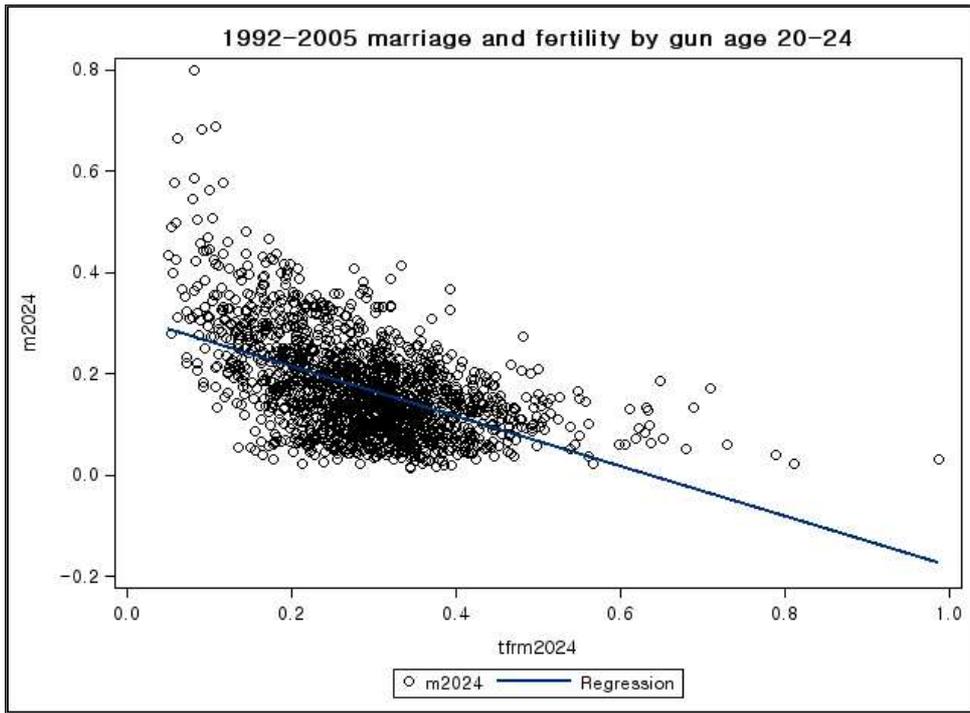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지표와 유배우 합계출산율	20-2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25-29세 유배우 여성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30-34세 유배우 여성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피어슨 상관계수 (P-값)	-0.1845 (<.0001)	-0.5252 (<.0001)	-0.2493 (<.0001)	-0.2726 (<.0001)
회귀계수 (P-값)	-0.5284 (<.0001)	-0.4537 (<.0001)	-0.6516 (<.0001)	-0.5072 (<.0001)
회귀계수-연도더 미 포함 (P-값)	-0.5659 (<.0001)	-0.5130 (<.0001)	-0.7645 (<.0001)	-0.3722 (<.0001)

<도표 4-29>는 1992년-2005년 각 시군구의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지표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직선은 회귀선을 나타낸다. 결과는 유배우 비율의 지표와 유배우 출산율의 지표가 음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4-3>은 각 유배우 비율 및 유배우 출산율 지표 간의 상관계수와 유배우 비율 지표를 유배우 출산율 지표에 회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0-49세의 경우 두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1845로 낮은 편이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음의 관계는 연도더미를 통제하고 유배우 여성 비율을 유배우 출산율에 회귀해도 유의하게 나타난다(표 4-3). <도표 4-30>부터 <도표 4-32>가 보여주듯이 변수를 바꾸어 각 연령집단의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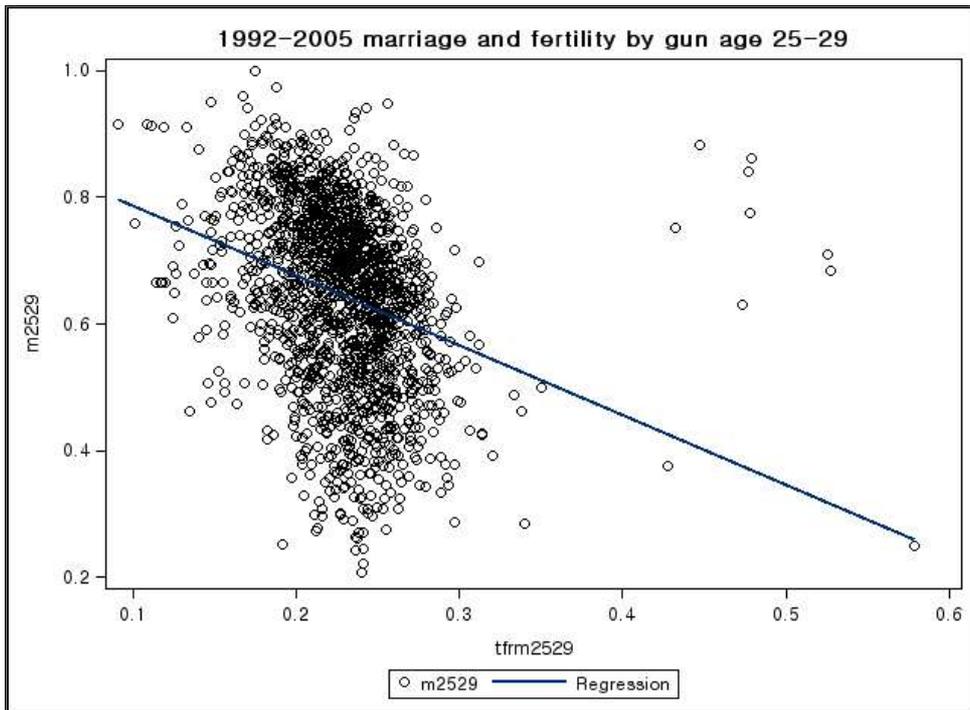
<도표 4-29> 1992년-2005년 시군구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지표와 유배우 출산율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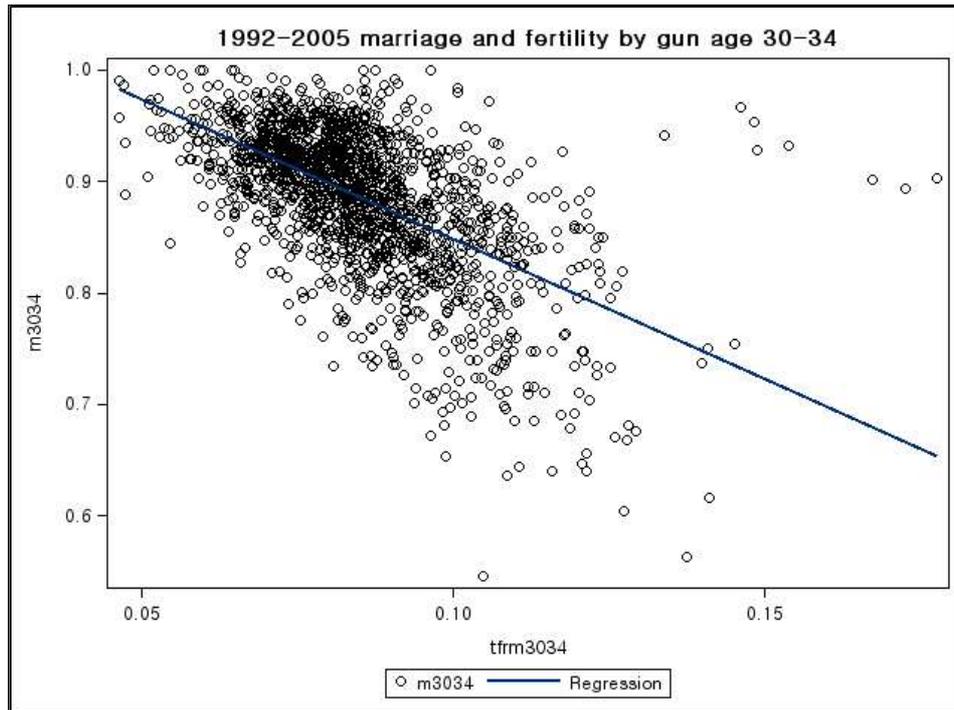
<도표 4-30> 1992년-2005년 시군구 20-2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도표 4-31> 1992년-2005년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도표 4-32> 1992년-2005년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음의 관계가 발견된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연령은 20-24세이고(-0.5252)이고 다른 두 연령집단의 경우 상관계수가 -0.25 수준으로 나타난다(표 4-3). <도표 4-33>부터 <도표 4-40>까지의 그래프는 유사한 분석을 고학력 및 저학력 여성에 대해 각각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8개 그래프 모두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연도별, 시군구별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에 약한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왜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지는 현재의 분석결과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 출산에 대한 선호가 높거나 혹은 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배우 비율이 낮은 시기 혹은 지역의 유배우 인구는 출산의 선호/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유배우 여성 비율이 낮은 연도/시군구의 유배우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 원인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분석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배우 비율의 변이를 유배우 출산율의 변이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즉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킨 주된 요인이었던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는 출산의 결정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이상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의 음의 관계가 인과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 결과는 유배우 출산율을 증가시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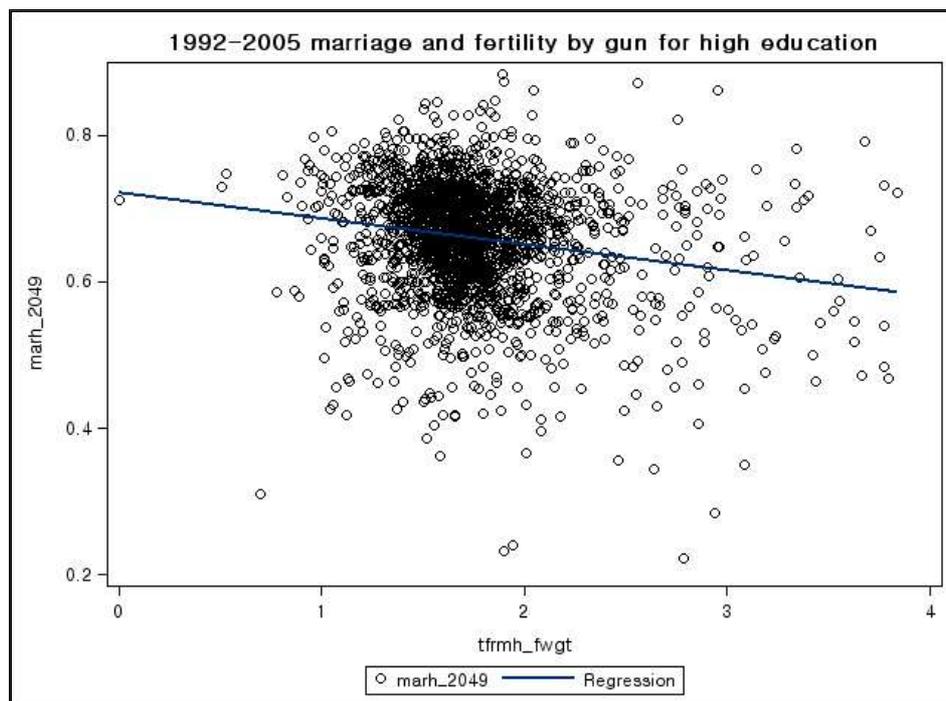
이 유배우 비율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산은 혼인의 중요한 목적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은 혼인의 유인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혼인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요인들의 시간적, 지역적 변이는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변이와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향후 시군구별 자료를 이용하여 유배우 비율 및 유배우 출산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면 이 문제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7.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인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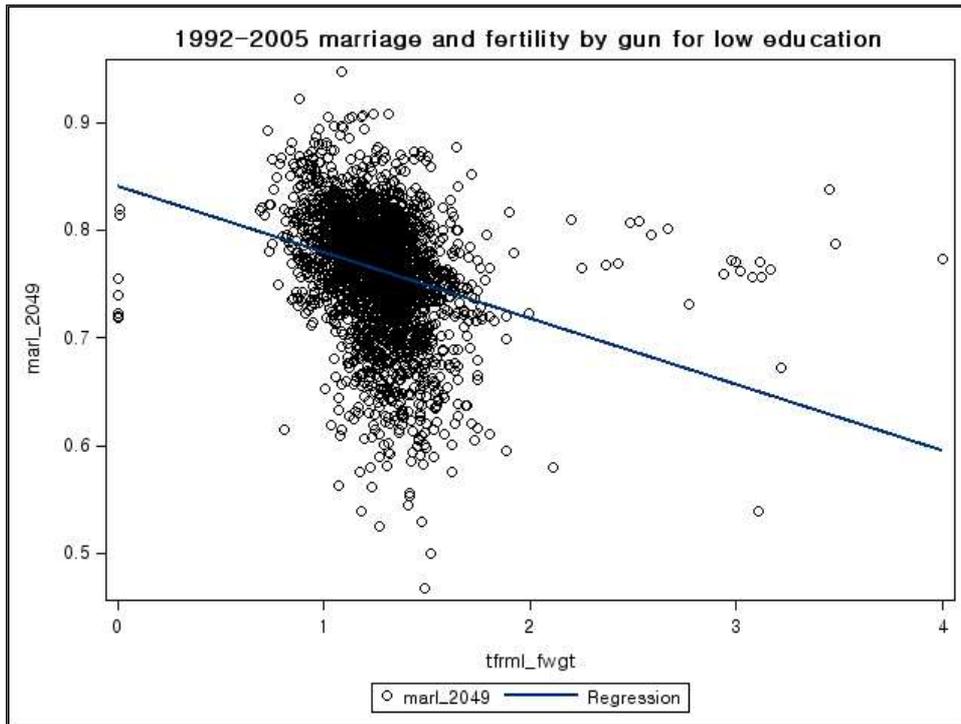
이 장에서 수행된 분석결과는 1991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감소가 주로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100% 이상을 설명하며,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가 그 효과의 일부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비율 감소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2005년 이후에는 유배우 출산율 증가의 효과가 유배우 비율 감소의 효과를 압도함으로써 합계출산율이 약간 상승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을 나누어 학력변화의 효과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유배우 비율의 변화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2/3 내지 4/5를 설명한다. 1990년 이후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주로 미혼여성의 혼인을 감소에 의한 미혼여성 비율의 증가에 의해 설명된다. 이혼여성의 증가도 유배우 비율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그 효과는 사별여성의 감소에 의해 전적으로 상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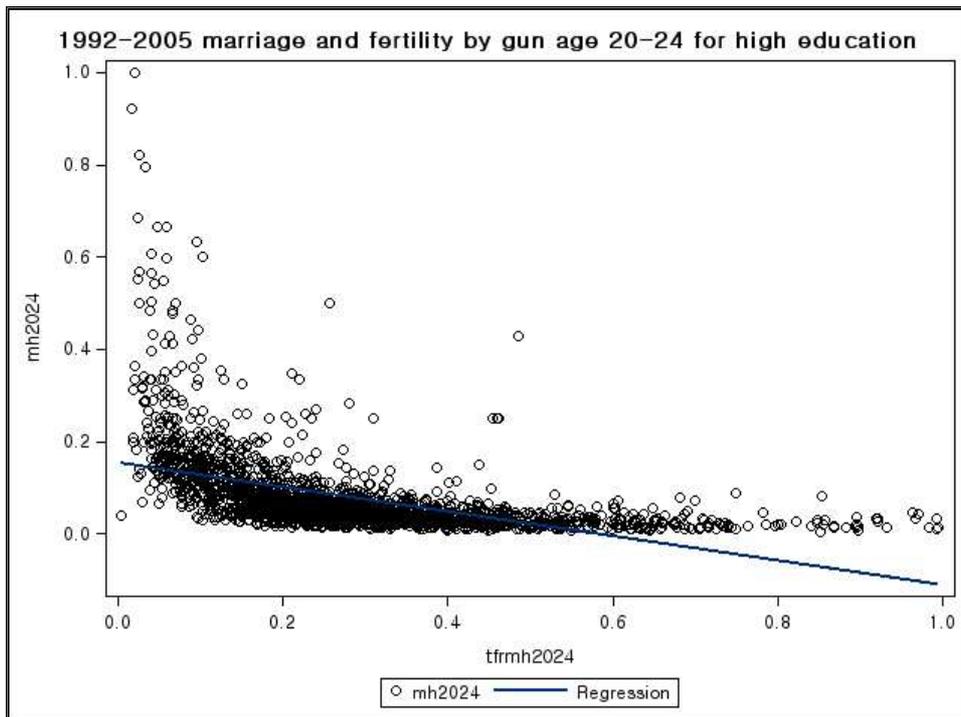
<도표 4-33> 1992년-2005년 시군구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지표와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고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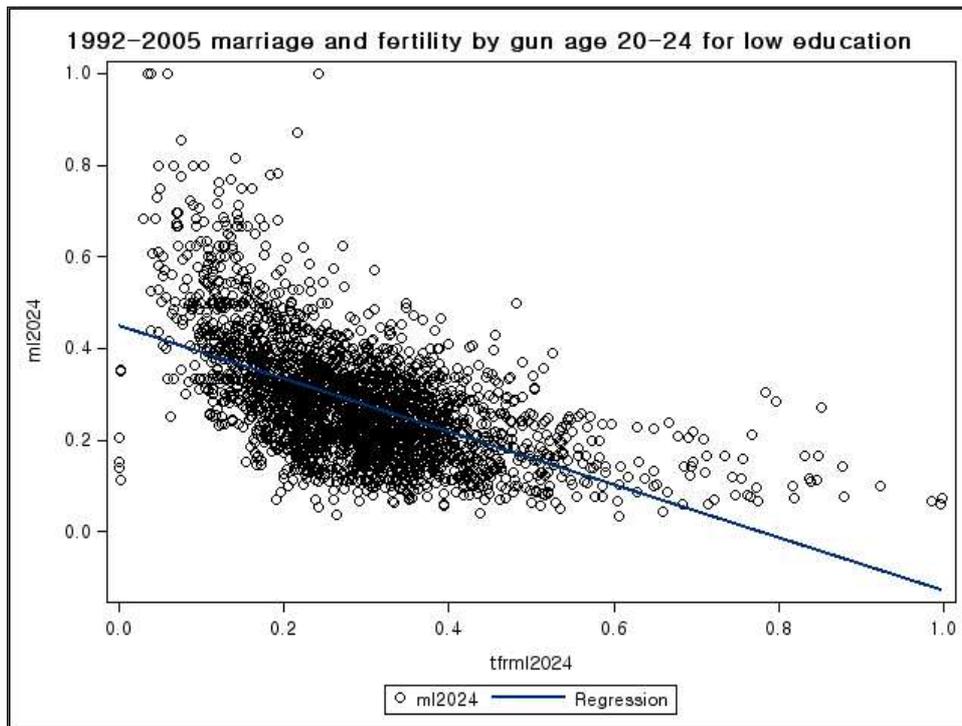
<도표 4-34> 1992년-2005년 시군구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지표와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저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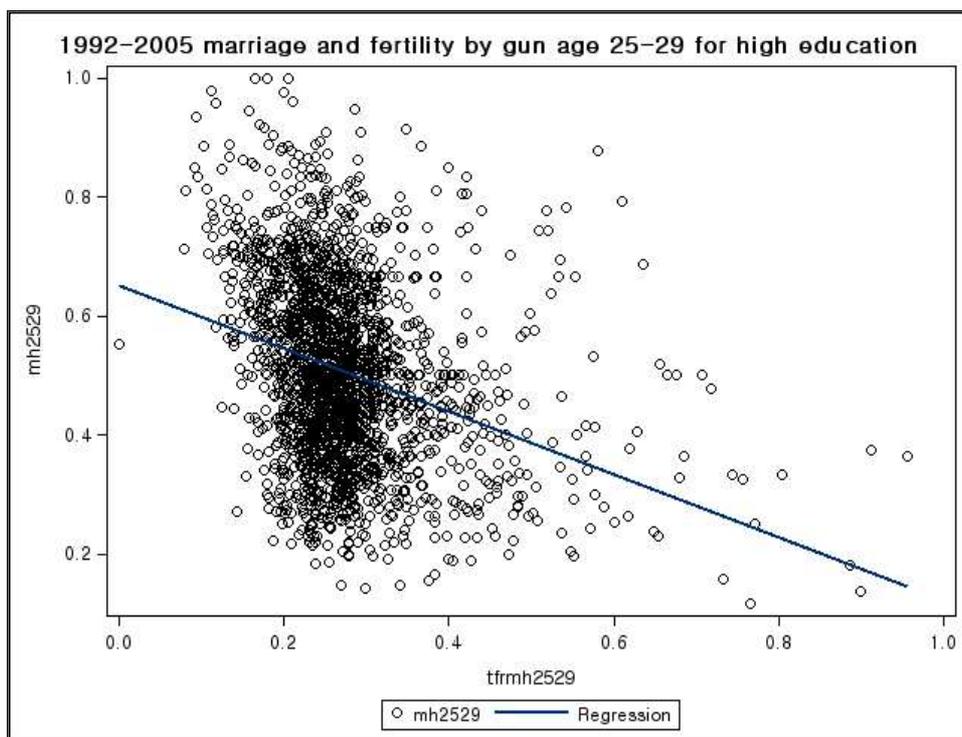
<도표 4-35> 1992년-2005년 시군구 20-2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고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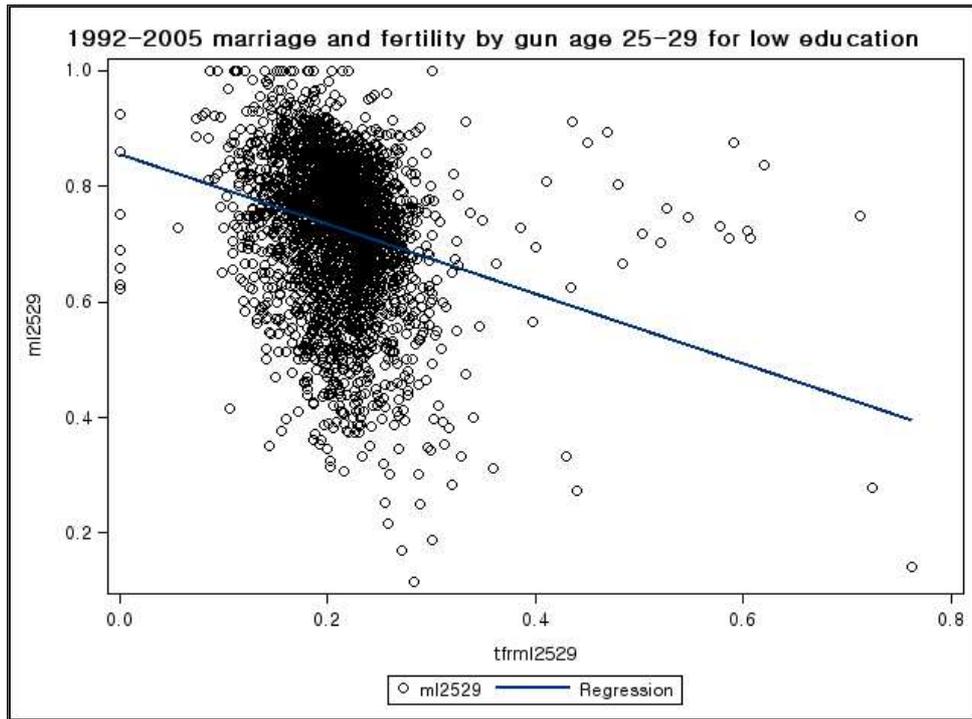
<도표 4-36> 1992년-2005년 시군구 20-2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저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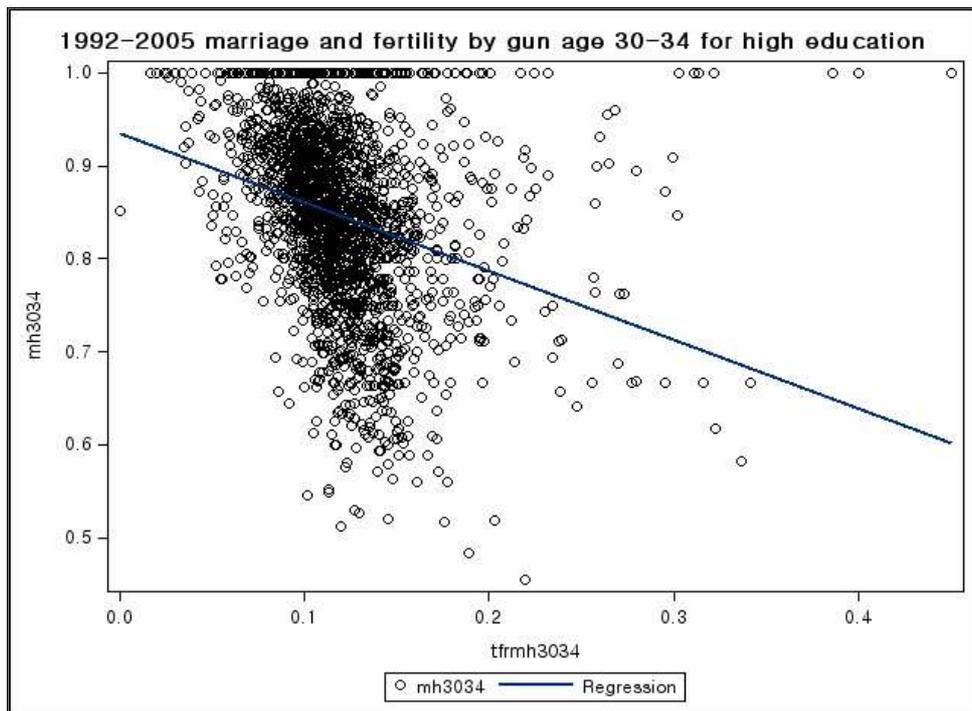
<도표 4-37> 1992년-2005년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고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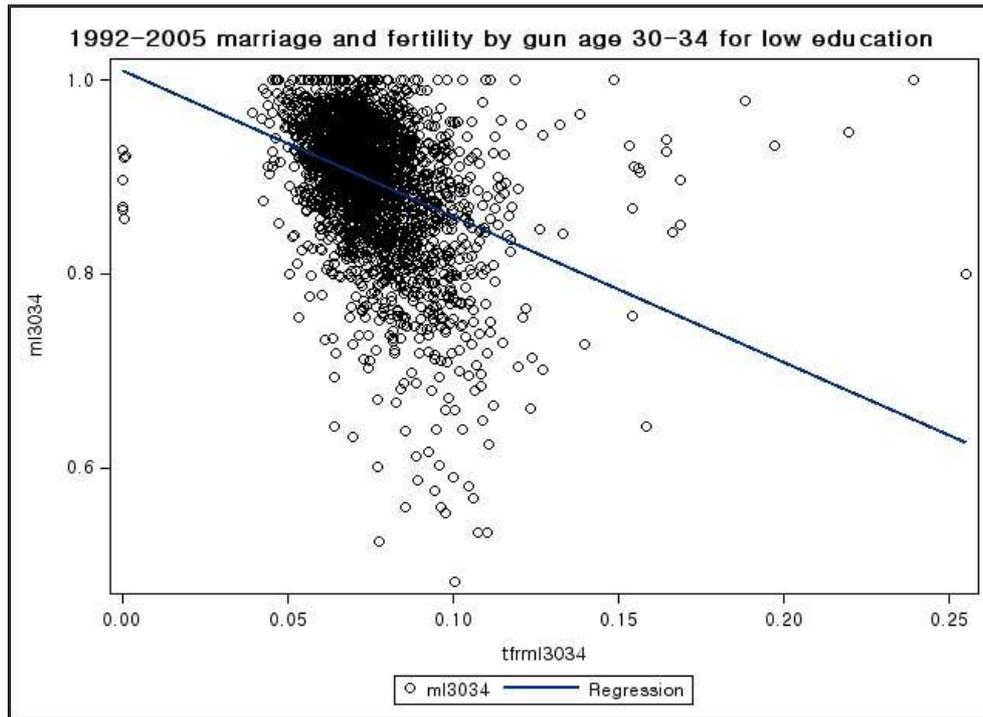
<도표 4-38> 1992년-2005년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저학력)



<도표 4-39> 1992년-2005년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고학력)



<도표 4-40> 1992년-2005년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생률 간의 관계 (저학력)



1992년-2005년 시군구별 유배우 여성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비율이 유배우 출산율과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다. 이 결과는 유배우 비율의 변이를 유배우 출산율의 변이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킨 주된 요인이었던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는 출산의 결정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까지 추진된 저출산 대책들은 출산 장려금, 보육지원,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 주로 유배우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의 정책들이었다. 만약 출산의 장애요인들이 혼인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들이라면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유배우 비율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유배우 비율이 감소한 요인이 출산율의 결정요인과 무관하다면 현재의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유배우 비율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은 이 결과가 유배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장려정책이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혼인의 감소를 정책적으로 막기 어렵다면 유배우 인구의 출산이라도 제고해야만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유배우 비율이 계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우 출산율이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다소 올라간 사례는 유배우 인구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을 장려하여 유배우 인구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목표라면, 유배우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을 더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배우 비율이 계속 감소한다면 유배우 출산율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의 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건대 가까운 장래에 혼외 출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 보였듯이 지난 20년 동안 무배우 여성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해오는 추세이다. 또한 유배우 여성의 비율이 하락하는 속도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빨라져오고 있다. 따라서 유배우 여성 비율을 제고하거나 혹은 적어도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직접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결혼기피 현상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요인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청년실업, 주택마련의 어려움, 비정규직의 확대,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 등은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인을 미루게 만드는 원인들이다. 결혼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된 여성들에게는 혼인의 매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2005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하여 35-44세 인구 가운데 무배우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학력이나 직업의 질이 낮을수록 무배우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반 요인들이 정말 유배우 비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중요한 요인이 혼인의 감소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혼인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의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출산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5. 인구 및 가구구성의 변화와 정책대상의 파악: 데이터 활용 가능성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혼인, 출산, 이혼, 가구구성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약 2만 개의 변수를 제공하는 방대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이 데이터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변화요인에 관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보였다. 또한 혼인, 출산, 이혼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은 제4장에서 수행된 분석에서 이미 상당부분 소개되고 이용되었다. 이하에는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변수들과 이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 5.1. 인구 및 가구구성의 변화

이 연구용역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변수들(특히 모수자료)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이들은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1.1.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가족규모, 가족구조, 가족형성시기

- 가구주 특성별 평균 가구원 수: 이 연구용역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에는 1980년 이후의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가구원 수, 가구주 혼인상태별 평균 가구원 수 등의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보고서의 3.1.4. 전국자료 ④~⑥ 및 시도자료 ④ 참조).

- 가구주 특성별 가구유형: 이 연구용역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는 1980년 이후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유형 및 가족형성시기에 대한 변수를 제공한다(보고서의 3.1.4. 전국자료 ⑦~⑨ 및 시도자료 ⑤ 참조).

- 가구주 특성별 가족형성시기: 초혼연령에 대한 정보가 보고된 1980년과 2005년 센서스에 기초하여 가구주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 가족형성시기가 제공되어 있다(보고서의 3.1.4. 전국자료 ⑩~⑫ 및 시도자료 ⑥ 참조).

#### 5.1.2. 가임인구의 규모와 사회경제적 특성

- 이 연구용역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는 1990년 이후 여성의 지역(시도 및 시군구)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직업별, 혼인상태별 인구수에 관한 변수를 제공해 준다(보고서의 3.2. 참조). 이를 이용하여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5.1.3. 베이비 붐 세대 및 후속 세대의 규모 및 구조적 특징

- 이 연구용역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는 1990년 이후 거주지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인구자료를 제공한다(보고서의 3.2. 참고). 이를 이용하여 베이비 붐 세대로 불리는 1955년~1963년 출생자들의 규모와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직업별, 거주지별 특성이 1990년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센서스 자료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부모의 연령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데이터를 가지고는 1955년~1963년생 부모에게서 태어난 인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포스트 베이비 붐 세대는 직접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대체로 베이비 붐 세대가 가임기에 있었을 때 태어난 세대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 베이비 붐 세대의 출생연도를 적절하게 정의할 경우 이 연구용역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세대의 규모,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직업별, 거주지별 구성이 1990년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베이비 붐 3세대는 대개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출생은 1991년부터 제공되는 인구동태 원시자료에 의해 커버된다. 포스트 베이비 붐 세대의 출생연도가 적절하게 정의되는 경우 이 세대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수를 계산함으로써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용역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 가운데 인구동태자료(보고서의 3.1 참조)는 이 베이비 붐 3세대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특성과, 그 부모들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 5.2. 정책적인 수요대상의 파악

이 연구용역의 결과로 제공된 데이터는 정책적인 수요대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3.1. 저출산 대책 수요대상의 파악

이 연구용역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는 지역,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로 유배우 비율을 비롯한 각 혼인상태별 인구비율, 무배우 인구 혼인율, 혼인상태별 혼인율 등의 변수를 제공해준다. 이 보고서의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변수들은 모두 출산율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다. 이 가운데 연령별, 교육수준별 유배우 비율 및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는 이 보고서의 4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저출산 대책의 수요대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그룹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배우 인구집단.
-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배우 인구집단.
- 혼인 외 출생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한 인구집단.
- 잠재적인 출산력이 높은 인구집단.

### 5.3.2. 보건 및 사회정책 수요 대상의 파악

조기출산은 저체중출산 및 유아사망의 원인이며, 생존하는 경우에도 출산아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용역이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결혼 코호트별, 출산연령별, 자녀 성별로 평균임신 주수 및 임신주수 분포에 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보고서의 3.1.4. 기타(O), 전국자료 및 시도자료의 ①, ② 참조). 이 변수들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의 어떤 집단에서 조기출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출산연령과 조기출산 간의 관계가 결혼 코호트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 및 사회정책의 수요대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태아 출생에 관한 변수(보고서의 3.1.4. 전국자료 및 시도자료 ③)도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관계부처합동.

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옥우석 (2007): 「저출산에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2006):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신운정·이지혜 (2009):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야마구치 가즈오 (2010):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보건사회연구원.

조운영 (2006):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 모형」,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6-01.

최경수 (2008): 『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8-14.

Almond, Douglas, and Janet Currie (2010): "Human Capital Development before Age Five," NBER Working Paper No. 15827.

Angrist, J., and J. Pischke (2009):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rker, DJP (1994), *Mothers, Babies, and Disease in Later Life*, BMJ Publishing Group

Becker, Gary S. (1993): *Treaties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Harvard.

Black, Sandra, Paul Devereux, and Kjell Salvanes (2007): "From the Cradle to the Labor Market? The Effect of Birth Weight on Adult Outcom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 409-439.

Bongaarts, John (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3), 419-443.

Bumpass, Larry L. (1990), "What's Happening to the Family? Interactions Between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Change," *Demography* 27, No. 4, 483-498.

Chung, Woojin, and Monica Das Gupta (2007), "Why is Son Preference Declining in South Korea?"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373.

Edlund, Lena (2006), "Marriage: Past, Present, Future?" *Economic Studies* 52(4), 621-639.

Edlund, Lena, and Chulhee Lee (2010), "Son Preference, Sex Sel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Evidence from South Korea,"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Columbia University.

Feyrer, James, Bruce Sacerdote, and Ariel D. Stern (2008): "Will the Stork Return to Europe and Japan? Understanding Fertility within Developed Na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 3-22.

Kohler, Hans-Peter, Francesco Billari, and Jose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Mason, A., R. Lee, and S. Lee (2010): "The Demographic Transi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Pacific Rim," In Takatoshi Ito and Andrew Rose, ed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 in East Asi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rgan, S. Philip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 589-603.

Park, Chai Bin, and Nam-Hoon Cho (1995),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a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 No. 1. 59-84.

Takayama, Noriyuki, and Martin Werding (2011): *Fertility and Public Policy: How to Reverse the Trend of Declining Birth Rates*, Cambridge, MA, MIT Press.

Tuljapurkar, Shripad, Nan Li, and Marcus W. Feldman (1995), "High Sex Ratios in China's Future," *Science* 267 (February), 874-876

부표: 시군구 지역명과 지역코드

지역명	지역코드	지역명	지역코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11010	충청북도 청원군	33310
서울특별시 중구	11020	충청북도 보은군	33320
서울특별시 용산구	11030	충청북도 옥천군	33330
서울특별시 성동구	11040	충청북도 영동군	33340
서울특별시 광진구	11050	충청북도 진천군	333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1060	충청북도 괴산군	33360
서울특별시 중랑구	11070	충청북도 음성군	33370
서울특별시 성북구	11080	충청북도 단양군	33380
서울특별시 강북구	11090	충청북도 증평군	33390
서울특별시 도봉구	11100	충청북도 동부출장소	33810
서울특별시 노원구	11110	충청북도 서부출장소	33820
서울특별시 은평구	11120	충청북도 증원군	33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1130	충청북도 제천군	33840
서울특별시 마포구	11140	충청남도 천안시	34010
서울특별시 양천구	111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34011
서울특별시 강서구	111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4012
서울특별시 구로구	11170	충청남도 공주시	34020
서울특별시 금천구	11180	충청남도 보령시	340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1190	충청남도 아산시	34040
서울특별시 동작구	11200	충청남도 서산시	34050
서울특별시 관악구	11210	충청남도 논산군	34060
서울특별시 서초구	11220	충청남도 논산시	34060
서울특별시 강남구	11230	충청남도 계룡시	34070
서울특별시 송파구	11240	충청남도 금산군	34310
서울특별시 강동구	11250	충청남도 연기군	34320
부산광역시 중구	21010	충청남도 부여군	34330
부산광역시 서구	21020	충청남도 서천군	34340
부산광역시 동구	21030	충청남도 청양군	34350
부산광역시 영도구	21040	충청남도 홍성군	3436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1050	충청남도 예산군	34370
부산광역시 동래구	21060	충청남도 태안군	34380
부산광역시 남구	21070	충청남도 당진군	34390
부산광역시 북구	21080	충청남도 대천시	346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1090	충청남도 온양시	34620
부산광역시 사하구	21100	충청남도 공주군	34810
부산광역시 금정구	21110	충청남도 보령군	34820
부산광역시 강서구	21120	충청남도 서산군	34830
부산광역시 연제구	21130	충청남도 아산군	34840

부산광역시 수영구	21140	충청남도 천안군	34850
부산광역시 사상구	21150	전라북도 전주시	35010
부산광역시 기장군	213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35011
대구광역시 중구	220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35012
대구광역시 동구	22020	전라북도 효자출장소	35013
대구광역시 서구	22030	전라북도 군산시	35020
대구광역시 남구	22040	전라북도 익산시	35030
대구광역시 북구	22050	전라북도 정읍시	35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22060	전라북도 남원시	35050
대구광역시 달서구	22070	전라북도 김제시	35060
대구광역시 달성군	22310	전라북도 완주군	35310
인천광역시 중구	23010	전라북도 진안군	35320
인천광역시 동구	23020	전라북도 무주군	35330
인천광역시 남구	23030	전라북도 장수군	35340
인천광역시 연수구	23040	전라북도 임실군	35350
인천광역시 남동구	23050	전라북도 순창군	35360
인천광역시 부평구	23060	전라북도 고창군	35370
인천광역시 계양구	23070	전라북도 부안군	35380
인천광역시 서구	23080	전라북도 남원군	35810
인천광역시 강화군	23310	전라북도 정읍군	35820
인천광역시 옹진군	23320	전라북도 김제군	35830
인천광역시 북구	23610	전라북도 옥구군	35840
광주광역시 동구	24010	전라북도 익산군	35850
광주광역시 서구	24020	전라남도 목포시	36010
광주광역시 남구	24030	전라남도 여수시	36020
광주광역시 북구	24040	전라남도 순천시	36030
광주광역시 광산구	24050	전라남도 나주시	36040
대전광역시 동구	25010	전라남도 여천시	36050
대전광역시 중구	25020	전라남도 광양시	36060
대전광역시 서구	25030	전라남도 담양군	36310
대전광역시 유성구	25040	전라남도 곡성군	36320
대전광역시 대덕구	25050	전라남도 구례군	36330
울산광역시 중구	26010	전라남도 여천군	36340
울산광역시 남구	26020	전라남도 고흥군	36350
울산광역시 동구	26030	전라남도 보성군	36360
울산광역시 북구	26040	전라남도 화순군	36370
울산광역시 울주군	26310	전라남도 장흥군	36380
울산광역시 북구	26040	전라남도 강진군	36390
울산광역시 울주군	26310	전라남도 해남군	36400
경기도 강화군	23310	전라남도 영암군	36410
경기도 옹진군	23320	전라남도 무안군	36420
경기도 수원시	31010	전라남도 함평군	364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31011	전라남도 영광군	36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31012	전라남도 장성군	364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1013	전라남도 완도군	364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1014	전라남도 진도군	36470
경기도 성남시	31020	전라남도 신안군	364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1021	전라남도 동광양시	3661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31022	전라남도 광양군	368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1023	전라남도 승주군	36820
경기도 의정부시	31030	전라남도 나주군	36830
경기도 안양시	31040	경상북도 달성군	223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31041	경상북도 포항시	370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10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37011
경기도 부천시	310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370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31051	경상북도 경주시	3702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31052	경상북도 김천시	3703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31053	경상북도 안동시	37040
경기도 부천시 중구	31058	경상북도 구미시	37050
경기도 부천시 남구	31059	경상북도 영주시	37060
경기도 광명시	31060	경상북도 영천시	37070
경기도 평택시	31070	경상북도 상주시	37080
경기도 동두천시	31080	경상북도 문경시	37090
경기도 안산시	31090	경상북도 경산시	371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1091	경상북도 군위군	373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1092	경상북도 의성군	37320
경기도 고양시	31100	경상북도 청송군	373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1101	경상북도 영양군	3734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31102	경상북도 영덕군	373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1103	경상북도 청도군	3736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31104	경상북도 고령군	37370
경기도 과천시	31110	경상북도 성주군	37380
경기도 구리시	31120	경상북도 칠곡군	37390
경기도 남양주시	31130	경상북도 예천군	37400
경기도 오산시	31140	경상북도 봉화군	37410
경기도 시흥시	31150	경상북도 울진군	37420
경기도 군포시	31160	경상북도 울릉군	37430
경기도 의왕시	31170	경상북도 점촌시	37610
경기도 하남시	31180	경상북도 안동군	37810
경기도 용인군	31190	경상북도 영일군	37820
경기도 용인시	31190	경상북도 경주군	378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1191	경상북도 영천군	3784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1192	경상북도 경산군	3785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31193	경상북도 금릉군	37860

경기도 파주군	31200	경상북도 선산군	37870
경기도 파주시	31200	경상북도 상주군	37880
경기도 이천군	31210	경상북도 문경군	37890
경기도 이천시	31210	경상북도 영풍군	37900
경기도 안성시	31220	경상남도 창원시(구)	38010
경기도 김포시	31230	경상남도 마산시	38020
경기도 화성시	31240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38021
경기도 광주시	31250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38022
경기도 양주시	31260	경상남도 진주시	38030
경기도 포천시	31270	경상남도 진해시	38040
경기도 양주군	31310	경상남도 통영시	38050
경기도 여주군	31320	경상남도 사천시	38060
경기도 화성군	31330	경상남도 김해시	38070
경기도 광주군	31340	경상남도 밀양시	38080
경기도 연천군	31350	경상남도 거제시	38090
경기도 포천군	31360	경상남도 양산시	38100
경기도 가평군	31370	경상남도 창원시	38110
경기도 양평군	3138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38111
경기도 안성군	3139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38112
경기도 김포군	314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8113
경기도 송탄시	3161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8114
경기도 미금시	316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38115
경기도 남양주군	31810	경상남도 의령군	38310
경기도 평택군	31820	경상남도 함안군	38320
강원도 춘천시	32010	경상남도 창녕군	38330
강원도 원주시	32020	경상남도 고성군	38340
강원도 강릉시	32030	경상남도 남해군	38350
강원도 동해시	32040	경상남도 하동군	38360
강원도 태백시	32050	경상남도 산청군	38370
강원도 속초시	32060	경상남도 함양군	38380
강원도 삼척시	32070	경상남도 거창군	38390
강원도 홍천군	32310	경상남도 합천군	38400
강원도 횡성군	32320	경상남도 울산시	38610
강원도 영월군	32330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38611
강원도 평창군	32340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38612
강원도 정선군	32350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38613
강원도 철원군	32360	경상남도 충무시	38620
강원도 화천군	32370	경상남도 삼천포시	38630
강원도 양구군	32380	경상남도 장승포시	38640
강원도 인제군	32390	경상남도 진양군	38810
강원도 고성군	32400	경상남도 밀양군	38820
강원도 양양군	32410	경상남도 양산군	38830

강원도 춘천군	32810	경상남도 울산군	38840
강원도 원주군	32820	경상남도 김해군	38850
강원도 명주군	32830	경상남도 창원군	38860
강원도 삼척군	32840	경상남도 통영군	38870
충청북도 청주시	33010	경상남도 거제군	3888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33011	경상남도 사천군	3889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3012	제주도 제주시	39010
충청북도 충주시	33020	제주도 서귀포시	39020
충청북도 제천시	33030	제주도 북제주군	39310
		제주도 남제주군	39320